

2016-15

기본연구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고승한 · 고혜원

Pending issue resea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16-15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고승한 · 고혜원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가 정치 및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제(특히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정책개발과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창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로 하여금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정책의 대응과제입니다.

청년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하지 못하여 실업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면 국가·사회적 위기를 가져 올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가져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업 사업화로 연계하여 창업기업을 만드는 일은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일로써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행정기관(특히 제주특별자치도)과 도내 대학들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창업지원 사업들은 대개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창업자금 지원 부족, 청년창업 실패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청년창업 기업의 획기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주지역의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현 단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제주청년들이 청년일자리 및 고용, 청년취업, 청년창업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고, 더구나 청년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어떤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조사를 통해서 향후 제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은 주요한 사회정책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응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청년창업 기업의 성장 발전과 청년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조그만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 기 춘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문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으로 인식되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청년실업은 미래세대와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
- 청년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창의적 도전을 함양하여 청년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도 청년창업 활성화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응과제들을 발굴하여 향후 제주 청년창업 기업의 지속적 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 고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설문조사 자료 분석
- 전문가 포럼 및 심층면접에 의한 전문가 의견 수렴

3. 연구내용

-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정책
- 청년창업 국내외 활성화 사례 분석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에 대한 실증조사
- 향후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과제 발굴

4. 연구의 기대효과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연구 분야에 대한 학술·정책연구의 기초자료 생성
-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 해소 기여

5. 창업과 청년창업의 주요 특성

- 창업이 새로운 사안은 아니지만 1980년대부터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서 실업문제가 대두되었고, 이후 국가·사회정책의 현안 과제로 부각됨.
- 창업기업은 창업한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업 기업들은 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창업기업은 창업 후 당장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잘하여 동일 혹은 유사 경쟁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때 생존 가능할 수 있음.
- 청년창업의 성공적 생태계를 구축하여 성장·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개별 청년창업가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성공한 청년창업가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반면에 실패한 청년창업가에게는 제도전환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해주는 일이 중요함.

6.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 창업지원체계의 연계성 및 창업자 보호 장치 부족
- 중앙정부의 청년창업지원 컨트롤타워의 부재
- 전공분야 및 학년별 수준 등에 맞춘 창업교육콘텐츠 부족
- 창업동아리 지원 부족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청년창업 연계체계 구축 미흡

7. 외국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 아동·청소년기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실시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창업 도전의식 고취를 통해 미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점임.
-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확산을 지역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업으로 ‘기업주간’ 행사를 전국에 걸쳐 시행해 오고 있음.
- 창업에 실패한 창업가가 파산을 신청하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엔젤투자제도를 시행하여 기업투자제도(EIS)에 충족시키는 엔젤투자에 대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 창업에 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 누구나 창업 촉진 및 기업가정신의 함양 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년들이 창업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키아를 비롯한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각종 지식재산을 개방함.
- 대학 내에 창업동아리를 설치하여 이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창업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옴.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갖추기 위해 정부와 청년창업가들 모두가 협력함.

8. 제주지역 청년창업 현황과 문제점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현황
 - 2008년에 325개의 법인이 새로 신설되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1,565개로 늘어나 지난 8년 동안 381.5%나 크게 증가하였음. 현재 2016년 7월 말로 970개소의 신설법인이 생겨남.
 - 제주지역에서 2011-2013년 사이에 전산업 분야에서 청년(만 20세~만 39세 이하)들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수는 감소-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체수는 2012-2013년의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반면에 30대의 청년창업 기업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음.

○ 제주지역 청년창업의 문제점

-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중앙정부 의존
- 청년창업 활성화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
-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부족
-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창업아이템 발굴 미흡
- 청년창업 관련 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 미흡
- 창업 후 실패에 따른 안전망 부재
-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 청년창업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부재
- 청년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9. 제주지역의 청년창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 결과

1)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대상 표집방법은 무작위표집(random sample), 그리고 할당표집방법 활용
- 최종 조사 분석대상자는 청년 220명(20세~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33개소(대표자 33명), 청년창업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7명이고, 빈도분석과 기술적 설명 방법을 이용하였음.

2) 빈도분석에 따른 시사점

- ① 청년대상(20세~39세 이하) 실태조사의 시사점
 - 인구학적 특성
 - 청년층 가운데 96.4%(212명)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청년일자리 및 고용 문제에서 미스매치 현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청년일자리

- 제주지역의 청년들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을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에 두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직종 유형은 대체로 공무원, 교사, 은행원, 공기업직원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청년창업

-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일단 취업하여 사회경험을 쌓고 창업자금을 마련한 이후에 창업을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년취업 활성화에 청년고용정책을 우선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창업할 때 창업자금 조달과 해당 업종의 시장경쟁 등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습득이 필요함.
- 제주 청년들이 창업할 때 비경제적 환경 및 요인으로 주로 자아실현과 도전의식을 꼽고 있는데 청년들 개인 차원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제주청년들이 도내 대학들에게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창업 후 지속적 관리 및 컨설팅,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창업 자금 확보 방안 지원 등을 대학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청년 취업

-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하거나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대학 재학생 제외)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취업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용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대다수 청년들이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좋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청년창업 기업 및 창업자의 실태조사의 시사점

○ 청년창업기업

- 청년창업기업의 창립연도가 2015~2016년 51.6%(16명)를 차지하여 절반을 넘기고 있고, 2013~2014년에 29.0%(9명)을 나타나 최근 4년간 창업이 많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청년창업기업들이 종사하는 사업 분야는 제조업이 12개소(36.4%)이고,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는 21개(63.6%)로 나타나 청년기업의 사업 분야가 전체 주요사업 분야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제주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것임.

○ 창업활동에 영향 주는 요인

- 청년창업가들은 창업 아이템의 시장경쟁력과 수익 창출을 고려하여 창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창업결정은 청년창업가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자아실현 욕구 충족이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창업환경과 기업가에 대한 인식

- 창업환경이 악화된 주요 요인이 ‘높은 생산요소 비용(지가, 인건비, 원자재 등)’(45.5%)과 ‘시장경쟁 치열’(27.3%) 그리고 ‘유사 사업체의 증가’(18.2%) 등임. 따라서 향후 창업희망자들은 창업실패에 앞서 창업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 창업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

○ 창업활동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 창업실패에 따른 어려움이나 재기 불가능에 대한 면책지원 확대 범위를 늘려주는 방안을 법·제도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절대 다수의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창업과정에서 받은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의 체계적 함양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정부 혹은 금융기관들이 청년창업가의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엔젤 자금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엔젤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확대, 엔젤 투자 확대 홍보 강화, 엔젤 자금의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이 필요함.
- 중앙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 조달지원(융자, 투자)의 원활화,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청년창업 실태에 대한 제도전 기회 제공 등의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네트워크 강화, 청년창업 자금조달의 보증, 창업실패 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도내 대학들은 창업과 연계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창업자금 확보방안 강구,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③ 청년창업 지원 기관(단체) 심층면접조사의 시사점

○ 청년창업 기반 조성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과 활동위한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음. 즉, 도내 4개 대학에 거의 창업교육 및 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일정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어 오고 있음.

○ 청년창업의 시기

- 대학에서 다양한 창업교육 및 보육 관련 프로그램 개설·운영과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대학생 청년들이 재학 중 혹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창업하기란 쉽지 않음.

○ 청년창업 지원

- 청년창업(일반 창업 포함) 지원이 거의 전적으로 중앙 정부(특히 중소기업청)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이 청년창업(일반 창업 포함)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10.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1) 정책방향

- 창업기반의 조성
- 교육훈련의 질적 개선
- 창업의 사업화 연계 강화
- 창업 재도전의 기회 제공

2) 추진전략

-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
- 창업 사업화 및 투자회수 지원 전략
- 창업 재도전 보장과 정리 촉진 전략

3) 향후 정책 대응과제

가)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응과제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창업동아리 활동·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창업과 지역기반 가젤기업 육성의 연계

나) 창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과제

- 대학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학교 졸업 청년대상 창업지원 체계 구축
- 창업아이템 발굴 강화 및 아이템 DB화

- 청년창업자 교육의 질적 개선과 멘토링 상시화
- 창업 관련 정규교과목 개설 확대를 통한 창업교육 강화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분야 창업 훈련 프로그램 발굴
- 스펙초월 도전형 창업인재 육성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투자회수 대응과제

-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체계 구축
- 창업교육 수료생 대상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 (가칭)제주청년창업기금 조성 사업 추진
- 창업자금 확보를 위해 엔젤 투자 활용 및 연계 강화
- 청년창업기업의 투자회수 계획 수립 및 지원
- 청년몰(Mall) 조성 사업

라) 창업 재도전 보장과 정리축진을 위한 대응과제

- 청년창업 재도전 보장제도 도입
- 창업실패에 따른 자산정리 촉진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유경험 청년층 대상의 청년창업 도전 프로그램 운영
- 청년창업자의 지속관리 체계 구축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5
3. 연구의 주요 내용	5
4. 연구의 기대효과	6
5. 연구의 한계점	6
II. 청년창업의 특성과 관련 정책 사례	8
1. 청년문제와 일자리	8
2. 청년창업의 특성과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	10
3.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과 시사점	20
4. 외국의 청년창업 지원정책과 시사점	30
III. 제주지역 청년창업의 현황 및 문제점	38
1. 청년층 고용 현황	38
2. 제주지역 청년창업 현황	41
3. 제주지역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	43
4. 제주지역 청년창업의 문제점	50
IV. 제주지역의 청년창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53
1. 조사설계	53
2. 제주지역 청년층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53
3. 제주지역 청년창업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76
4. 제주지역 청년창업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93

V.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113
1. 정책방향	114
2. 추진전략	115
3. 향후 청년창업 활성화 대응과제	117
4. 향후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방향, 전략과 과제 도식화	133
5. 주체별·시기별 추진 로드맵	134
VI. 결론 및 제언	136
□ 참고문헌	140
□ 부록 1 중앙정부의 청년창업 정책 현황	142
□ 부록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창업 정책 현황	146
□ 부록 3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센터의 주요사업	155
□ 부록 4 청년대상 설문지	157
□ 부록 5 청년창업기업 대상 설문지	168
□ 영문초록(Abstract)	177

표 목차

<표 II-1>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지원 규모	22
<표 II-2> 청년사업화 유형별 지원내용	23
<표 II-3> 대학의 LINC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25
<표 II-4> 정부 주요부처의 창업 활성화 정책	26
<표 III-1>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 고용률 변화 추이	38
<표 III-2> 전국 및 제주지역 취업자 비중 변화	39
<표 III-3>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 실업률 변화 추이	40
<표 III-4> 제주지역 신설법인수 변화 추이(전산업)	41
<표 III-5> 제주지역 산업별 창업기업 현황	41
<표 III-6> 제주지역 전산업 청년대표자 사업체수 현황	42
<표 III-7> 제주지역 청년층 신설법인수 현황	43
<표 III-8> 제주지역 창업지원 현황(2012~2016년)	44
<표 III-9> 2016년 제주지역 창업지원 사업비 현황	47
<표 III-10> 제주지역 창업보육센터의 현황(2010. 9월 기준)	48
<표 III-11> 제주지역 창업보육센터의 재정지원 규모(2014~2016년)	49
<표 IV-1> 조사대상 청년의 일반적 특성	55
<표 IV-2> ‘괜찮은 일자리’ 인식 주요요인	57
<표 IV-3> 제주지역 ‘괜찮은 일자리’ 존재여부	57
<표 IV-4> 제주지역 ‘괜찮은 일자리’ 직종 유형	58
<표 IV-5> 제주지역에 ‘괜찮은 일자리’ 부재 이유	58
<표 IV-6> 제주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59
<표 IV-7> 행정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위한 우선 과제(복수응답)	60
<표 IV-8> 취업과 창업 중 우선순위	60
<표 IV-9> 창업보다 취업 먼저인 이유	61
<표 IV-10> 향후 창업 계획 여부	61
<표 IV-11> 창업 예정 시기	62
<표 IV-12> 창업시 고려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환경 및 요인	62
<표 IV-13> 창업시 고려할 가장 중요한 비경제적 환경 및 요인	63

<표 IV-14> 창업교육 참여 여부	63
<표 IV-15>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	64
<표 IV-16> 창업교육의 필요성	64
<표 IV-17> 창업교육 필요성의 주요 이유	65
<표 IV-18> 현재 제주지역 청년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	65
<표 IV-19> 제주에서 청년창업의 중요 장애요인	66
<표 IV-20> 제주지역 청년창업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	67
<표 IV-21> 청년창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사업 인지 여부	67
<표 IV-22>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 역할	68
<표 IV-2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 역할 ...	69
<표 IV-24>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대학들에 대한 기대 역할	69
<표 IV-25> 취업여부	70
<표 IV-26> 직장 구분	70
<표 IV-27> 취업희망 직장 유형	71
<표 IV-28> 취업할 때 가장 중요시한 요인	71
<표 IV-29> 자신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직장 이직 의향	72
<표 IV-30> 자신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직장에 미취업 이유	72
<표 IV-31> 제주청년들의 취업 힘든 이유	73
<표 IV-32>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추진 정책 인지 여부 ...	74
<표 IV-33> 취업과 고용촉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정책 인지 여부	74
<표 IV-34> 제주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잘하기 위한 방안	75
<표 IV-35> 청년기업의 일반적 특성	77
<표 IV-36> 청년창업가의 일반적 특성	78
<표 IV-37> 창업기업의 주요사업 분야	79
<표 IV-38> 주요사업 분야의 기타 서비스업 분류	80
<표 IV-39> 기업가가 되고자 한 주요 동기	81
<표 IV-40> 창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	81
<표 IV-41> 최종 창업결정시 가장 중요시 할 경제적 환경 및 요인	82
<표 IV-42> 최종 창업결정시 가장 중요시 할 비경제적 환경 및 요인 ...	83
<표 IV-43> 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업교육 참여 여부	83

<표 IV-44>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	84
<표 IV-45> 창업 초기 창업자금 조달 방법	84
<표 IV-46> 엔젤 캐피털회사 활용여부	85
<표 IV-47> 엔젤 캐피털 활용여부	85
<표 IV-48> 창업 후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86
<표 IV-49> 창업 당시에 비해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86
<표 IV-50> 창업환경이 악화된 주요 이유	87
<표 IV-51> 기업가정신 약화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87
<표 IV-52>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기여 여부	88
<표 IV-53>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표준 마련에 대한 인식	88
<표 IV-54> 창업교육 상설화에 대한 인식	89
<표 IV-55> 벤처캐피털 회사 운영에 가장 바라는 사항	89
<표 IV-56> 엔젤 자금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90
<표 IV-57> 창업촉진 위한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에 우선 시급 사항	90
<표 IV-58>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복수응답)	91
<표 IV-59>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복수응답) ...	92
<표 IV-60>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대학들의 역할(복수응답)	93
<표 IV-6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5
<표 IV-62> 심층면접 내용	95
<표 V-1> 청년창업 활성화정책 대응과제 실천 주체·시기별 추진일정(안) ...	135

그 립 목 차

<그림 II-1> 창업생태계 세부영역 및 구성요소	17
<그림 III-1>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 고용률 변화 추이	39
<그림 III-2>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39
<그림 III-3>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 실업률 변화 추이	40
<그림 V-1> 서울혁신파크 입구와 청년허브센터 내부 공간	120
<그림 V-2> 후붓기업의 전경과 참여자의 일·휴식하는 모습	121
<그림 V-3>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조성 주체와 참여방법	129
<그림 V-4>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방향	133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에 힘든 상황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청년취업 문제 해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어 오고 있음.
-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청년(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0%, 실업률 10.3%, 그리고 고용률이 43.1%로 나타남.¹⁾
- 정부는 ‘청년취업,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기대만큼 청년취업 혹은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록 청년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쟁 체제하에서 창업 회사(혹은 사업체)를 성장·발전하기가 힘든 상황을 부인하지 못함. 왜냐하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창업은 쉽지만 지속하기가 힘든 게 현실임.
- 창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을 하려 소위 스펙 쌓기(예, 토익점수 올리기, 해외어학연수, 각종 자격증 취득 등)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
- 청년층 취업난의 상당 부분이 청년 대졸자에게 집중되어 높은 대학 진학률과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

1)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5%, 실업률 3.6%, 그리고 고용률은 61.2%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다른 한편, 취업이 되었더라도 비정규직 혹은 임시 계약직 상태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많은 정규직 일자리 찾아 이직하거나 혹은 다시 재취업 기회를 갖기 위해 취업준비생으로 돌아오곤 함.
-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하여 장기실업자가 되거나 혹은 대학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의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청년세대를 소위 ‘N포 세대’라 불리기도 함.
-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대체로 기존의 안정적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공무원이나 대기업 및 공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의향이 강함. 왜냐하면 청년들이 고임금, 정규직,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임.
-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이 기존의 안정적 노동시장에 안주하려는 특성은 있지만 창업을 하여 창조적이고 도전적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취업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 그러나 청년취업 보다는 청년창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고, 정부 혹은 지자체 그리고 대학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고, 동시에 청년창업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도 나오고 있음(박동 외, 2014; 박천수 외, 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 정부의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임. 왜냐하면 각 지자체는 지역특성(산업구조, 대학취업 경쟁력, 예산지원 등)이 다르기 때문임.
- 전국의 지자체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여 각종 정책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대개 단기·임시직 위주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타시도의 청년들처럼 제주지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청년 대졸자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및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고승한 외. 2014).
- 물론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7%, 고용률 43.3%, 그리고 실업률은 7.4%로 나타나 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근로조건(임금수준, 고용의 질, 종사상 지위 등)은 오히려 열악한 편임.
- 제주지역의 취업 희망 청년들 절반 가까이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수준도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특히 공무원) 및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고승한, 2013). 그래서 공무원 취업에 여러 번 도전하여 실패할 경우에 아예 취업을 포기하여 무급가족종사자 혹은 장기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
-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 상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공무원 및 공기업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취업 기회를 갖는 청년창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물론 아직까지 제주지역에서도 청년창업은 일부 소수의 청년들에 의해서 도전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어서 청년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제주 청년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창업 계획이 없으며, 만일 창업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취업하여 사회경험을 3~4년 정도하고 난 후 고려해 본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고승한 외 2014).
 - 조사 대상의 절대 대다수는 아직까지 창업교육에 참여해 본 적이 없으며, 특히 창업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창업 후 실패 시 재정적 부담, 창업 분야 정보취득의 어려움, 창업자금 조달, 경영기술 부족 등을 들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청년들이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창업활동에 잘 활용하고, 아울러 정부 및 지방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도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청년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해 나가는 일환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실제로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해 현 단계 청년창업의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지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청년창업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제주지역 청년의 취업 활성화와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과 청년창업의 주요 특성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청년창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둘째, 국내외 청년창업 활성화 사례 조사를 통해 제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제주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제주청년 특성별 창업활성화 인식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고자 함.
- 넷째, 제주지역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 고찰 (기존 연구 및 정책 분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경험적 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포럼)

3. 연구의 주요내용

- 청년창업의 주요 특성
-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정책
- 청년창업 국내외 활성화 사례 분석

-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 및 청년창업 현황
- 제주지역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에 대한 실증조사
-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정책 방안

4. 연구의 기대효과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연구 분야에 대한 학술·정책연구의 기초자료 생성
-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 해소 기여

5.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청년(20세~39세 이하) 220명과 청년창업가 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표집된 사례분석을 가지고 일반화하는데 한계성이 있음.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에 대한 조사연구가 설문조사(특히 청년창업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에 의한 제주청년의 창업 이전, 창업 후 과정 그리고 창업 실패 후 전 과정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다만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함으로써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 구조화된 설문조사의 단점을 보완하였음.
-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청년과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면접표를 가지고 수행된 설문조사가 단일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창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청년창업가들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국 혹은 타시도 청년 및 청년창업가들과 비교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또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 활성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요인과 청년창업의 내적·외적요인과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하지 못하였음.
- 또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도내 기관(예,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대학의 창업교육 및 보육센터 등) 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식 조사도 필요함. 다만 본 조사에서는 연구자가 판단하기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단체)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청년창업 관련 의견들을 수렴하였음.
- 따라서 앞으로,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는 다양한 관계자(청년, 청년창업가, 창업실패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여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청년창업의 특성과 관련 정책 사례

1. 청년문제와 일자리

- 일반적으로 청년은 청소년기에 놓여 있거나 혹은 청소년기를 지나 장년층에 들어가기 전의 연령대를 포함하여 15세~29세인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을 말함. 즉,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대개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하거나 혹은 졸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놓인 20대로 인식되곤 함.
-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층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년의무고용제의 나이 상한을 만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 바 있고, 일부 사업에서는 정부의 청년층 대상 사업 참여 연령대로 39세를 상한선으로 분류하고 있음. 실제로 각종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 대상의 상한 연령대는 34~39세 까지임.
-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년에게 경제활동은 아주 중요한 일임.
 - 개인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벗어나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소비 및 저축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결혼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결혼 후 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됨.
 - 사회적으로는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 사회적 불만의 해소, 세대 간 사회통합의 기반, 경제활동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저감 등의 효과 창출에 기여함.
 - 국가적으로는 생산성의 증대, 사회적 부양비의 부담 해소, 국가 및 정부에 대한 불만 감소, 사회적 비용(직업훈련비, 실업수당 등)의 저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처럼 청년의 일자리 및 경제활동 문제는 개인,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청년고용 대책을 수립하여 청년층 일자리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은 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청년 창업촉진, 청년 해외취업 지원 등과 같은 사업들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최근에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시켜 나가는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대책 예산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9,800억 원에 이르고 있음(매일경제신문, 2016년 3월 7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 및 취업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청년층 개인 차원을 넘어선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함(이규용, 2015).
 -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둔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경력직 중심의 노동수요구조,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청년층의 고학력화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청년문제는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의 세부 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일자리 및 취업 활성화, 청년고용 지원 위주로 다루어져 왔음.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및 취업과 더불어 주거, 건강, 여가, 결혼, 사회참여 등도 중요한 관심 사항이고 이런 문제들은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서울특별시가 「2020 서울형 청년보장」 계획을 수립하여(서울특별시, 2015b) 청년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음.
 -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주거환경, 청년활동환경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설자리(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 강화), 일자리(일자리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살자리(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놀자리(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의 4대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음(서울특별시, 2015b:21).
- 이렇게 서울시와 같이 청년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도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에 대한 관심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취업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음.

-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체적인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10.3%로 나타나고 있어서(통계청, 2016)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임. 특히 2014년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청년층 일자리 중 비정규직이 34.6%로 3개의 일자리 중 1개 정도이며, 20대 청년층 일자리의 27.0%가 중위임금 2/3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로 나타남(이규용, 2015:16).
- 따라서 청년문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는 분명 청년층 일자리 및 실업 문제임. 그러나 오늘날 청년문제가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른 문제들도 함께 논의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이 연구에서는 청년문제에 대하여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범위의 한계 상 청년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주지역 청년의 창업 문제를 주로 다룰 것임.

2. 청년창업의 특성과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

1) 창업의 주요 특성과 성과요인

- 일반적으로 창업은 새로운 다양한 사업(혹은 일자리)을 창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혹은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일임.
- 창업이 새로운 사안은 아니지만 1980년대부터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서 실업문제가 대두되었고, 이후 국가·사회정책의 현안 과제로 부각됨.
- 특히 선진국들의 저성장 구조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한계로 인한 고용문제가 사회정책의 핵심 사항으로 떠오르게 됨. 고용의

불안정이 사회복지의 불안정과 연계되어 실업수당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을 초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됨.

- 이에 대한 반향으로 1980년대 이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및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과 자본의 자유화와 탈규제를 기치로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도 함.
-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시장 진입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가능한 많이 창출하고 실업문제의 해소와 복지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들을 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나타난 경제위기 결과로 초래된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실업문제를 돌파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음. 벤처창업에 대한 정책이 그 사례임.
- 이후 경제위기 극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저성장의 지속, 그리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 둔화 등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국가·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청년창업 방안이 그 대안으로 더욱 부각됨.

(1) 창업의 결정요인

- 한편 창업은 기본적으로 창업기회와 창업역량에 의해서 좌우되고, 이는 창업활동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게 됨. 창업활동의 기본조건은 창업기반 여건, 인구 구성, 교육 수준, 문화적 특성 등의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음(양현봉·박종복, 2011: 27-28).
- 창업활동의 기반 여건은 주로 창업 관련 제도, 자금 및 인력공급,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하여 창업을 얼마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임.
- 인구 구성 측면에서는 25~44세 인구층 비중이 높을수록 창업 활동이

활발하고, 창업교육의 실시와 창업활동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창업기업의 특성

-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과정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2항에 따르면,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따라서 창업기업은 창업한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업기업들은 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법인기업은 상법상의 회사로서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네 종류로 분류됨. 법인기업은 기업주의 활동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창업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동시에 자본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음.
- 창업기업들은 주로 창업 준비 단계를 거쳐 창업, 상업화, 성장, 그리고 성숙 단계를 거침(Kazanjian, 1988; 양현봉·박종복, 2011: 30 재인용)
 -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창업자금을 비롯한 인력 등의 자원동원과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상업화 단계에서는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며, 성장단계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 경영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그리고 마지막 성숙단계는 수익성, 조직관리 및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
- 양현봉·박종복(2011: 30)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창업과정을 크게 창업 준비 단계, 창업 단계, 창업 후 초기 단계로 구분이 가능함.
 - 창업준비 단계에서는 창업동기, 창업할만한 역량 확보, 사업기회 진단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짐.
 - 창업 단계에는 창업을 결정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원(자금, 인력 등)을 동원하는 일이 중요함.

- 창업 후 초기 단계에는 창업 후 3년 동안 시장 진입, 자금 조달, 생산성 증대 및 경영 전략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경쟁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이 중요함.

(3)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

- 창업기업은 창업 후 당장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잘하여 동일 혹은 유사 경쟁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때 생존 가능할 수 있음.
- 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요인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창업 후 평균적으로 약 8년이 경과된 이후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창업자의 목표, 자금조달 능력, 주주의 이해관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Cooper, 1993; 양현봉 · 박종복, 2011: 31 재인용).
- 창업자는 창업기업이 성공시켜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며 창업 동기, 창업 목표, 창업 전략 등을 시장여건, 기술개발, 경영 전략 등의 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수정·보완하게 됨.
- 따라서 창업기업은 창업자의 창업동기 지속, 도전과 리더십, 경영 혁신과 시장 적응 등에 의해서도 성장과 지속에 영향을 받기도 함.

나. 청년창업의 특성과 청년창업 생태계

(1) 청년창업의 특성

- 청년창업은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으로 대학생 혹은 대학 졸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로 추진되고 있음.
- 대학에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창업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창업에 관하여 다양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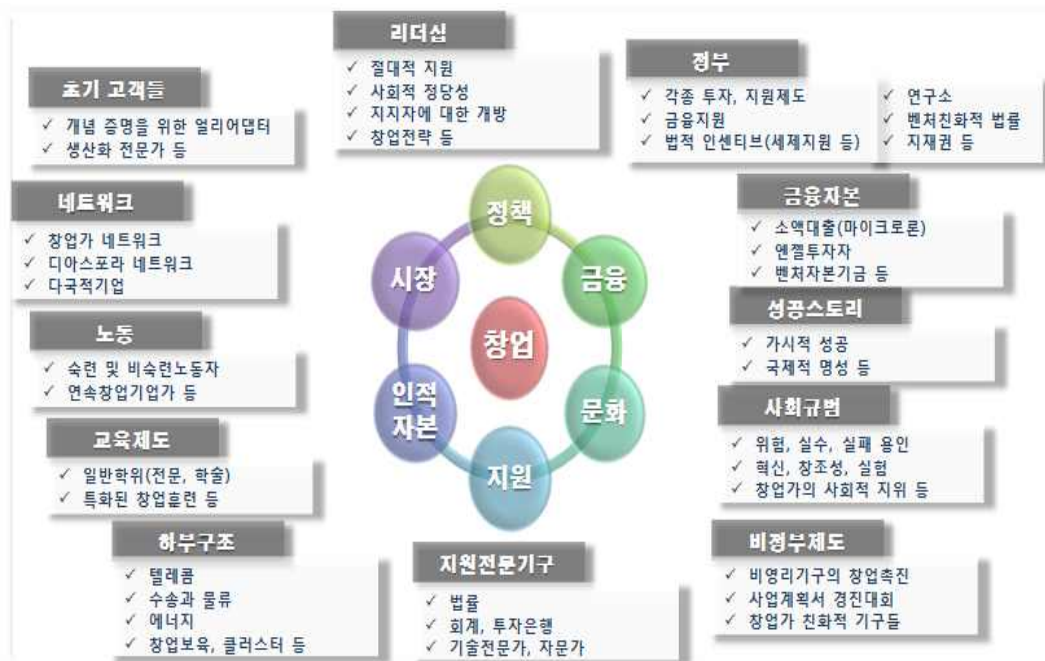
- 박동 외(2010)는 학생(800명), 교수(200명),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대표(200명)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나이가 많을수록 청년 창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경우 그 만큼 사회경험이 많아 창업 준비 단계에서 다양한 요인(사업 아이템, 자금조달, 공장부지 선정 등)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주변 친지의 창업 성공 사례가 청년창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즉,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주변에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창업에 보다 적극적 태도를 가지게 됨.
 - 셋째, 대학(원)생들이 창업을 생각할 때 가장 유망한 분야로 인식하는 사업 분야는 아이디어 창업, 인터넷 쇼핑몰,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 지식기술 분야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청년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성공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 있다고 판단하는 영역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넷째, 청년창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창업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창업 교육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향후에 창업 계획 수립이나 본인의 창업 의지 강화에 보다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특히 학생들은 고등학교부터 대학 1~2학년 사이에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음.
 - 다섯째, 조사응답 대학(원)생 10명 중 1명만이 창업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 계획 수립과 창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창업 교육과정에서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창업 여건, 자금조달, 창업 성공 및 실패 사례별 분석, 인적 네트워크, 창업 위험의 분산 등)와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창업에 보다 적극적 태도를 갖게 됨.

- 끝으로, 서울지역의 소위 명문대학일수록 창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일수록 보다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15~34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고승한 외. 2014: 106-111).
- 첫째, 제주지역의 청년들의 경우 미래에 창업을 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62.4%) 이상으로 나타나 창업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창업교육에 참여한 청년층은 거의 미미한 수준(9.2%)에 그치고 있어서 절대 대다수 청년들은 창업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청년창업의 장애요인에 대해서 우선 창업 실패 시 재정적 부담, 창업 분야 정보 취득의 어려움, 창업자금 조달 애로, 경영기술의 부족, 창업 아이템의 부족 등을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어려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창업 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 정보와 지식 습득, 창업자금 조달, 기업 경영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 넷째, 제주지역의 청년들은 청년창업을 촉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인프라 개선 사항으로 창업자금 시스템 확대(38.3%), 정보지원 시스템 확대(26.7%),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20.7%), 창업보육센터 시설 확충(13.7%) 등을 제언하고 있음.
- 끝으로, 제주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보면, 창업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재정지원 확대(대출 및 자금 지원 등)를 제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창업에 대한 청년의식 변화 등을 들고 있음.

(2) 청년창업 생태계의 구성

- 창업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각 국가는 혁신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창업생태계(entrepreneurship ecosystem)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국의 뱀슨 창업생태계 프로젝트(BEEP)를 이끌고 있는 다니엘 아이젠버그(Daniel Isenberg)는 창업가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적 자원, 금융, 전문적 지식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정부정책이 창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창업생태계(entrepreneurship ecosystem)로 정의하고 있음(Isenberg, 2010; 2011; 박동 외, 2014: 11 재인용).
- 아이젠버그는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한 결과 창업생태계를 창업을 추동하는 문화, 창업을 가능케 하는 정책과 리더십, 적절한 재원 자금의 유용성, 질 높은 인적자본, 벤처기업에 우호적인 시장, 다양한 제도 및 하부구조 지원 등 크게 6가지 영역으로 정의함(Isenberg, 2010; 2011; 박동 · 나영선 외, 2014:11 재인용).
- 창업생태계는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점에서 자기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환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종 창업 프로그램들이 자동적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스타트업 계놈과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순위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이들이 창업생태계의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한 주요 요소들은 창업 산출, 재정지원, 기업 수행능력, 창업마인드셋, 트렌드 셋터 역할, 지원체계, 우수 인재, 여타 창업생태계와의 차별화 정도 등 여덟 가지였음. 평가 결과 실리콘밸리가 가장 잘 발달된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미국 로스엔젤러스, 시애틀, 뉴욕, 보스턴, 런던, 토론토 순으로 나타났음. 20개 창업생태계 중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7위), 인도의 방갈로르(19위) 등이 포함되었음(박동 외, 2014; 15).

<그림 II-1> 창업생태계 세부영역 및 구성요소



자료: 박동·나영선 외 「기업가적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직업교육훈련 방안」
2014: 11에서 재인용.

- 한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창업생태계를 창업자, 대학 등 창업 지원 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1). 특히, 창업자의 범위를 청년으로 한정하는 경우 청년창업 생태계라 칭할 수 있음.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청년기업가, 청년(창업)기업, 엔젤·벤처캐피털이며, 그리고 주요 환경요소로서 사회여건, 회수 시장 환경(M&A 포함), 창업 인프라 등임(양현봉·박종복, 2011: 35-36).
- 청년창업의 생태계 변화와 구축 과정에는 먼저 청년창업에 희망과 도전 의식을 가진 청년창업가가 창업초기 단계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창업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경우와 창업에 성공하여 다양한 시장(소비, 유통, 자본시장 등)과 환경변화(경영기법 및 기술 개발 등)에 잘 적응해 성장·진화해 가는 경우가 있음.
- 청년창업의 성공적 생태계를 구축하여 성장·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개별 청년창업가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성공한 청년창업가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반면에 실패한 청년창업가에게는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해주는 일이 중요함.

- 특히 청년창업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과제가 바로 창업 실패에 대한 불안으로 실패 후 결과를 생각하면 창업보다는 안정된 취업을 선택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잘 마련하여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실패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일이 중요함.

○ 성공한 청년창업 기업들은 청년창업 초기단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문 및 상담을 해주는 역할 수행이 필요함. 청년창업의 성공 과정에서 취득한 여러 가지 성공요인들을 초기단계의 청년기업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함.

- 그런 맥락에서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내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선도 동문기업과 청년창업 기업가(기업) 간의 연계를 시켜 줄 필요가 있고, 나아가 멘토(선도 동문기업)와 멘티(청년창업기업) 관계 플랫폼을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이민화, 2011; 양현봉·박종복, 2011:36 재인용).

○ 청년창업의 생태계는 항상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진화·성장한다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청년창업기업은 변화에 잘 적응한 경우이고 그렇지 못한 청년창업기업은 실패한 것으로 인식함. 그래서 실패한 청년창업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려야 하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청년창업 기업가(기업)는 청년창업의 다양한 환경(시장, 자금, 인력, 경영, 기술 등)에 잘 적응하여 생존·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이 중요함.

(3) 기존의 청년창업 생태계의 문제점

- 청년창업 생태계의 안정화와 활성화에 중요한 외적 환경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단이 강조되고 있음(양현봉·박종복, 2011).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수단과 지원책으로 청년창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 정부가 청년창업 생태계의 진화·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용자 중심의 지원, 창업의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대학의 창업지원기능과 투자 창업자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청년창업 생태계 형성이 부진한 결과를 초래함(관계부처 합동, 2011). 청년창업 생태계의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임채운, 2011; 양현봉·박종복, 2011: 39 재인용).
 - 첫째,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주로 창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창업 이후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음.
 - 둘째, 창업교육은 주로 대학(대학원)생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서 현장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일반 청년들에 대한 청년창업에는 관심 부족 결과를 초래하였음.
 - 셋째, 청년창업 기업가들은 비록 기업가 정신과 창업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창업자금 조달의 한계 때문에 실제로 창업하기가 힘든 실정임.
 - 넷째, 인수합병(M&A) 등 중간회수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초기단계의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상황임.
 - 끝으로, 창업 실패 시 청년 기업가는 신용불량자 등으로 전락하여 창업 재도전의 기회를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창업 실패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는 실정임.

3.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과 시사점

- 청년층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음. 청년창업 지원정책은 창업 단계에 따라 교육훈련(기반조성), 아이디어 창출, 사업화 및 사업 확장, 그리고 재도전 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개별 사업은 대부분 특정 단계를 중심으로 하나, 일부 3단계를 포괄하는 사례도 있음(박천수 외, 2013).

1) 중앙정부의 정책

- 2016년 기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창업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예산 기준으로 창업지원 자금지원(융자)이 1조 4,500억원으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LINC 사업이 많음.
- 대다수 사업은 창업의 특정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LINC나 창업선도대학과 같이 일부 사업은 3개 단계에 걸쳐 있음. 전반적으로 직접 창업을 추진하는 3단계 사업화 및 사업 확장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음.
-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중소기업청임. 1단계는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4단계는 중소기업청이 전담하고 있음. 4단계 사업의 경우 최근 중소기업 재창업 자금 지원 및 재기 지원 사업 등이 확대되었음.
-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음.²⁾
 - 정부의 청년창업 정책사업은 1단계 교육훈련 사업에는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 YES 리더스 특강 사업은 중소기업청 소관이고, LINC 사업

2) 중앙정부의 청년창업 정책 내용은 소관부처별 홈페이지 등 게재한 사업 자료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함(2016년 9월 1-6일 검색).

은 교육부 소관 하에 추진하되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3단계 사업화 및 사업 확장 사업에서 K-Global 프로젝트(미래창조과학부), 게임벤처 3.0 육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을 제외하고 나머지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글로벌시장형 창업 R&D 사업,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창업기업지원 자금,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1인 창조기업/컨설팅 사업은 모두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음.
- 4단계 제도전 사업인 중소기업 재창업 자금지원, 재기지원사업은 모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고 있음.
- 정부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음. 여기서는 중소기업청,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함.³⁾
- 정부는 관계 부처(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음(표 II-1. 참고).

(1) 중소기업청

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인력, 장비, 공간 등)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 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자 교육·발굴·사업화 과정에 이르는 창업의 전단계를 일괄 지원하여 대학을 권역별 청년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임.

3)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의 「기업가적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직업교육훈련 방안」(pp.7~15)를 참고하여 발췌·재정리하였음을 밝힘.

<표 II-1> 정부의 청년창업 주요 지원사업 및 지원 규모

사업명	부처	지원내용	2016년 지원규모 (금액, 인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 전국 34개 대학(교)에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교육, 창업지원, 사후관 리까지 일괄 지원	753억원
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청	• 창업강좌 실시, 창업동아리 지원, 현장 중심의 실전 창업교육	35억원
창업대학원	중소기업청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 상으로 전문적인 창업교육 실시	9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사업)	교육부	• 57개 대학에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2,240억원

출처 :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
성사업 종합성과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inc.nrf.re.kr>).

- 창업아이템 사업화 대상은 제조 및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며, 실전창업교육 대상자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임. 2016년 지원규모는 753억원 내외로 전국
32개 ‘창업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장비, 인력, 공간)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추진.
- 창업아이템 사업화는 시제품 개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마케팅 활
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며, 실전
형 창업교육 등은 대학생 및 일반인 창업교육, 창업한마당축제, 지역
창업 경진대회 등 대학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운영함.

○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정책의 유형별 지원내용은 <표 II-2>
에 나타나 있음.

<표 II-2> 창업사업화 유형별 지원내용

항목	내역	기준
■ 선정평가	• 운영수당(평가수당, 강사비, 멘토링 수당 등) • 심층평가 운영비 등	• 배정 한도 내
■ 창업교육	• 강사비, 운영비(워크숍, 네트워킹경비 등)	• 배정 한도 내
■ 사업화지원	• 아이템개발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 고급기술창업 70백만원 이내 • 일반창업 50백만원 이내
■ 후속지원	• 제품 성능개선비, 홍보마케팅비, 지식재산권 및 시험인증비, 회계감사비	• 졸업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출처 :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

나) 창업아카데미

-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통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지원 등을 통한 창업인식 전환 및 성공 창업자 발굴·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25개 내외 교육기관에 35억원이 지원되며,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해당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대학생에게는 70백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공동창업대학은 지역 대학 간 협약체결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대표 대학에서 300백만원 내외 지원, 일반인 창업아카데미는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전문 멘토를 확보한 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에게는 일반인 80백만원 내외 지원함.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공동창업대학에는 학점인정형 실전창업강좌(사업화 체험 프로그램 포함), 창업동아리 및 창업네트워크 지원이 이루어짐. 일반인 창업아카데미에는 주요업종 및 창업단계별 창업교육, 수강생 및 선배창업자 간의 네트워킹 지원됨.

다) 창업대학원

- 창업대학원 운영지원 사업은 창업전문가 양성 및 창업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창업관련 특수 대학원 지원(학위과정)임
- 2016년 기준 5개 대학에 9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각 대학의 정원은 각 30명임. 지원내용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등 지원을 통해 창업전문가 학위 과정 운영임. 구체적으로 창업교육과정 운영으로는 창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창업이론 및 실무 전 분야에 대한 정규교육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학생 창업교육 및 체험학습 지원으로는 국내외 현장연수, 창업멘토실습 등 추가교육이 이루어짐.

(2) 교육부

가) 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

- 교육부는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을 육성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지역대학의 인재유출 방지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이공계 일부 학과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을 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 이 사업은 대학의 사업목적에 따라 ‘기술혁신형’과 ‘현장밀착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사업 유형별 사업내용은 <표 II-3>에 나타나 있음.

(3) 박근혜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지원 내용

-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창업 활성화 정책들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 목표로 삼아 일자리 창출에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감.

<표 II-3> 대학의 LINC 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지원사업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 산학 친화형 대학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지역대학 창의적 기술 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밀착형 기술인력 양성 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2016년 / 5년(2년+3년) (1단계)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2년 (2단계)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 및 확산/3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1단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2240억원 / 대학당 평균 39억원 수준 (기술혁신형) 대학당 평균 34~60억원 내외/15개 내외 (현장밀착형) 대학당 평균 20~52억원 내외/35개 내외 ※ 사업내용, 선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지원금 차등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산학협력 사업을 개편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창업 붐(Boom) 조성을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문화 확산 지원 (창업 우수사례 로드쇼, 청년창업 EXPO 및 네트워킹,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대학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개교 총 57개교 (수도권 11개교, 충청권 11개교, 호남제주권 12개교, 개경강원권 12개교, 동남권 11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개교

출처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종합성과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inc.nrf.re.kr>).

-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요 전략으로 인식하여 기존의 청년창업 지원 부처인 중소기업청, 교육부 이외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가적으로 청년창업 지원에 나섬.
- 박근혜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은 창조경제의 구현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이에 대한 지원도 동반되었음. 정부 각 부처가 지원하는 창조경제 및 창업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이 <표 II-4>에 나타나 있음.

<표 II-4> 정부 주요 부처의 창업 활성화 정책

부 처	창업 활성화 주요 업무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형·융합형 인재 양정으로 능력중심 사회 구현 - 창직인턴제 확대, 언년창업펀드 조성, 1:1 멘토링에 기반을 둔 창업지원프로그램 마련 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창업을 활성화 하며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목표로 3개 부문 10개 과제를 선정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과 ICT 역량 종합지원, 대학에서 도전정신 갖춘 창업인재 양성위한 전주기 커리어 프로그램 도입 등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BI(Business Idea) 연계형 R&D 제도' 신설 등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업·사업화 - '무한상향 국민 창업 프로젝트'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관계부처 협업과제), 부처 간 협업위한 '창업지원협의회' 구성 등

출처 : 정부 각 부처별 주요업무 계획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 2016년 기준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창업 관련 정책들에 대한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들에 대한 상세 사항은 <부록 2>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음.⁴⁾
- 경기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울산광역시가 가장 많은 창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1~3단계의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사업과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3단계에서 직접 창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많음.

4) 대한민국정부(2016)의 「2016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에 제시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 한편, 울산시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제조업 등 기술 창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청년허브 및 서울시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및 기술 관련 청년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을 보면, 서울시는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도전 1000프로젝트, 서울 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부산모바일앱센터 운영을 차별적으로 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례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하고, 광주광역시는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과 찾아가는 청년취업 라운드테이블 사업을 함.
 - 울산광역시는 청년CEO 육성 사업, 지식기술 청년창업지원 사업,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톡톡팩토리(제조업 창업공간) 사업을 하고 있고, 세종특별시는 창업보육지원 사업 하나만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예비창업 프로그램, 창업프로젝트, 경기북부 문화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사업,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사업, 경기문화창조 허브,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충청남도는 청년CEO 500프로젝트, 전라북도는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청년CEO 육성 사업, 경북 청년몰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부록 3>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보여주고 있음. 서울시청년허브의 사업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서울시청년허브센터는 지원 및 교육, 일자리 및 정책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의 문제

를 해결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⁵⁾

3)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⁶⁾

(1) 창업지원체계의 연계성 및 창업자 보호 장치 부족

- 최근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처 간 연계를 도모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되어 단순한 지원에 그치고 다음 단계로 지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청의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은 사업 수혜자간 연계 프로그램 부족으로 네트워킹 비활성화가 발생하여 창업역량 강화 부족과 창업 유인효과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음.
-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창업자의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많으나 아이디어 및 특허를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나 제도가 없어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중앙정부의 청년창업지원 컨트롤타워의 부재

- 정부 부처의 전체 창업지원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창업지원 컨트롤 타워가 없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부처 간에 통합적 접근 체계 구축이 없으니 청년창업자들이 전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5) 서울시의 청년허브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은 서울시청년허브 홈페이지(2016년 9월 1일자 검색)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6)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지원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은 박동 외(2013)의 「기업가적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직업교육훈련 방안」 pp. 23~26을 참고하여 발췌·재정리하였음을 밝힘.

(3) 전공분야 및 학년별 수준 등에 맞춘 창업교육콘텐츠 부족

-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전공영역 및 학년별, 그리고 성별 등에 맞춘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못함.
- 창업교육이 일반적 내용으로 누구나 듣는 교양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론 강의 위주로 교육과정이 짜여 있어서 현장 중심의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청년창업교육이 교육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

(4) 창업동아리 지원 부족

- 미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데 창업동아리 활동은 중요한 경험을 갖게 하여 미래에 창업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현재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은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그리고 ‘LINC 사업’ 정도이고 나머지는 활발하지 못함.
- 더구나 중소기업청과 교육부의 청년창업지원사업은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보다는 일반인 대상으로 창업보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현실적으로 대학의 학생 혹은 일반인들에 대한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멘토링 시스템 구축, 성공 창업사례의 연수 활동 지원 등이 미비한 상황임.

(5)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청년창업 연계체계 구축 미흡

-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청년창업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의존하고, 아울러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

-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산업구조 특성, 대학 수준, 창업 환경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부의 표준화된 사업 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창업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정부 부처별로 청년창업 지원사업들이 지자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들 간에 중복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기도 함.
- 청년창업 지원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부처별 업무가 지방정부 내의 각 담당 부서로 나누어져서 각각 시행되다 보니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종합적 평가도 어려운 실정임.
-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간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청년창업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정보 교류와 업무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4. 외국의 청년창업 지원정책과 시사점

1) 영국의 청년창업 지원정책⁷⁾

(1) 정책기조

- 영국의 창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이 창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제 하에 창업의 장애요인 제거와 창업 실패에 대한 대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방향 하에 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창업 촉진을 위한 다음의 7대 과제를 발표하였음.
 - 창업 풍토의 조성, 창업시장의 강력한 추진,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고, 중소기업 금융의 개선, 낙후지역 및 소외 계층 등 대상의 창업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서비스의 개선, 보다 나은 규제와 정책을 추진함.

7) 영국의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 내용은 양현봉·박종복(2011)의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pp. 92-107을 참고하여 발췌·재정리하였음을 밝힘.

- 이후 2011년 3월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 ‘성장 계획(The Plan for Growth)’을 발표하고 영국을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만들 다음의 계획을 제시함.
 - 첫째, 창업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해 3년간 새로운 국내 규제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
 - 둘째, 기업투자제도 하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엔젤 공동투자 펀드의 조성을 추진함.
 - 셋째, 창업가 감면 제도 하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함.
 - 넷째, 외국자금의 영국 내 창업투자 촉진을 위해 영국무역투자청의 주관 아래 우호적인 창업 풍토를 조성함(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2) 기업가정신 육성 교육과정 운영

- 영국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조기 교육에 집중하는 정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중등교육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의 교육 수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2008년부터 매년 3,0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중등교육에서부터 초등교육과 고등전문교육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①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주요단계 4(14~16세)’의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이 정규 필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가적 능력향상을 위한 5일간의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혁신, 창조, 위험 관리 및 기업과 재무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기업이
해임문(Enterprise Learning Gateway)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참여를
높여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율성을 진작시켜 나가고 있음.
- 중등학교 교사들은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대학들로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음.

② 대학(원)생 교육

-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창업 희망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2004년에 「전국대학(원)생 기업가정신 협의회」를 설립하였는데 여기
에 관련 정부부처가 지원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에 새로운 학사 학
위를 계획하였음.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공학, IT 등의 기술분야 교
과목과 최소 10일간의 현장학습을 포함한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로 하
여금 습득케 하는 것임.
- 고등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1999년 영국 과학기술부에 의해 창안된
‘과학기술도전(Science Enterprise Challenge, 이하 SEC)’을 들 수 있
는데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의 창업센터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음.

(3)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캠페인 사업

- 영국정부는 청년층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Make
Your Mark’ 캠페인 활동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음. 영국의 10~20대
청년들에게 영리 및 비영리 사업체의 창업이나 직장에서 새로운 창
조적 아이디어 실현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음.
- ‘Make Your Mark’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11월 영국 전역에
서 기업가정신 홍보와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는 기업주
간(Enterprise Week)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① 기업주간(Enterprise Week)

- 기업주간의 행사 개최 방식은 실행본부기구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연계 단체나 지역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기획하여 시행하는 상향식 방식임. 다만 기업주간 실행본부기구는 ‘기업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장만 마련하고 참여자들 스스로 창조적 아이디어로 행사를 기획·실행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

② 기업주간의 주요 활동

- 기업주간에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이 개최되는데 주요 활동들은 다음과 같음.
 - ‘Make Your Mark’ 캠페인과 관련된 단체(조직)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역 행사
 - ‘Make Your Mark at Work’는 직장에서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및 포상하는 기회 제공
 - ‘Make Your Mark Challenge’는 중등학교와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인터넷 기업경진대회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고취, 의사소통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함.
 - ‘여성기업의 날(Women’s Enterprise Day)’ 행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여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사례를 발굴함.
 - ‘사회적기업의 날(Social Enterprise Day)’ 행사를 개최하여 다음 세대에 사회적기업의 환경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기회 제공함.
 - ‘글로벌 기업주간(Global Enterprise Week)’은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Kauffman Foundation)과 공동으로 개최되는데 세계의 청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임.

(4)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영국 정부는 청년창업가들이 창업하여 사업 활동을 하다가 사업이 파산에 이르렀을 때 재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하지 않고 1986년에 입법 제정된 「신도산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년창업가 혹은 일반 기업가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예컨대 압류 면제재산의 범위에 ① 파산신청인의 취업, 사업 또는 직업에 개인적으로 필요가 있는 차량, 책, 도구 및 기타 장비, ② 파산신청인 및 가족이 가정에서 필요한 침대, 가구, 의복, 가정용 기기 및 기타 기본 항목, ③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위탁) 중인 자산 등이 포함됨.
 - 또한 주택, 연금, 생명보험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처분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5) 엔젤투자 촉진제도

- 영국 정부는 엔젤투자 증대를 위해서 엔젤투자자를 육성 및 지원하고 있음. 엔젤투자자는 고액의 자산보유자/소득자이거나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 정부가 정한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이하 EIS)에 적합한 엔젤투자에 대해서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엔젤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 기업의 요건은 ① 투자 이전의 총 자산액이 700만 파운드 이하일 것, ② 종업원이 50명 이하일 것, ③ 독립된 회사일 것, ④ EIS에 의해 정의된 자격에 맞는 거래를 할 것 등으로 분류됨.

(6) 정보인프라 지원

- 영국 정부는 창업에 대한 정보 혹은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가이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 정보 인프라로서 비즈니스링크(www.businesslink.gov.uk)를 구축하고 있음.
- 비영리기관인 전국기업학회(National Enterprise Academy)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The Mary Frances Trust'는 중소기업과 도시빈민가의 자영업 지원을 하고 있음.

(7) 영국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 영국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아동·청소년기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실시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창업 도전의식 고취를 통해 미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점임.
 - 둘째,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확산을 지역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업으로 '기업주간' 행사를 전국에 걸쳐 시행해 오고 있음. 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Make Your Mark' 행사를 통해서 모든 연령층에게 다양한 종류의 기업가정신의 실천 사례들을 접할 수 있고, 관련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
 - 셋째, 창업에 실패한 창업가가 파산을 신청하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음. 이는 파산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 실패에 대한 제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재산은 압류로부터 면제하고 있음.
 - 넷째, 엔젤투자제도를 시행하여 기업투자제도(EIS)에 충족시키는 엔젤투자자에 대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는 청년창업 혹은 일반 창업의 창업 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함.
 - 끝으로 창업에 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 누구나 창업 촉진 및 기업가정신의 함양 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핀란드의 청년창업 지원정책⁸⁾

(1) 정책 현황

-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최근 청년창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라는 북유럽 국가임. 그중 핀란드는 2008년 말의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청년창업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으나 노키아의 매각 이후 게임산업에서 로비오(Rovio), 슈퍼셀(Supercell) 등 청년창업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음. 로비오와 슈퍼셀의 성공은 핀란드의 청년들이 창조산업 분야에서 특출한 집합적 창조성(collective creativity)을 발휘하였기 때문임.⁹⁾
- 핀란드의 청년창업 정책이 단기간에 세계적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핀란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역량에 기인한 바가 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립기술개발청(TEKES)을 중심으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실행해왔음. 이에 기반을 두어 다학제적 융합을 통한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알토대학¹⁰⁾ 설립 및 알토스로 대표되는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었던 것임.
 -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핀란드의 청소년 교육은 대학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짐. 핀란드의 대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등 팀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육제도에 기인한 바가 큼.
 - 특히 국립기술개발청은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핀베라(Finnvera)라는 벤처캐피털 기금을 설치함. 이를 통해 청년창업가들에게 엔젤투자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

8) 핀란드의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 내용은 및 박천수 외(2013)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pp. 188-194를 참고하여 발췌·재정리하였음을 밝힘.

9) 핀란드의 창업은 청년학생들이 주도하여 추진되고 있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핀란드의 학생창업을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학생혁명'(student revolution)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음(The Economist, 2013; 박천수 외, 2013: 189 재인용).

10) 핀란드 정부는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2010년 헬싱키에 소재한 공학, 디자인, 경영학 분야의 3개 국립대학을 통합하여 알토대학이라는 융합대학을 설립함. 알토대학 내에는 글로벌 기업인 노키아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800여 개의 첨단기업들이 대학과 같은 공간 내에서 산학협력을 수행하고 있음. 거기다 핀란드 국립기술연구소(VTT), 국립기술개발청 등이 대학 내에 입주해 있음.

- ‘혁신제작소’(innovation mill) 프로그램을 통해 노키아를 비롯한 대기업, 정부 지원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용되지 않는 각종 특허 및 컨셉 등 미활용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2013년 초에만 노키아에서 나온 300여 명의 직원이 각자의 창업기업을 안착시키는 데 성공함(The Economist, 2013).
- 핀란드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음. 알토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신생 창업기업인 로비오(Rovio)와 슈퍼셀(Supercell)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임. 핀란드 정부는 알토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사우나’라는 정책을 통해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창업촉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2010년부터 10월 13일을 ‘실패의 날’(Day for Failure)로 지정하여 모두가 다시 생각하고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공휴일로 삼고 있음(<http://dayforfailure.com>).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는 DNA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2) 핀란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 핀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단순히 모방하기 어려운 나름의 청년창업 모델을 활성화함.
 - 초·중·고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창업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청년들이 창업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키아를 비롯한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각종 지식재산을 개방함.
 - 대학 내에 창업동아리를 설치하여 이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창업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옴.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갖추기 위해 정부와 청년창업가들 모두가 협력함.

Ⅲ. 제주지역 청년창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청년층 고용 현황

- 제주지역은 최근 주택 및 건설 호황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의 급증으로 전국의 타시도 보다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지역경제 성장률이 5.0%대를 유지하면서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¹¹⁾
- 제주지역경제의 호조세에 힘입어 2016년 1분기 제주의 고용률은 67.5%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 증가를 6.8% 상승하여 제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호남통계청, 2016).
- 제주지역의 전체 고용률이 높은 상황 하에서 청년층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표 III-1. 그림 III-1. 참고), 전국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4년 이후에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 평균에 비하여 제주의 청년 고용률이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 고용률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분기
전국	43.4	44.9	40.3	40.5	40.4	39.7	40.7	41.5	42.5
제주	47.9	49.8	39.3	41.5	42.0	40.2	40.6	42.2	43.3

11) 통계청(2016)의 201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보고」에 따르면 제주는 전년동기 대비하여 여러 부문에서 증가를 보였음. 예컨대 경공업생산 17.2%, 서비스생산 8.7%, 소비판매 13.2%, 고용 6.2%, 물가 0.6%, 건설 408.2% 증가하였고, 반면에 수입은 8.8% 감소하였음.

<그림 III-1>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 고용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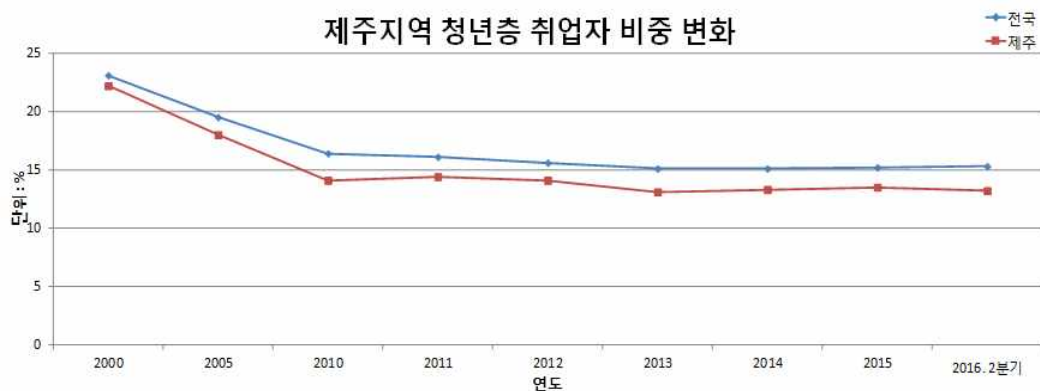


○ 제주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오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표 III-2, 그림 III-2, 참고). 특히 2016년 2/4분기에 제주지역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2.1%p 낮게 나타남.

<표 III-2>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분기
전국	23.1	19.5	16.4	16.1	15.6	15.1	15.1	15.2	15.3
제주	22.2	18.0	14.1	14.4	14.1	13.1	13.3	13.5	13.2

<그림 III-2>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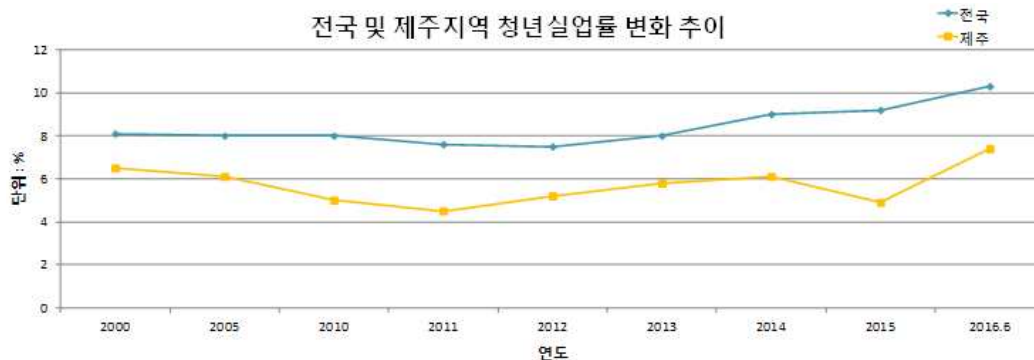


- 전국의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제주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임. 제주의 청년 실업률 변화는 전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2016년 6월 기준으로 제주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2.9%p 낮게 나타남.

<표 III-3>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 실업률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전국	8.1	8.0	8.0	7.6	7.5	8.0	9.0	9.2	10.3
제주	6.5	6.1	5.0	4.5	5.2	5.8	6.1	4.9	7.4

<그림 III-3>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 실업률 변화 추이



- 제주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고, 취업자 비중과 실업률은 약간 낮은 상황임. 이처럼 고용지표로 본 제주청년의 고용 상황은 전국과 크게 나아진 상황이 아니고 거의 유사한 측면들을 보이고 있음.
- 제주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기관(공무원)과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성향이 강함(통계청, 2011; 고승한 외, 2014). 이것은 청년 일자리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2. 제주지역 청년창업 현황

- 제주지역에서 매년 신설되는 전산업 분야의 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음(표 III-4. 참고).
- 2008년에 325개의 법인이 새로 신설되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1,565개로 늘어나 지난 8년 동안 381.5%나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새로운 기업(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결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도민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I-4> 제주지역 신설법인 수 변화 추이 (전산업)

(단위 : 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주	325	449	547	723	866	895	1,240	1,565	970

주 : 2008년은 3월부터 12월까지의 합계이고, 2016년은 1월부터 7월까지 합계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신설법인 동향」

- <표 III-5>는 2011-2013년 3년 동안에 제주지역에서 산업별 창업기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산업별로 감소-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제조업과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분야에서 창업기업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반면에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5> 제주지역 산업별 창업기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1	2012	2013
농림·임업·어업 및 광업	110	14	89
제조업	142	297	3,259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13	1,014	1,213
서비스업	20,559	15,034	15,64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창업기업실태조사」.

- 제주지역에서 2011-2013년 사이에 전산업 분야에서 청년(만 20세~만 39세 이하)들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수는 감소-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표 III-6. 참고).
- 20~29세의 20대 청년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수가 2011년에는 1,094개였으나 2012년에 951개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1,059개로 증가하였음. 2011-2013년 3년 동안에 3.2% 감소하였음.
- 30~39세의 30대 청년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수가 2011년에는 6,950개였으나 2012년에 6,357개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7,826개로 증가하였음. 2011-2013년 3년 동안에 10.5% 증가하였음.
- 2011-2013년 3년 동안 20대 청년 대표자의 사업체수는 감소한 반면 30대 청년 대표자의 사업체수는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청년층이 운영하는 사업체수는 증가하였음.

<표 III-6> 제주지역 전산업·청년대표자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대표자 연령대	2011	2012	2013
20~29세	1,094	951	1,059
30~39세	6,950	6,357	7,826
합 계	8,044	7,308	8,88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 제주지역에서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체수 현황을 보면(표 III-7. 참고), 2012-2013년의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반면에 30대의 청년창업 기업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음.
- 2012~2013년 사이에 청년창업 기업체수는 2012년에 2,767개였으나 2013년에 2,129개로 감소하여 2년 동안 23.1% 감소하였음.
-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 기업체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창업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함.

<표 III-7> 제주지역 청년층 신설법인수 현황

(단위 : 개)

대표자 연령대	2012	2013
20대 이하	91	1,147
30대	2,676	982
합 계	2,767	2,12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신설법인 동향」.

3. 제주지역 청년창업 지원정책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부터 2016년 올해 까지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지원해 오고 있음.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도내 대학의 청년창업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창업 관련하여 지원하는 주요 정책 사업들은 청년 대학생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등에 두어 패키지 지원, 창업 마인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청년창업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 대학생 창업마인드 교육-기술창업-보육 및 성장 패키지 지원,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등
- <표 III-8>은 지난 5년 동안 제주지역의 창업지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와 지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였음. 특히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매칭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창업지원액이 2012년에 1,370백만원에서 2016년 2,828백만으로 늘어나 2012~2016년 사이에 창업지원 규모가 106.4% 증가하였음.

<표 III-8> 제주지역 창업지원 현황(2012~2016년)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주요 지원 내용
2012	창업선도 대학육성	750,000	- 창업자 발굴,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성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420,000	- 4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마케팅 등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20,000	- 사업성 검토, 창업절차대행 등
	소상공인 창업대전지원	5,000	- 창업박람회 참가지원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	25,000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성공창업 패키지프로그램 운영	150,000	- 창업소요 비용지원 (인테리어, 광고비, 창업홍보비 등)
	소 계	1,370,000	
2013	창업선도대학육성	1,350,000	-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성화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20,000	-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340,000	- 4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마케팅 등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20,000	- 사업성 검토·전략기획 수립
	청년창업프로그램 운영	150,000	- 창업소요 비용지원(인테리어, 광고비, 창업홍보비 등)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	25,000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소상공인 창업대전 지원	10,000	- 창업박람회 참가지원
	시니어창업 프로그램 운영	20,000	- 시니어(41세이상) 창업지원 (인테리어, 창업홍보비 등)
	소 계	1,935,000	

<표 III-8. 계속> 제주지역 창업지원 현황(2012~2016년)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주요 지원 내용
2014	창업선도대학육성	1,673,000	-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벤처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28,000	-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340,000	- 4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마케팅 등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20,000	- 사업성 검토 및 공장설립 대행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	150,000	- 창업소요 비용지원 (인테리어, 광고비, 창업홍보비 등)
	소 계	2,211,000	
2015	창업선도대학육성	1,963,900	-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교육, 청년창업지원 및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창업 후속화)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28,000	-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360,000	- 4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마케팅 등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50,000	- 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컨설팅
	중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운영	190,000	- 소상공인 창업비 지원, 창업아카데미 운영, 창업박람회 참가지원
	소 계	2,591,900	

<표 III-8. 계속> 제주지역 창업지원 현황(2012~2016년)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주요 지원 내용
2016	창업선도대학육성	2,200,000	-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성화, 창업후속·성장프로그램, 지역거점 창업지원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28,000	-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360,000	- 4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마케팅 등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50,000	- 사업성 검토 및 창업절차대행
	중소기업창업프로그램 운영	190,000	- 소상공인 창업비 지원, 창업아카데미 운영, 창업박람회 참가지원
	소 계	2,828,000	
총 합계		10,935,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 「내부자료」

- 초기 창업지원에는 소상공인과 중장년층(41세 이상) 대상의 창업지원 아카데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사업비 책정이 안 되고 있음.
- 다만 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아이템 기술개발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중소기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지속되고 있음.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2012년 한 해에만 지원되었고 그 이후는 폐지되었음. 2013년 이후에는 청년창업지원 특정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다른 창업지원 프로그램 속에서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특히 창업선도 대학육성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들은 도내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년창업 관련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아이템 발굴 등과 같은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비를 보면(표 III-9. 참고),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78.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는 17.3%로 나타남.
-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2,200백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창업아이템 사업화(16개 과제), 창업강좌(20개), 창업동아리 운영(16개팀), 그리고 창업사업화 후속 지원(3개과제) 사업이 있음.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102개 업체)에 360백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도내 4개 대학 BI센터 입주기업 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마케팅지원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 또한 창업아이템 기술개발원에 28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표 III-9> 2016년 제주지역 창업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6	향후계획	총 계
국비	2,040	2,300	4,340
지방비	448	500	948
기타	100	120	220
총 계	2,588	2,920	5,50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창업 관련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여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창업 관련 지원이 교육-창업-보육-투자가 연계되는 원스톱 창업선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예비창업자 취약계층 창업아이템 사업화로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동시에 입주기업 역량강화 및 자리기반 조성을 통해 기업의 생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
- 제주지역에서 청년 창업지원(일반인 포함)을 위해 도내 대학들이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대학별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대개 청년과 일반인을 별도로 구별하여 지원하지 않고 총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창업교육이나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 창업지원단이나 창업보육센터 사업 지원은 정부의 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도내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교육센터 운영은 교육부에서 지원되고 있음.¹²⁾
- 제주지역 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III-10, 표 III-11. 참고).
- 201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도내 대학 전체의 보육실 면적은 5,727㎡이고, 보육실수 129개, 그리고 센터에 입주한 기업수는 103개소로 나타남.

<표 III-10> 제주지역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2016. 9월 기준)

(단위 : ㎡, 개수)

구 분	보육실 면적	보육실수	입주기업수
A대학	3,536	72	57
B대학	585	17	14
C대학	432	17	12
D대학	1,174	23	20
합 계	5,727	129	103

자료 : 창업보육센터제주지역협의회 「내부자료」

12) 창업지원 사업은 정부의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내 대학에 위탁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도내 대학들은 창업보육센터와 창업교육센터를 개설·운영해 오고 있음. 일부 대학에서는 창업보육센터가 창업교육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내 대학들이 창업보육센터와 행정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창업보육센터제주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상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업교육센터들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임. 여기서는 도내 창업교육센터들은 대학에 의해 각각 운영되고 있어서 개별 센터들의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어서 창업보육센터들의 인프라 실태와 운영비 현황을 제시하였음을 밝혀둠.

○ 제주지역 4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지원규모가 <표 III-11>에 나타나 있듯이 B대학이 상대적으로 타 대학들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예산을 보면, 2014년에 340백만원이었으나 3년이 지난 2016년에 360백만원으로 늘어나 약 5.9% 증가에 불과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에 전체 창업보육센터 운영 예산지원 가운데 29.4%를 지원하였고, 2015년에 34.9%. 그리고 2016년에 33.3%를 지원하여 재정지원 비중이 증가-감소를 보이고 있음.

<표 III-11> 제주지역 창업보육센터 재정지원 규모 (2014~2016년)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중기청	도청	합계	중기청	도청	합계	중기청	도청	합계
A대학	65,000	25,000	90,000	74,900	30,000	104,900	60,000	30,000	90,000
B대학	75,000	25,000	100,000	85,000	30,000	115,000	74,000	30,000	104,000
C대학	45,000	25,000	70,000	-	30,000	30,000	60,000	30,000	90,000
D대학	55,000	25,000	80,000	64,100	30,000	94,100	46,000	30,000	76,000
합 계	240,000	100,000	340,000	224,000	120,000	344,000	240,000	120,000	360,000

자료 : 창업보육센터제주지역협의회 「내부자료」 각 년도

4. 제주지역 청년창업의 문제점¹³⁾

1)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중앙정부 의존

-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청년고용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수립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및 보육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사업지침에 의해 일부 지방비를 매칭하여 정부의 청년창업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2)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음. 이 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리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런 맥락에서 조례의 제14조에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청년고용 지표의 연구 개발, 청년 비정규직의 고용차별 개선 등을 담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제14조 4항에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에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따라서 제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관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괄해야 할 것임.

13) 제주지역 청년창업의 문제점들은 청년창업 및 교육 관련 도내 대학 및 단체 그리고 청년창업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요약·정리하였음.

3)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부족

- 제주도내 4개 대학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이 일반적 내용들로 구성된 경향을 엿볼 수 있음.
- 창업교육 수강생들의 다양한 창업욕구, 제주 청년들의 특성 그리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이 필요함. 따라서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서 창업교육이 창업화로 연계되지 않고 교육 수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4)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창업아이템 발굴 미흡

- 제주지역은 농축수산업과 관광·서비스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여간 쉽지 않음.
-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창업희망자들이 관광·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되어서 창업자금 조달과 마케팅 경험이 미흡한 청년들이 기존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음.
-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가들이 틈새시장 전략을 구축하고 창의적 마인드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직까지 제주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발굴이 미흡한 상황임.

5) 청년창업 관련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미흡

- 제주지역에도 창업과 보육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있는데 각각 최선을 다하지만 상호 연계하여 사업 아이템의 공동개발이나 청년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과 협력의 네트워크가 미흡한 실정임.
-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창업을 위한 인허가 및 지원을 하고, 도내 각 대학은 창업교육(혹은 보육) 및 창업동아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기업들의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청년들 자신이 스스로 창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청년창업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 희망협동조합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 대학,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청년 관련 협동조합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6) 창업 후 창업실패에 따른 안전망 부재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가들이 처음에는 창업을 하여 몇 년간을 버틸 수 있지만 결국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폐업하게 됨.
- 창업실패에 따른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혹은 파산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내재해 있음.

7)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 청년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재산 형성할 기회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자금으로 창업하기가 여가 쉽지 않음. 물론 청년창업가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에 집안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청년창업가 스스로 창업자금 조달에 한계가 많음.

8) 청년창업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부재

- 제주지역에 청년창업 지원 관련 기관(행정, 대학 등)은 있지만 청년창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금융지원, 창업교육 및 보육, 창업 후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9) 청년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창의적 사고와 혁신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싶지만 혹시 창업 후 실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함. 왜냐하면 실패한 청년창업가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업실패자란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되기 때문임.
- 창업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또한 창업실패자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회환경으로 말미암아 청년창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IV. 제주지역의 청년창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1. 조사의 설계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청년과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청년취업, 청년창업 활동, 창업환경과 기업가에 대한 인식,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전략과 대응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주청년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주지역의 청년과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행정구역에 한정되었음.
- 제주지역의 청년(만 20세~39세 이하)과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1일~9월 11일 기간에 수행되었음.

2. 제주지역 청년층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1) 조사 방법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가 사용되었으며, 면접조사 경험이 많은 면접조사원이 자료를 수집하였음. 물론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 응답을 할 수 있으면 자기기입식 방법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 면접조사를 하였음.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 가운데 만20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¹⁴⁾

14)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 청년층 연령을 만 20세~39세 이하로 제한하게 된 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 우대 범위 등에 대한 내용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연령 범주로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정한 점을 고려함. 여기서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주로 대학생 입학 연

- 조사대상자의 표본 선정은 2016년 9월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 가운데 성별, 연령(만20세~만39세 이하), 대학교 등을 고려한 조사대상 표본 수(220명)의 비율 구성에 따라 최종 면접대상 표본수를 정하였음.
- 청년층 최종 조사면접 대상자는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만39세 이하의 청년층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최종조사 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전반적으로 무작위표집과 할당표집을 병행하여 사용됨.
 - 성별로는 전체 조사대상 청년(220명)들 가운데 남성은 50~60%, 여성은 40~50%, 연령대는 만20세~만25세 15%, 만26세~만29세 35%, 만30세~만35세 35%, 그리고 만36세~만39세 15%, 도내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비율은 대학 재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 조사대상 표본수를 할당 표집하였음.
- 최종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조사대상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창업 의향, 청년창업의 주요 요인, 창업교육 경험 및 필요성, 청년창업 환경 인식 및 장애요인, 청년창업 활성화 요인 등의 변인들이 포함됨.
-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 등의 변인들이 포함됨.

2) 청년층의 빈도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 220명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일반적 특성은 <표 IV-1>에 제시되어 있음.
-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128명(58.2%), 여성 92(41.8%)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6세~30세 사이 응답자가 76명(34.7%), 그리고 20세~25세 사이 응답자가 67명(30.6%)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20대 초반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 후반 순으로 나타남.

령이 만 20세인 점도 고려하여 조사에서 연령 범주를 만 20세~만 39세 이하로 정하였음.

<표 IV-1> 조사대상 청년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28	58.2
	여성	92	41.8
	계	220	100
연령	20세~25세	67	30.6
	26세~30세	76	34.7
	31세~35세	42	19.2
	36세 이상~39세 이하	34	15.5
	계	219	100
현재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66	76.5
	제주시 읍면지역	29	13.4
	서귀포시 동지역	15	6.9
	서귀포시 읍면지역	7	3.2
	계	217	1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	0.5
	고등학교 졸업	7	3.2
	전문대학 재학	17	7.7
	대학교 재학	55	25.0
	전문대학 졸업	27	12.3
	대학교 졸업	86	39.1
	대학원 재학(석·박사 과정)	11	5.0
	대학원 졸업(석·박사 수료 포함)	16	7.3
	계	220	100
직업	농·축·수산업	-	-
	자영업	11	5.0
	전문/자유직	29	13.2
	경영/관리직	10	4.5
	사무/기술직	51	23.2
	판매/서비스직	16	7.3
	단순노무직	-	-
	기능/숙련공	-	-
	전업주부	3	1.4
	학생	63	28.6
	무직	8	3.6
	취업준비생	22	10.0
	기타	7	3.2
	계	220	100.0

-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洞)지역 166명(76.5%), 제주시 읍·면지역 29명(13.4%), 서귀포시 동(洞)지역 15명(6.9%), 서귀포시 읍·면지역 7명(3.2%)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86명(39.1%), 대학교 재학 55명(25.0%), 전문대학 졸업 27명(12.3%), 대학원 졸업(석·박사 수료 포함) 16명(7.3%), 대학원 재학(석·박사 과정) 11명(5.0%), 고등학교 졸업 7명(3.2%), 중졸 이하 1명(0.5%)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대상자들 절대 다수가 대학에 재학하거나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제주지역의 고교생들 94%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조사대상자의 직업별로는 학생 63명(28.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기술직 51명(23.2%), 전문/자유직 29명(13.2%), 취업준비생 22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 연구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청년일자리

- 조사대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높은 임금’ 160명(24.3%), ‘고용안정성’ 153명(23.2%), ‘적절한 근로시간’ 111명(16.8%), ‘일-가족-개인생활 균형’ 109명(16.5%) 순으로 나타남 (표 IV-2. 참고).
-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고용안정성(30.9%)이 높은 임금(27.5%)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음(고승한 외, 2014).
- 제주지역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직까지 높은 임금, 고용안정성, 적절한 근로시간, 일-가족-개인생활 균형 요인들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IV-2> ‘괜찮은 일자리’ 인식 주요 요인

(단위 : 명, %)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높은 임금	62(28.2)	50(22.7)	48(21.9)
고용안정성	77(35.0)	54(24.6)	22(10.1)
적절한 근로시간	14(6.3)	49(22.3)	48(21.9)
일-가족-개인생활 균형	47(21.4)	26(11.8)	36(16.4)
직장에서 평등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	10(4.5)	14(6.4)	18(8.2)
안전한 근로환경	1(0.5)	10(4.5)	12(5.5)
적절한 사회보장	5(2.3)	10(4.5)	21(9.6)
좋은 노사관계	4(1.8)	7(3.2)	14(6.4)
계	220(100.0)	220(100.0)	219(100.0)

- 제주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예’ 116명(52.7%), ‘아니오’ 102명(46.4%) 순으로 나타남(표 IV-3. 참고). 따라서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주지역에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IV-3> 제주지역 ‘괜찮은 일자리’ 존재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16	52.6
아니오	102	46.4
계	218	100.0

- 제주지역 ‘괜찮은 일자리’ 직종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4. 참고), 공무원이 58명(47.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기업 28명(23.0%), 교사 14명(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공무원, 공기업 및 공사, 교사를 ‘괜찮은 일자리’ 직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이런 인식 분포는 통계청(2011)의 「사회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제주지역 청년의 장래 선호직장에 대한 인식 분포와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¹⁵⁾

15) 통계청(2011)의 「사회조사보고서 : 노동분야」 제주지역 청년의 장래선호직장은 국가기관(공무원) (42.9%),

<표 IV-4> 제주지역 ‘괜찮은 일자리’ 직종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공무원	58	47.5
교사	14	11.5
은행원	10	8.2
공기업	28	23.0
우량 중소기업의 사무직	2	1.6
대기업 제주지점	1	0.8
전문직 종사자	7	5.7
기타	2	1.6
계	122	100.0

- 제주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표IV-5. 참고), ‘산업구조가 농업과 관광·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서’가 46명(31.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이 부족해서’ 43명(29.3%),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없어서’ 22명(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대다수 조사응답자들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취약성,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부족,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의 발전 미흡 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5> 제주지역에 ‘괜찮은’ 일자리 부재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이 부족해서	43	29.3
산업구조가 농업과 관광·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서	46	31.3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없어서	22	15.0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모자라서	20	13.6
도내 기업가들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해서	11	7.5
기타	5	3.4
계	147	100.0

공기업(공사) (10.7%), 전문직 기업(11.4%), 자영업(11.3%), 대기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제주 청년들이 전국의 청년(28.4%)들보다 공무원을 장래선택직장으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V-6>는 제주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에 대한 조사응답자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의 산업구조와 여건이 좋지 않아서’가 80명(18.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량 중소기업이 많지 않아서’ 63명(14.9%),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여’ 60명(14.2%),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59명(13.9%),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지속’ 57명(1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 제주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지속	57	13.4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59	13.9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여	60	14.2
도내 기업들이 영세하여 투자를 못해서	29	6.8
행정기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원이 미흡하여	35	8.3
도내 기업가들이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여	30	7.1
우량 중소기업이 많지 않아서	63	14.9
제주의 산업구조와 여건이 좋지 않아서	80	18.9
산학협력이 잘 안되어서	5	1.2
기타	6	1.4
계	424	100.0

-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들은 제주지역의 산업여건 및 기업구조, 정책 그리고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제주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행정기관(중앙정부, 도, 행정시)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과제에 대한 응답 분포(복수응답)를 보면(표 IV-7. 참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적극 활용’이 81명(19.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내·외 우량 중소기업의 적극적 유치 노력’ 79명(18.5%), ‘제주에 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 78명(18.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충’ 55명(12.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 51명(11.9%),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일’ 49명(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지역에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적극 활용, 국내·외 우량 중소기업의 적극적 유치, 창업·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정책적 지원(예산 확충 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IV-7> 행정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우선 과제(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적극 활용	81	19.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	51	11.9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충	55	12.9
제주에 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	78	18.3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 활성화	20	4.7
국내·외 우량 중소기업의 적극적 유치 노력	79	18.5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일	49	11.5
산학협력의 긴밀한 네트워크	12	2.8
기타	2	0.5
계	427	100.0

(3) 청년창업

- 취업과 창업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응답 청년들은 ‘취업 먼저’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명(92.6%)이고, 나머지는 ‘창업 먼저’ 16명(7.4%)으로 나타남. 절대 대다수 조사대상 청년들은 우선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IV-8. 참고).

<표 IV-8> 취업과 창업 중 우선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취업 먼저	200	92.6
창업 먼저	16	7.4
계	216	100.0

- 취업이 먼저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경험’이 51명(37.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성’ 30명(21.7%), ‘창업자금 마련’ 28명(20.3%), ‘높은 창업 위험도’ 14명(10.1%) 순으로 나타남(표 IV-9. 참고).

- 조사응답 청년들은 창업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취업을 먼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창업 전 경험과 자금마련을 위해 취업을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 먼저’를 응답한 청년들은 ‘도전의식’과 ‘뭔가 하고 싶어서’라는 인식을 보였음.

<표 IV-9> 창업보다 취업 먼저인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안정성	30	21.7
사회경험	51	37.0
창업자금마련	28	20.3
높은 창업 위험도	14	10.1
창업 정보 및 아이템 부재	3	2.2
성격과 맞지 않아 생각해본 적 없음	6	4.3
창업 역량 부족	2	1.4
기타	4	2.9
계	138	100.0

- 향후 창업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대상 청년들의 응답 분포를 보면(표 V-10. 참고), ‘창업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145명(67.8%), ‘있다’는 응답자는 69명(32.2%)으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들 대다수는 향후 창업계획이 없다는 인식을 보였음.

<표 IV-10> 향후 창업 계획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69	32.2
없다	145	67.8
계	214	100.0

- 향후 창업 계획을 생각하는 조사대상 청년들이 언제 창업을 할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11. 참고), ‘취업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회경험을 쌓은 후’가 44명(6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장에서 퇴직해야 할 때’ 9명(13.0%) 순으로 나타나 ‘학교 졸업 후 즉시’ 2명(2.9%), ‘학교 졸업 후 1~2년 이내’ 3명(4.3%)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청년들은 창업을 당장 목표로 하기 보다는 사회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 창업을 하거나 혹은 직장을 퇴직하여 새로운 일을 하려는 시기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1> 창업 예정 시기

구분	빈도(명)	비율(%)
학교 졸업 후 즉시	2	2.9
학교 졸업 후 1~2년 이내	3	4.3
학교 졸업 후 3~4년 이내	6	8.7
취업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회경험을 쌓은 후	44	63.8
직장에서 퇴직해야 할 때	9	13.0
개인적 사정 등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4	5.8
기타	1	1.4
계	69	100.0

- 앞으로 창업을 최종 결정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환경 및 요인에 대한 조사응답 청년들의 분포를 보면(표 IV-12. 참고), ‘해당 업종 시장의 규모(크기) 및 성장성’이 36명(51.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득증대의 기회’ 18명(25.7%), ‘내부 여유자금(가족 소득/자산)’ 8명(11.4%), ‘금융 활용성’ 6명(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다수 조사대상 청년들은 창업에 주요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으로 시장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그리고 소득증대의 기회를 꼽고 있음.

<표 IV-12> 창업시 고려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환경 및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해당 업종 시장의 규모(크기) 및 성장성	36	51.4
소득증대의 기회	18	25.7
국가경제의 기대 성장	2	2.9
금융 활용성	6	8.6
내부 여유자금(가족 소득/자산)	8	11.4
규제 완화 기대감	-	0.0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	0.0
기타	-	0.0
계	70	100.0

- 청년들이 창업할 때 고려할 비경제적 환경 및 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13. 참고), ‘자아실현 욕구’가 18명(32.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전 의식’ 14명(25.0%),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 9명(16.1%), ‘성공한 기업가처럼 존경받고 싶은 욕구’ 8명(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3> 창업시 고려할 가장 중요한 비경제적 환경 및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자아실현 욕구	18	32.1
도전 의식	14	25.0
사회공헌	3	5.4
성공한 기업가처럼 존경받고 싶은 욕구	8	14.3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	9	16.1
리더십(사장) 욕구	3	5.4
기타	1	1.8
계	56	100.0

-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 청년들은 창업시 고려할 비경제적 환경 및 요인 가운데 자아실현과 도전의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 166명(76.9%), ‘있다’ 50명(23.1%)로 나타남(표 IV-14. 참고). 따라서 조사응답 청년들 대다수가 창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23% 정도의 조사대상 청년들이 창업교육 참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IV-14> 창업교육 참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50	23.1
없다	166	76.9
계	216	100.0

- <표 IV-15>는 창업교육에 참여한 조사대상 청년들이 창업교육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보통’이 26명(54.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족’ 12명(25.0%), 그리고 ‘불만족’ 10명(20.9%)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창업교육에 대한 평가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는 각각 만족 혹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5> 창업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만족	3	6.3
대체로 불만족	7	14.6
보통	26	54.2
대체로 만족	11	22.9
매우 만족	1	2.1
계	48	100.0

- 특히 창업교육 내용에 불만족한 이유는 대체로 ‘획일적 내용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 부실’ ‘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보임.
-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16. 참고), ‘약간 필요’가 111명(50.7%)으로 가장 많고, ‘매우 필요’ 83명(37.9%), ‘거의 불필요’ 24명(11.0%), ‘전혀 불필요’ 1명(0.5)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약 90%의 절대 다수의 응답 청년들이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표 IV-16> 창업교육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불필요	1	0.5
거의 불필요	24	11.0
약간 필요	111	50.6
매우 필요	83	37.9
계	219	100.0

- 조사응답자들 사이에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는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지식을 축적시켜 주기 때문’이 126명(57.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아이템 선정 및 지원기관 활용 방안을 알려주기 때문’ 42명(19.3), ‘기업가(사업가) 마인드를 제고시켜 주기 때문’ 22명(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IV-17. 참고).

<표 IV-17> 창업교육 필요성의 주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기업가(사업가) 마인드를 제고시켜 주기 때문	22	10.1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지식을 축적시켜 주기 때문	126	57.8
창업아이템 선정 및 지원기관 활용 방안을 알려주기 때문	42	19.3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기 때문	12	5.5
창업에 관심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14	6.4
기타	2	0.9
계	218	100.0

-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은 창업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 습득이나 창업아이템 선정 및 지원기관 활용 정보제공, 기업가 마인드 제고 등 때문에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제주지역 청년창업 환경에 대한 조사응답 청년들의 인식 분포를 보면(표 IV-18. 참고), ‘다소 열악함’ 109명(49.8%), ‘매우 열악함’ 55명(25.1%), ‘보통’ 44명(20.1%)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응답 대다수 청년들은 제주지역 창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IV-18> 현재 제주지역 청년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열악함	55	25.1
다소 열악함	109	49.8
보통	44	20.1
다소 좋음	11	5.0
매우 좋음	-	-
계	219	100.0

-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19. 참고), ‘창업실패 시의 재정적 부담’이 93명(22.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 분야 정보 취득의 어려움’ 80명(19.0%), ‘창업자금 조달 애로’ 79명(18.7%), ‘창업 아이템의 부족’ 52명(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제주지역에서 창업 후 실패 시 재정적 부담, 창업분야 정보 취득의 어려움, 창업자금 조달 문제, 창업 아이템 부족 문제가 청년창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IV-19>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창업자금 조달 애로	79	18.7
경영기술 부족	50	11.8
인력 확보	21	5.0
판로 확보	41	9.7
창업 관련 규제	6	1.4
창업 분야 정보 취득의 어려움	80	19.0
창업실패시의 재정적 부담	93	22.0
창업 아이템의 부족	52	12.3
기타	-	-
계	422	100.0

- <표 IV-20>은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대상 청년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듯이, ‘창업자금의 지원 시스템 확대’가 98명(45.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보육 및 교육센터의 시설 확충’ 46명(21.1%), ‘정보지원 시스템 확대’ 39명(17.9%),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34명(15.6%) 순으로 나타남. 조사 응답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창업자금의 지원 시스템 확대를 가장 중요한 인프라 개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IV-20> 제주지역 청년창업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창업보육 및 교육센터의 시설 확충	46	21.1
창업자금의 지원 시스템 확대	98	45.0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34	15.6
정보지원 시스템 확대	39	17.9
기타	1	0.5
계	218	100.0

- 청년창업을 위한 중앙정부(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책지원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대상 청년들의 응답 비율을 보면(표 IV-21. 참고), ‘대체로 모른다’ 101명(46.1%)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혀 모른다’ 58명(26.5%), ‘그저 그렇다’ 44명(20.1%)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청년들은 청년창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구됨.

<표 IV-21> 청년창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사업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58	26.5
대체로 모른다	101	46.1
그저 그렇다	44	20.1
대체로 알고 있다	16	7.3
매우 잘 알고 있다	-	-
계	219	100.0

- 중앙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대상 청년들의 응답 분포(복수응답)를 보면(표 IV-22. 참고),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가 111명(2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자금 조달 지원(융자, 투자)’ 86명(19.7%),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60명(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지역의 청년 조사대상자들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기대 역할로는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창업자금 조달 지원(융자, 투자),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지적재산침해, 불공정) 개선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IV-22>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청년창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홍보	29	6.7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111	25.5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지적재산침해, 불공정) 개선	44	10.1
복잡한 창업절차 등 규제 완화	38	8.7
창업자금 조달 지원(융자, 투자)	86	19.7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60	13.8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충	35	8.0
현재 부처별로 지원되는 대학의 청년창업교육 일원화	8	1.8
창업교육의 상설화 (주말 창업교실, 일과 후 창업교실 등)	16	3.7
청년창업 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도입	8	1.8
기타	1	0.2
계	436	100.0

○ <표 IV-23>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과제의 응답 분포(복수응답)를 보여주고 있는데,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 시행’이 108명(24.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년창업 자금의 조달 보증’ 88명(20.1%), ‘청년창업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47명(10.7%), ‘청년창업 자금의 펀딩 지원’ 42명(9.6%),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또는 네트워킹 체계 구축’ 41명(9.4%)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들은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 청년창업지원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아울러 청년창업 자금 조달을 보증하고,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표 IV-2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도지사의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	22	5.0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 시행	108	24.7
청년창업 보육 공간 제공	21	4.8
청년창업 자금의 조달 보증	88	20.1
청년창업 자금의 펀딩 지원(크라우드 펀딩 등)	42	9.6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47	10.7
청년창업 활성화위해 대학과 협조체계 구축	22	5.0
청년창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시	18	4.1
쇼셜벤처나 청년창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0	4.6
청년창업 펀드 조성	7	1.6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또는 네트워킹 체계 구축	41	9.4
기타	2	0.5
계	438	100.0

○ 조사대상 청년들의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한 도내 대학에 거는 기대 역할을 보면(표 IV-24 참고),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109명(24.9%), ‘창업 후 지속적 관리 및 컨설팅’ 80명(18.3%),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73명(16.7%), ‘창업 자금 확보 방안 지원’ 69명(15.8%) 순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도내 대학들도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창업지원 및 교육, 창업자금의 지원방안에 대해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4>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대학들에 대한 기대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확충	25	5.7
대학 내 창업교육 사업과 창업보육 사업의 통합 운영	45	10.3
창업교육 우수 강사 초빙	26	5.9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109	24.9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73	16.7
창업 자금 확보 방안 지원(크라우드펀딩 등)	69	15.8
창업 후 지속적 관리 및 컨설팅	80	18.3
교과과정에 창업 관련 과목 개설	9	2.1
기타	1	0.2
계	437	100.0

(4) 청년 취업

- 조사응답 청년들이 현재 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분포를 보면(표 IV-25. 참고), ‘예’ 119명(54.1%), ‘아니오’ 101명(45.9%)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응답 청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5> 취업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19	54.1
아니오	101	45.9
계	220	100.0

- 취업한 조사대상 청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분포를 보면(표 IV-26. 참고) ‘공무원(교사 포함)’ 21명(17.8%), ‘전문직 기업’ 21명(17.8%), ‘공기업(공사)’ 19명(16.1%), ‘기타’ 19명(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서는 연구기관 7명, 서비스업 4명이 있음. 따라서 조사응답 청년들이 대체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6> 직장 구분

구분	빈도(명)	비율(%)
공무원(교사 포함)	21	17.8
공기업(공사)	19	16.1
대기업	4	3.4
벤처기업	1	0.8
금융기관	4	3.4
전문직 기업	21	17.8
우량 중소기업	7	5.9
영세기업	8	6.8
자영업	14	11.9
기타	19	16.1
계	118	100.0

- <표 IV-27>은 조사응답 청년들이 어떠한 직장에 취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공무원(교사 포함)’이 48명(3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기업(공사)’ 35명(21.9%), ‘전문직 기업’ 24명(15.0%), ‘대기업’ 13명(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임금 및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7> 취업 희망 직장

구분	빈도(명)	비율(%)
공무원(교사 포함)	48	30.0
공기업(공사)	35	21.9
대기업	13	8.1
벤처기업	2	1.3
금융기관	7	4.4
전문직 기업	24	15.0
우량 중소기업	9	5.6
영세기업	-	-
자영업	11	6.9
기타	11	6.9
계	160	100.0

- 제주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어떤 요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지에 대해 ‘직업의 안정성’ 122명(56.5%)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수입’ 58명(26.9%), ‘발전성과 장래성’ 16명(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V-28> 취업할 때 가장 중요시한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명예와 명성	2	0.9
직업의 안정성	122	56.5
수입	58	26.9
적성과 흥미	10	4.6
보람과 자아성취	6	2.8
발전성과 장래성	16	7.4
직장 분위기	1	0.5
직장 위치	1	0.5
기타	-	-
계	216	100.0

- 조사응답 청년들이 자신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직장에서의 근무하는 경우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에 대한 인식 분포를 보면(표 IV-29. 참고), ‘있다’ 117명(53.4%), ‘없다’ 102명(46.6%)로 나타남. 따라서 절반 이상의 응답 청년들은 자신의 기대보다 못미치는 직장에 다닐 경우에 이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9> 자신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직장 이직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117	53.4
없다	102	46.6
계	209	100.0

- 조사응답 청년들이 기대보다 못 미치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인식 분포를 보면(표 IV-30. 참고), 먼저 ‘나의 인생을 위해서 보수도 좋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가 62명(53.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을 하면 결국 후회하기 때문에’ 15명(12.9%), ‘좋지 않은 직장에 가면 다시 직장을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11명(9.5%), ‘처음부터 괜찮은 직장에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11명(9.5%)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청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금도 좋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인식이 결국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30> 자신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직장에 미취업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나의 인생을 위해서 보수도 좋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62	53.4
좋지 않은 직장에 가면 다시 직장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11	9.5
처음부터 괜찮은 직장에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11	9.5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을 하면 결국 후회하기 때문에	15	12.9
괜찮은 직장을 구하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8	6.9
부모에게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1	0.9
괜찮은 직장을 가진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3	2.6
기타	5	4.3
계	116	100.0

- 제주청년들이 취업에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대상 청년들의 인식 분포(복수응답)를 보면(표 IV-31. 참고), 먼저 ‘기대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108명(2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에는 마땅히 취업할 만한 기업(사업체)이 없어서’ 96명(23.1%),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66명(15.9%), ‘산업구조가 농업과 관광·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서’ 47명(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들이 제주에서 취업하기 힘든 이유로는 대체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우량기업의 부족, 높은 취업 경쟁률,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들고 있음.

<표 IV-31> 제주청년들의 취업 힘든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청년들의 스펙(어학연수, 각종 자격증 등) 쌓기가 모자라서	29	7.0
기대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108	26.0
부모의 사회적 체면과 기대가 걸림돌이 되어서	18	4.3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66	15.9
취업에 한두 번 실패하면 받아 주는 곳이 없어서	8	1.9
제주에는 마땅히 취업할 만한 기업(사업체)이 없어서	96	23.1
도내 기업가들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 부족	22	5.3
산업구조가 농업과 관광·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서	47	11.3
행정기관(도청, 시청)의 지원이 부족하여	11	2.7
대학에서 전공 공부가 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어서	10	2.4
기타	-	-
계	415	100.0

-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추진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대상 청년들의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32. 참고), ‘대체로 모른다’ 86명(39.1%), ‘전혀 모른다’ 62명(28.2%), ‘그저 그렇다’ 55명(25.0%), ‘대체로 알고 있다’ 17명(7.7%)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 청년들은 중앙정부의 청년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2>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추진 정책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62	28.2
대체로 모른다	86	39.1
그저 그렇다	55	25.0
대체로 알고 있다	17	7.7
매우 잘 알고 있다	-	-
계	220	100.0

-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정책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대상 청년들의 인식 분포를 보면(표 IV-33. 참고), ‘대체로 모른다’ 84명(38.2%), ‘전혀 모른다’ 65명(29.5%), ‘그저 그렇다’ 50명(22.7%), ‘대체로 알고 있다’ 21명(9.5%)로 나타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청년취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에 대하여 대다수(67.7%)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고용정책 사업들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표 IV-33>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정책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65	29.5
대체로 모른다	84	38.2
그저 그렇다	50	22.7
대체로 알고 있다	21	9.5
매우 잘 알고 있다	-	-
계	220	100.0

○ <표 IV-34>는 제주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대상 청년들의 인식 분포(복수응답)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취업정보를 철저히 파악한다’가 126명(29.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96명(22.5%),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철저히 쌓는다’ 66명(15.5%), ‘청년들이 취업 눈높이를 낮춘다’ 47명(11.0%), ‘취업에 앞서 취업 전문 상담가와 의논한다’ 42명(9.9%)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들은 대체로 취업정보의 획득, 취업선택의 자기 결정력, 스펙쌓기, 취업 눈높이 낮추기 등을 취업을 잘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IV-34> 제주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잘하기 위한 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청년들이 취업 눈높이를 낮춘다	47	11.0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철저히 쌓는다	66	15.5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듣는다	18	4.2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96	22.5
취업에 앞서 취업 전문 상담가와 의논한다	42	9.9
취업정보를 철저히 파악한다	126	29.6
취업 전문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한다	5	1.2
입학 때부터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택한다	19	4.5
기타	7	1.6
계	426	100.0

3. 제주지역 청년창업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1) 조사 방법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가 사용되었으며, 면접조사 경험이 많은 면접조사원이 자료를 수집하였음. 물론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 응답을 할 수 있으면 자기기입식 방법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 면접조사를 하였음.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업체의 표본 선정은 2016년 9월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사업체)들 가운데 만 20세~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에 의해서 창업되어 운영되는 기업(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였음.¹⁶⁾
- 최종 조사면접 대상자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33개 청년창업기업(사업체)이 선정되었으며 표집방법은 임의표집과 할당표집에 의존하였음. 또한 최종조사 면접대상자는 33개 청년창업기업(사업체)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최종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조사대상 청년창업기업가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회사 및 창업기업가의 일반현황, 창업활동에 주는 요인, 창업환경과 기업가에 대한 인식, 창업활동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된 변인들이 포함됨.

2)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1) 창업기업 및 창업가의 일반적 특성

- 전체 응답 33개 창업기업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일반적 특성은 <표 IV-35>에 제시되어 있음.

16) 제주지역에서 현재 운영되는 청년기업(사업체)들에 대한 명부를 구하기가 힘들어 표집 대상 청년기업들은 도내 대학의 청년창업교육센터 관계자가 제공한 청년기업명단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청년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비용을 고려하여 33개 청년기업들을 임의 표출하였음을 밝혀둠.

<표 IV-35> 창업기업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개소), 평균	비율(%), 표준편차
창립년도	2010년 이전	4	12.9
	2011년~12년	2	6.5
	2013년~14년	9	29.0
	2015년~16년	16	51.6
	계	31	100.0
종사자수	창업 당시	3.2	2.42
	창업 3년	9.3	13.78
	창업 5년	2.5	2.12
	현재	4.6	4.71
창업 관련 평균연령	기업가 희망 당시 연령	26.8	4.20
	창업 당시 연령	28.4	4.25
	현재 연령	30.5	4.53

주 : 청년기업 창립년도는 빈도와 비율(%)로 제시되었고, 종사자수와 창업 당시 평균연령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임.

- 조사대상 창업기업의 창립년도는 2015~2016년 16개소(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13~2014년 9개소(2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많이 창업된 것으로 나타남.
- 창업 당시에 기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창업 3년째 평균 9.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창업 당시 3.2명, 그리고 창업 5년째 평균종사자 수는 2.5명으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대상 창업기업 표본이 적어 평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청년창업자가 장래 기업가가 되려고 희망하였던 당시 평균 연령은 26.8세, 그리고 기업을 직접 창업할 당시 평균연령은 28.4세로 나타났음. 그래서 20대 후반에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실제 창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 창업가의 일반적 특성은 <표표 IV-36>에 나타나 있음. 성별 분포는 남성 21명(63.6%), 여성 12명(36.4%)순으로 나타남. 청년창업가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36> 청년창업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대표자성별	남성	21	63.6
	여성	12	36.4
	계	33	100.0
창업이전 직장	중소기업	9	27.3
	대기업	3	9.1
	연구기관	1	3.0
	대학(원)생	11	33.3
	정부기관(공무원 등)	-	-
	공기업	-	-
	기타	7	27.3
	계	33	100.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7	21.2
	전문대학 졸업	9	27.3
	대학교 졸업	17	51.5
	대학원 졸업 이상(수료 포함)	-	-
	계	33	100.0

- 조사대상자의 창업이전 직장은 대학(원)생 11명(33.3%), 중소기업 9명(27.3%)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이 있음.
- 따라서 비교적 안정된 직장인 정부기관, 공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은 창업을 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며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17명(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졸업 9명(27.3%) 순으로 나타남.
- 조사용답 청년창업가들의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36. 참고), 기타 서비스업이 17개소(51.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료품 8개소(24.2%), 인터넷 관련 사업 3개소(9.1%), 그리고 전기·전자(반도체, 통신기기 등) 2개소(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37> 창업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

구분		빈도(명)	비율(%)
제조업 분야	음식료품	8	24.2
	섬유	-	-
	화학·화공	-	-
	비금속	-	-
	1차 금속	-	-
	기계 금속	-	-
	전기·전자(반도체, 통신기기포함)	2	6.1
	정보통신·멀티미디어	1	3.0
	정밀기기(의료, 계측기기 포함)	-	-
	신소재	-	-
	환경·생물산업	-	-
	기타	1	3.0
서비스업 분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S/W 포함)	1	3.0
	인터넷 관련 산업	3	9.1
	기타 서비스업	17	51.5
계		33	100.0

-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기업들이 종사하는 사업 분야는 제조업이 12개소(36.4%)이고,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는 21개소(63.6%)로 나타나 청년기업의 서비스업 사업 분야가 전체 주요사업 분야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 상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 청년기업의 서비스업 분야 가운데 기타 서비스업을 더 세분화해 보면(표 IV-38. 참고), 카페(커피, 키즈카페) 3명(20.0%), 일반음식점 및 의류업, 소매업이 각각 2명(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지역 특정상 관광·서비스업이 주요 사업 영역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¹⁷⁾ 특히 최근에 제주지역에서 젊은 청년

17) 2014년 현재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구성을 보면 농업 12.6%, 광공업 0.2%, 제조

들이 창업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얻는 카페(커피, 키즈)들이 급증하고 있음. 더구나 최근 제주도로 오는 이주민들 가운데 펜션업이나 카페(커피)를 개업하는 경우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IV-38> 주요사업 분야의 기타 서비스업 분류

구분	빈도	비율(%)
일반음식점	2	13.3
의류업	2	13.3
카페(커피, 키즈)	3	20.0
소매업	2	13.3
운송업	1	6.7
미용업	1	6.7
체육시설업	1	6.7
숙박업	1	6.7
교육	1	6.7
건축업	1	6.7
계	15	100.0

(2) 창업활동에 영향 주는 요인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가 기업가가 되고자 했던 주요 동기를 보면(표 IV-39. 참고),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14명(42.4%),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8명(24.3%), ‘내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서’ 6명(18.2%),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유를 갖기 위해서’ 4명(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청년창업가들은 주로 자아실현과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기업가가 되고자 한다는 것임.

업 3.1%, 건설업 8.6%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관광 및 서비스업이 75.5%를 차지하고 있음. 관광 및 서비스업은 10년 전에 비하여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

<표 IV-39> 기업가가 되고자 한 주요 동기

구분	빈도	비율(%)
자아실현을 위해서	14	42.4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8	24.3
직장생활에서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유를 갖기 위해서	4	12.1
사회에 공헌(기여)하기 위해서	1	3.0
사장이 되기 위해서	-	-
내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서	6	18.2
가업을 이어 더욱 번창시켜 나가기 위해서	-	-
기타	-	-
계	33	100.0

○ <표 IV-40>는 조사대상 청년창업의 창업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직장 경험’ 12명(36.4%), ‘가정교육’ 5명(15.2%), ‘학교교육’ 2명(6.1%) 등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창업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

- 특히 가족이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집안의 가업을 계승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측면에서 가정교육(혹은 가족)에 의한 영향을 받기도 함.
- 창업가들은 직장생활을 통해서 얻은 기술 혹은 경영지식을 가지고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져 창업하기도 함.

<표 IV-40> 창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이전 직장 경험	12	36.4
학교교육	2	6.1
가정교육	5	15.2
직업교육	1	3.0
기타	13	39.3
계	218	100.0

- 조사대상 창업가들이 창업을 최종 결정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환경 및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표 IV-41. 참고), 우선 ‘창업을 할 업종의 시장 규모(크기) 및 성장성’이 19명(57.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득증대의 기회’ 8명(24.2%), ‘내부 여유자금(가족소득·자산)’ 4명(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업종)의 시장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그리고 소득증대의 기회가 창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인식되었음.

<표 IV-41> 최종 창업결정시 가장 중요시할 경제적 환경 및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해당 업종 시장의 규모(크기) 및 성장성	19	57.6
소득증대의 기회	8	24.2
국가경제의 기대 성장	-	-
금융 활용성	-	-
내부 여유자금(가족 소득/자산)	4	12.1
규제 완화 기대감	-	-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	-
기타	2	6.1
계	33	100.0

- 창업을 최종 결정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비경제적인 환경 및 요인에 대한 조사대상 창업가의 응답분포를 보면(표 IV-42. 참고), ‘도전 의식’ 14명(42.5%), ‘자아실현 욕구’ 11명(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창업을 최종 결정할 때 조사응답 창업가들은 도전의식과 자아실현 욕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2> 최종 창업결정시 가장 중요시할 비경제적인 환경 및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자아실현 욕구	11	33.3
도전 의식	14	42.5
사회공헌	3	9.1
성공한 기업가처럼 존경받고 싶은 욕구	3	9.1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	1	3.0
리더십(사장) 욕구	1	3.0
기타	-	-
계	33	100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교육과정에서 창업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43. 참고), ‘아니오’ 31명(93.9%), ‘예’ 2명(6.1%)로 나타남. 따라서 절대 대다수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은 창업교육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창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청년창업가의 표본 수(2명)가 아주 적지만 창업교육이 필요한 주요 이유가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임.

<표 IV-43> 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업교육 참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아니오	31	93.9
예	2	6.1
계	33	100.0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44. 참고), ‘자금조달’이 15명(4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력 확보’ 9명(27.3%), ‘판로 확보’ 4명(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과정에서 자금조달과 인력 확보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4>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자금조달	15	45.5
인력 확보	9	27.3
기술 수준 확보	2	6.1
판로 확보	4	12.1
환경 등 창업 관련 규제	1	3.0
행정으로부터 창업 지원받기	2	6.1
기타	-	-
계	33	100.0

- 창업 초기 창업자금 조달 방법은 ‘개인 자금’ 15명(45.5%)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일반 은행 대출’ 11명(33.3%), ‘기타’ 3명(9.1%)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 부모님 자금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했다는 응답이 있었음(표 IV-45. 참고).
- 이처럼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초기 자금조달을 개인 자금이나 은행 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 은행대출에 의한 창업자금을 못 갚을 경우에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최악의 경우 창업기업을 문 닫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

<표 IV-45> 창업 초기 창업자금 조달 방법

구분	빈도(명)	비율(%)
개인 자금	15	45.5
공공기관의 융자 및 보증	1	3.0
일반 은행 대출	11	33.3
친척·친구 자금	1	3.0
벤처캐피털	-	-
개인투자자(엔젤, 친구·친척자금 제외)	2	6.1
기타	3	9.1
계	33	100.0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엔젤 캐피털회사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46. 참고), ‘활용한 적이 없다’가 32명(97.0%)으로 절대 다수가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과거에 활용한 적이 있는 경우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는 창업 시 자금조달을 위한 엔젤 캐피털회사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개인 자금이나 일반 은행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 IV-46> 엔젤 캐피털회사 활용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과거에 활용한 적 있으나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다	1	3.0
현재 활용하고 있다	-	-
활용한 적이 없다	32	97.0
현재는 활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
계	33	100.0

- 이와 더불어 조사응답 청년창업가들이 엔젤 캐피털도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IV-47. 참고).

<표 IV-47> 엔젤 캐피털 활용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과거에 활용한 적 있으나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다	1	3.1
현재 활용하고 있다	-	-
활용한 적이 없다	31	96.9
현재는 활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
계	32	100.0

- 엔젤 캐피털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는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엔젤 캐피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주지역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자금조달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도내 금융기관에서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후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48. 참고), ‘창업 후 6개월 미만’이 12명(36.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 후 1년~3년 미만’ 8명(24.2%)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창업 직후에 자금사정이 가장 어렵고, 초기 창업자본이 소진되는 창업 후 1년~3년 사이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48> 창업 후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구분	빈도(명)	비율(%)
창업~6개월 미만	12	36.4
6개월~1년 미만	5	15.2
1년~3년 미만	8	24.2
3~5년 미만	1	3.0
없었음	7	21.2
계	33	100.0

(3) 창업환경과 기업가에 대한 인식

- 창업 당시에 비해 현재의 창업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응답 청년창업가의 인식 결과를 보면(표 IV-49. 참고), ‘거의 변화없다’가 12명(36.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간 좋아졌다’ 10명(30.3), ‘대체로 악화되었다’ 6명(18.2%)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응답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악화, 변화없음, 양호)이 각각에 대하여 거의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IV-49> 창업 당시에 비해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악화되었다	5	15.2
대체로 악화되었다	6	18.2
거의 변화 없다	12	36.3
약간 좋아졌다	10	30.3
매우 좋아졌다	-	-
계	33	100.0

- 창업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청년창업가들이 악화된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높은 생산요소 비용(지가,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 5명(45.5%),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3명(27.3%)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하여 창업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

<표 IV-50> 창업환경이 악화된 주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수익창출 기반의 악화	1	9.1
규제의 증가	-	-
높은 생산요소 비용(지가, 인건비, 원자재 등)	5	45.5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3	27.3
기술발전을 따라가기가 힘들	-	-
유사 사업체의 증가	2	18.2
기타	-	-
계	11	100.0

(4) 창업활동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기업가정신이 약화되는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인식 분포를 보면(표 IV-51. 참고), ‘수익창출 기반 약화’ 10명(30.3%), ‘유사 사업체의 증가’ 8명(24.2%),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 7명(21.2%), 그리고 ‘행정의 과도한 규제’ 4명(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51> 기업가정신 약화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부재	2	6.1
행정의 과도한 규제	4	12.1
기업가에 대한 좋지 않은 정서로 경영의욕 감퇴	-	-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	7	21.2
수익창출 기반 약화	10	30.3
유사 사업체의 증가	8	24.2
기타	2	6.1
계	33	100.0

-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은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는 애로사항으로 주로 수익창출 기반의 약화, 유사 사업체와의 경쟁, 기업경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은 ‘아니오’ 31명(93.9%), ‘예’ 2명(6.1%)로 나타남. 따라서 절대 다수의 청년창업가들은 현재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인식을 하고 있음.

<표 IV-52>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기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아니오	31	93.9
예	2	6.1
계	33	100.0

-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표준 마련에 대한 조사응답 청년창업가들의 응답 분포를 보면(표 IV-53. 참고), ‘필요하다’ 23명(74.2%), ‘필요하지 않다’ 2명(6.5%)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표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임.

<표 IV-53>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표준 마련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	6.5
약간 필요하다	14	45.2
매우 필요하다	9	29.0
잘 모르겠다	6	19.3
계	31	100.0

- 창업교육 상설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22명(75.9%),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3명(10.3%)으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응답 청년창업가들 대다수가 창업교육 상설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표 IV-54. 참고).

<표 IV-54> 창업교육 상설화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3.4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	6.9
약간 필요하다	13	44.9
매우 필요하다	9	31.0
잘 모르겠다	4	13.8
계	29	100.0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벤처 캐피털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바라는 사항에 대한 인식 분포를 보면(표 IV-55. 참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13명(40.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투자 기준 완화’ 12명(37.5%), 그리고 ‘투자규모 확대’ 6명(18.8%)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청년창업가들은 벤처 캐피털 회사가 창업가들이 초기에 집중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함.

<표 IV-55> 벤처 캐피털 회사 운영에 가장 바라는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13	40.6
투자 규모 확대	6	18.8
투자 기준 완화	12	37.5
기타	1	3.1
계	32	100.0

○ 엔젤 자금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응답 청년창업가들의 인식 분포를 보면(표 IV-56. 참고), ‘엔젤 투자에 따른 소득 공제금액 확대’가 17명(51.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엔젤 투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9명(27.3%), 그리고 ‘엔젤 자금의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4명(12.1%) 순으로 나타남.

<표 IV-56> 엔젤 자금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엔젤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확대	17	51.5
엔젤 자금의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4	12.1
엔젤 투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9	27.3
기타	3	9.1
계	33	100.0

○ 창업 촉진을 위한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청년창업가들의 응답 분포가 <표 IV-57>에 나타나 있듯이, ‘창업 관련 절차 및 비용 절감 등 진입장벽 완화’가 14명(4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으로 면책재산 범위 확대’ 11명(33.3%),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4명(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서 우선 제도 정비를 할 사항은 청년창업 관련 절차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하고, 아울러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으로 면책재산 범위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음.

<표 IV-57> 창업 촉진을 위한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에 우선 시급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기업의 규제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유연성 법 제정	3	9.1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으로 면책재산 범위 확대	11	33.3
창업 관련 절차 및 비용 절감 등 진입장벽 완화	14	42.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4	12.1
기타	1	3.1
계	33	100.0

○ <표 IV-58>은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분포(복수응답)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창업자금 조달 지원(융자, 투자)’이 19명(2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17명(26.6%),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11명(17.2%)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지적재산침해, 불공정)’ 6명(9.4%), 그리고 ‘복잡한 창업절차 등 규제 완화’ 5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앙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 조달지원(융자, 투자),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청년창업 실태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의 정책 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표 IV-58>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청년창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홍보	1	1.5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17	26.6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지적재산침해, 불공정)개선	6	9.4
복잡한 창업절차 등 규제 완화	5	7.8
창업자금 조달 지원(융자, 투자)	19	29.7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11	17.2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충	4	6.3
현재 부처별로 지원되는 대학의 청년창업교육 일원화	1	1.5
창업교육의 상설화(주말 창업교실, 일과 후 창업교실 등)	-	-
청년창업 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도입	-	-
기타	-	-
계	64	100.0

- 또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에 대한 조사 대상 청년창업가들의 인식 분포(복수응답)를 보면(표 V-58), 먼저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 시행’이 22명(34.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년창업 자금의 조달 보증’ 19명(29.7%),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5명(7.8%), 그리고 ‘청년창업 자금의 펀딩지원(크라우드 펀딩)’ 4명(6.3%)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IV-59. 참고).

-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물론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정책 사업들

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청년창업에 중요한 사항인 자금조달의 보증,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표 IV-59>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도지사의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	3	4.7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 시행	22	34.4
청년창업 보육 공간 제공	2	3.1
청년창업 자금의 조달 보증	19	29.7
청년창업 자금의 펀딩 지원(크라우드 펀딩 등)	4	6.3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5	7.8
청년창업 활성화위해 대학과 협조체계 구축	3	4.7
청년창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시	-	-
쇼셜벤처나 청년창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	3.1
청년창업 펀드 조성	-	-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또는 네트워킹 체계 구축	3	4.7
기타	1	1.5
계	64	100.0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 대학들의 역할에 대한 청년창업가의 인식 분포(복수응답)를 보면(표 IV-60. 참고), 우선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17명(25.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 자금 확보방안 지원(크라우드 펀딩 등)’ 16명(24.2%),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15명(22.7%), 그리고 ‘창업 후 지속적 관리 및 컨설팅’ 7명(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내 대학들이 창업과 연계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창업자금 확보방안 지원,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을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IV -60>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대학들의 역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확충	4	6.2
대학 내 창업교육 사업과 창업보육 사업의 통합 운영	3	4.5
창업교육 우수 강사 초빙	3	4.5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17	25.8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15	22.7
창업 자금 확보 방안 지원(크라우드 펀딩 등)	16	24.2
창업 후 지속적 관리 및 컨설팅	7	10.6
교과과정에 창업 관련 과목 개설	1	1.5
기타	-	-
계	66	100.0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은 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창업자금의 원활한 지원, 지속적 창업지원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년창업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4. 제주지역 청년창업 관련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및 해석

1) 조사 방법

- 자료 수집은 개방형 심층면접 방법에 의한 1:1 면접조사가 이루어졌음. 면접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책임자가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및 보육, 그리고 청년창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단체(기관)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하였음.
- 면접조사대상은 현재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을 위해 활동 및 지원하는 기관(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청년창업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 제주희망협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한정하였음(표 IV-61. 참고).

- 도내 4개 대학은 청년창업 및 보육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 및 보육 관련 활동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임.¹⁸⁾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5월에 개소하여 창업 관련 다양한 지원활동(교육, 상담, 입주공간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청년창업협동조합 등은 청년문제(특히 창업, 일자리 창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최종 조사면접 대상자는 도내 4개 대학의 창업보육 및 교육센터 관계자, 민간조직(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협동조합 등)의 실무 책임자(대표 등)이며 이들을 할당표집하여 심층 면접하였음.¹⁹⁾
- 최종 분석방법은 각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면접 내용을 기술적 설명(descriptive explanation)에 바탕을 두었음. 각 사례 심층면접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청년들이 처한 현실, 청년창업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애로사항 및 평가,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 청년창업 활성화 등에 대하여 면접 조사하였음.
-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특성은 <표 IV-60>과 같음.
 - 제주지역 청년창업(일반 창업 포함) 관련 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가운데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면접 대상자(각 사례)는 절대 다수가 남성임.
 - 도내 대학은 4개이고, 협동조합은 3개소임.
 - 면접 응답자들은 창업교육, 창업보육, 창업활동, 창업참여 등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음.

18) 제주지역의 4개 대학(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은 각각 산학협력단 산하에 창업교육센터 혹은/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일반 혹은 청년(특히 대학생)과 창업교육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19) 면접 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 및 소속 단체, 그리고 성함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힘.

<표 IV-6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성별	기관(단체)	담당업무
사례 1	여성	대학	창업지원
사례 2	남성	대학	창업보육
사례 3	남성	대학	창업보육
사례 4	남성	대학	창업보육
사례 5	남성	협동조합	창업활동
사례 6	남성	협동조합	청년활동
사례 7	남성	협동조합	창업참여

○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면접 내용은 <표 IV-62>에 있음.

<표 IV-62> 심층면접 내용

영역	세부영역
청년창업 환경	창업공간, 창업자금, 창업관심 등
청년창업 실적	창업기업 수, 창업성공률 등
청년창업 관리	창업교육, 창업네트워크, 창업실패 등
청년창업 지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도, 지원 애로사항 등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교육, 창업자금, 창업활성화 정책 등

2) 심층면접 결과²⁰⁾

○ 심층면접 결과는 면접 대상자들이 질문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 혹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1) 사례 1 (대학 창업지원 관계자 : 8월 10일 인터뷰)

○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은 근본적으로 힘들.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창업 실태에 따른 두려움으로 선불리 창업하기가 쉽지 않음.

20) 심층면접 결과는 면접 대상자들이 질문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 혹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혀둠.

- 제주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다양한 창업 아이템이 없고 몇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다보니 제품들의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임.
- 창업 지원금 부족으로 다음 사업 선정에 애로 사항이 있고 3년까지 지원이 가장 어려움이 발생함.
- 대학에서는 30~40개 창업동아리 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관광 관련 문화상품이나 IT 앱 개발 등에 관심을 가져 활동하고 있음.
-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창업 자금의 지역할당량에 불리함. 왜냐하면 제주 창업기업들의 규모가 작고 주로 농수축산 부문과 관련되어 있어서 엔젤투자회사들의 관심도 자연히 적음.
 - 제주지역에 토종기업들이 많지 않고 제주 이전기업들이 오히려 더 활동적임.
-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정부의 각 부처별 지원 체계를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창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K-Start Up(창업 넷) 홈페이지에 탑재할 필요가 있음.

(2) 사례 2 (대학 창업지원 관계자 : 8월 12일 인터뷰)

- 대학에서는 창업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주로 정부의 중소기업청으로 지원받는 사업임.
- 20개 업체가 대학 내에 입주하고 있지만 청년창업업체는 없고, 동시에 창업 동아리 활동이 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만 대학에서는 창업 강좌 개설,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이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 상담 그리고 자문을 하고 있지만 특정 업종에 경력을 갖춘 사람이 창업하면 성공 확률이 높음.
- 정부는 창업 지원을 하면서 1년 단위 성과 요구와 단기간 사업에 치

중하고 있음. 그래서 1인 창조기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창업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힘든 상황임.

- 2~3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 기획력을 갖추고, 동시에 창업자금 확보를 할 경우에 창업에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음.
-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특히 창업교육을 잘 받고 본인 스스로 열정을 가져 노력하고, 더 나아가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창업자금을 제공받고, 그리고 창업전략을 잘 짜서 사업할 경우에 창업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사례 3 (대학 창업지원 관계자 : 10월 10일 인터뷰)

- 창업에 필요한 기반(특히 교육 및 보육) 인프라(저렴한 공간, 사무실 제공, 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는 갖추어져 있으나 창업자금 조달 문제가 중요하고 또한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창업에 선뜻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대학에서는 교육부 사업은 안하고 창업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정부의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은 창업보육 사업을 하고 있음. 여기에 지자체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음.
- 대학의 창업보육 운영 사업은 거의 15년 전부터 시작해 오고 있고, 그 동안 경험에 비추어 보면 30대 후반~40대 초·중반에 재창업하는 경우가 많음. 이 연령대에는 최초 창업은 적음.
 - 청년창업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음. 왜냐하면 사회경험이 적고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임.
- 대학에서 창업보육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관리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자연스레 창업지원 사업은 사라지게 됨.
- 대학에서 창업자를 만들기보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4) 사례 4 (대학 창업지원 관계자 : 10월 17일 인터뷰)

- 창업지원에 대한 시설이나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입주기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 부족과 센터의 지원 인력 및 사업개발비 부족이 주요 문제로 남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제주지역협의회」가 결성되어 매년 1~2월에 정기총회를 열고 있으며, 여기서 도내 창업 지원 및 창업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상호 정보도 교류하는 장임.²¹⁾
- 20세~39세 이하의 청년들에 의해 창업된 청년기업은 전체 입주기업들 가운데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인 창업임.
 - 제주지역의 창업의 주 업종은 대개 식품 및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분야와 IT 기술을 접목한 관광분야의 웹개발 분야임.
- 대학을 졸업하여 기업에 취업하고 난 후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할 경우에 창업 생존율이 높음. 입주기업들 가운데 그런 기업이 많고 60~70% 졸업기업들이 지속적 생존과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도내 창업기업들은 대개 1인 창조기업으로 2~3인 정도 규모이고, 신용기술보증자금으로 제공되는 청년창업자금을 활용하는 기업도 2~3개 불과할 정도임. 그래서 소규모여서 엔젤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제주지역의 창업기업들에게 가장 요구사항은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장부지를 조성해 주는 일임.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환경문제(수도법 규정)와 결부되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임.

(5) 사례 5 (협동조합 관계자 : 9월 2일 인터뷰)

- 청년들이 창업 전에 어떤 공동체 모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음. 2015년 7월에 창립 총회를 열고 8월에 등록하게 됨.

21) 「창업보육센터제주지역협의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도내 4개 대학, 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장애인창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등의 기관(혹은 단체)이 참여하고 있음.

- 청년연합 모임 형태로서 교육, 마을단위 체험, 작은 동아리 활동 등을 바탕으로 청년창업 사업화 이전에 기획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음.
- 현재 조합원이 20여명으로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으며 조합원 가운데 절반은 이미 창업을 하였고 나머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음.
- 조합원들은 대학생, 환경, 노동단체, 문화기획자, 교육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어도 2주에 한번 모임을 갖고 있음.
- 그 동안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정(2016. 6. 22)에 기여하였고, 청년창업기업 간에 네트워크 강화, 청년창업을 포함한 청년문제의 현안 사항 발굴, 그리고 청년 아카데미 활동 등을 들 수 있음.
- 청년창업가는 창업 후에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창업생존을 위한 안전망이 낮다 보니 청년 창업희망자가 그리 많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혁신가 육성 사업에 조합원으로 있는 청년 2명이 참여하고 있음.
- 청년창업이 활성화하려면 진로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업 관련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창업 기획을 세워 나가야 함. 왜냐하면 가끔 창업지원금을 받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문을 닫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특히 창업 실패에 따른 보장체계가 마련해야 할 것임.

(6) 사례 6 (협동조합 관계자 : 9월 30일 인터뷰)

- 초창기는 자활사업단으로 출발하였으나 협동조합으로 변화하였고, 지금은 직원이 12명 가운데 조합원이 7명임.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35세 미만의 청년들임.
- 9명의 청년들이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운수업, 이사 화물업 등 제주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육지에서 오는 물품들을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또한 전용 사다리차 1대와 용달차 3대를 가져 이사짐 센터 사업도 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4.5t(1대), 3.5t(15대) 차량을 이용하여 물류 및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로 한살림 생협에서 생산한 물품, 그리고 삼다수 주스, 대한통운 기업위탁 물품 등을 배송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2015년 총 매출액은 4억9천만원이고, 2016년 상반기에 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2월 말까지는 13억여원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음.
-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12명 가운데 7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고 매월 평균 임금이 240만여원으로 동종업계에서는 임금수준이 꽤 낮은 편임.
- 청년들이 이러한 화물 및 유통업 참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청년활동가들이 자비로 투자하여 참여하였음.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이 중요함.
 - 청년들은 자본과 경험이 적지만 의욕은 대단하기 때문에 청년기업들은 근로조건 개선과 자치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청년 중심의 협동조합은 활동적, 민주적, 수평적 조직 구도를 갖고 있어서 발전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래서 청년기업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
 - 청년창업기업에 가장 문제가 수직적 사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사고 방식을 가져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청년창업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꿈을 가진 청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

- 청년창업을 위한 종합적 지원 공간도 없고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음. 또한 청년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함.

(7) 사례 7 (협동조합 관계자 : 9월 30일 인터뷰)

- 혁신적 청년창업가는 행정으로부터 의존적 지원을 원치 않음. 다만 행정은 청년들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장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
-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기업들이 활성화되려면 제주 공동브랜드 인증과 공동물류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임.

5. 제주지역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의 시사점

1) 청년층 대상 실태조사의 시사점

(1) 청년층의 인구학적 특성

- 청년층 가운데 96.4%(212명)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고 있어서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최근의 청년일자리 및 고용문제에서 미스매치 현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고학력 청년인력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창업도 청년고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할 수 있음.

(2) 청년일자리

- 제주지역의 청년들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을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에 두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제주청년들은 국가기관(공무원)과 공기업(공사)의 직장을 선호하고 있고, 반면에 도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제주청년들의 일자리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번듯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²²⁾
- 제주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직종 유형은 대체로 공무원, 교사, 은행원, 공기업 직원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직종들은 제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타 직종보다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당분간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될 것임.
-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다가오는 4차 혁명 시대에 이런 직종들이 제주에서 미래에도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을지 의문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물산업, 식품융합산업, 풍력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등)이 성장·발전되면 ‘괜찮은 일자리’ 직종도 변화할 가능성이 큼.
- 제주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이유들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주로 농업과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취약성(31.3%),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부족(29.3%),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부재(15.0%) 등에 집중되고 있음.
-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제약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층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19.0%), 국내외 우량 중소기업의 적극적 유치(18.5%), 창업 벤처기업 육성·지원(18.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11.9%),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조속한 발전(11.5%)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22) 양질의 일자리는 대개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며,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비록 대기업에 취업하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타 직장에 비하여 구조조정에 의해 조기에 퇴직하게 되면 그리 좋은 일자리로 평가하기가 힘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판단은 달리 규정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최근에 ‘괜찮은 일자리’를 번듯한 일자리 혹은 좋은 일자리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학술적 용어로 보다는 행정적 용어로 쓰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제주지역과 제주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청년창업

- 제주지역 청년들은 취업과 창업 가운데 선택 사항은 취업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 창업을 먼저 생각하는 비중은 7.4%(16명)에 불과함. 따라서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일단 취업하여 사회경험을 쌓고 창업자금을 마련한 이후에 창업을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년취업 활성화에 청년고용정책을 우선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들은 창업보다 취업을 먼저 하는 이유들을 사회경험(37.0%), 경제적 안정(21.7%), 창업자금 마련(20.3%), 창업은 위험성(10.1%)에 두고 있음.
- 그런 맥락에서 제주 청년들이 향후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는 32.2%(69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성공적 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의 창업 시기는 취업 등을 통해서 충분한 사회경험을 쌓은 후(63.8%),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한 후(13.0%) 등으로 나타남.
- 물론 대학교 재학 중 혹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창업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대체로 조사대상 청년들은 사회경험을 오래 쌓은 후에 창업을 계획하고 있음.
- 제주청년들이 창업 시 고려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환경과 요인으로 해당 업종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51.4%), 소득증대의 기회(25.7%), 내부 여유자금(가족소득·자산)(11.4%) 등을 인식하고 있음. 특히 창업할 때 창업자금 조달과 해당 업종의 시장경쟁 등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습득이 필요함.

- 따라서 청년창업가 혼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가지원조직(행정기관, 창업교육 및 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이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제주 청년들이 창업할 때 비경제적 환경 및 요인으로 주로 자아실현과 도전의식을 꼽고 있는데 청년들 개인 차원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청년들 가운데 23.1%(50명)가 창업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지만 창업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20.9%(10명)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불만족 내용은 주로 획일적 내용의 창업 교육프로그램, 교육내용 부실, 창업에 도움 안 되는 내용 등이 크게 지적됨.
- 따라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여러 기관(특히 도내 대학)들은 창업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친 후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제주지역의 창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응답 비율이 74.9%(164명)으로 나타나 창업 환경의 열악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창업 실패시의 재정적 부담(22.2%, 93명), 창업분야 정보 취득의 어려움(19.0%, 80명), 창업자금 조달 애로(18.7%, 79명), 창업 아이템의 부족(12.3%, 52명) 등이 열악한 창업 환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문제들의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 청년창업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한 청년층 조사응답자들은 ‘창업자금의 지원 시스템 확대’(45.0%, 98명), ‘창업보육 및 교육센터의 시설 확충’(21.1%, 46명), ‘정보지원 시스템 확대’(17.9%, 39명)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 특히 청년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창업자금 지원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물론 창업보육 및 교육센터의 시설 확충, 정보지원 시스템 확대,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동시에 필요함.

- 청년창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고 있음. 조사대상 청년들 가운데 72.6%(159명)가 ‘모른다’는 응답을 보였고,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3%(60명)에 불과함. 따라서 중앙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앙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창업자금 조달 지원(융자, 투자),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제도전 기회 제공,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지적재산침해, 불공정) 개선 등에 대한 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에 대한 조사대상 청년들의 인식을 보면,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 시행’(23.7%, 108명), ‘청년창업 자금의 조달 보증’(20.1%, 88명),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10.7%, 47명), ‘청년창업 자금의 펀딩 지원’(9.6%, 42명),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또는 네트워킹 체계 구축’(9.4%, 41명) 등이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청년창업지원 정책사업의 발굴 및 지원, 청년창업 자금의 조달 보증,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청년창업 자금의 확보, 청년창업 자금의 펀딩 지원(크라우드 펀딩 등)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 제주청년들이 도내 대학들에게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창업 후 지속적 관리 및 컨설팅,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창업 자금 확보 방안 지원 등을 대학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4) 청년 취업

- 조사대상 청년들 가운데 절반 이상(54.1%, 119명)이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1명(45.9%)은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음. 취업하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의 직종 유형들은 대개 공무원이나 공기업(33.9%, 40명), 전문직 기업(17.8%, 21명), 자영업(11.9%, 14명) 등으로 나타남.

-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하거나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대학 재학생 제외)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취업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용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물론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 가운데 창업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들에게는 창업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제주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들이 대체로 직업의 안정성(56.5%, 122명), 수입(26.9%, 58명), 발전성과 장래성(7.4%, 16명) 등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대다수 청년들이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좋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제주청년들은 자신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직장은 그만 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비중이 46.6%(102명)을 차지하여 이는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제주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 이유로 ‘기대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서’(26.0%, 108명), ‘제주에 취업할 만한 기업(사업체)의 부재’(23.1%, 96명), ‘높은 취업 경쟁률’(15.9%, 66명), ‘산업구조의 취약성’(11.3%, 47명) 등을 꼽고 있음.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량기업의 유치, 산업구조의 취약성 극복 등과 같은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주청년들은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음. 예컨대 청년취업 및 고용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67.3%(148명)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 비중은 67.7%(149명)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취업 및 고용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 홍보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주청년들 자신도 취업 정보의 철저한 취득(29.6%, 126명), 일자리의 자기 결정권(22.5%, 96명), 스펙 쌓기(15.5%, 66명), 취업 눈높이 낮추기(11.0%, 47명) 등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에 따른 노력도 요구됨.

2) 청년창업기업 실태조사의 시사점

(1) 청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일반적 특성

- 청년창업가의 대다수가 남성(63.6%, 21명)이고 여성은 36.4%(12명)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창업에도 성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년창업가의 기업 창립년도가 2015~2016년 51.6%(16명)를 차지하여 절반을 넘기고 있고, 2013~2014년에 29.0%(9명)을 나타나 최근 4년간 창업이 많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지원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등과 같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함.
- 청년창업가의 이전 직장은 대학(원)생 33.3%(11명), 중소기업 근무 27.3%(9명), 대기업 근무자 9.1%(3명)이어서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다니던 공무원이나 공기업 출신의 청년은 창업하지 않는 편이었음.
- 청년창업가들의 교육수준이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이 78.8%(26명)를 차지하여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
- 청년기업들이 종사하는 사업 분야는 제조업이 12개소(36.4%)이고,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는 21개(63.6%)로 나타나 청년기업의 사업 분야가 전체 주요사업 분야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것임.

(2) 창업활동에 영향 주는 요인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가 기업가가 되고자 했던 동기가 ‘자아실현’이

42.4%(14명)과 ‘소득 증대’가 24.3%(8명), ‘자신이 가진 기술의 사업화 희망’ 18.2%(6명), 그리고 ‘독립성과 자유로운 생활’ 12.1%(4명)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업가가 되고자 했던 주요 동기가 주로 자아실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인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의미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 청년창업 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 ‘이전 직장 경험’이 36.4%(12명)이고 ‘가정교육’은 15.2%(5명)이지만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하고 난 후 기술과 경영지식 그리고 사회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임.
- 청년층들과 마찬가지로 청년창업가들도 창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경제적 환경과 요인이 ‘창업을 할 업종의 시장규모 및 성장 가능성’(57.6%, 19명)이라는 인식을 보였음. 또한 ‘소득증대의 기회’(24.2%, 8명)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가들은 창업 아이템의 시장경쟁력과 수익 창출을 고려하여 창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임.
- 창업결정의 비경제적 환경이나 요인과 관련한 청년층의 ‘인식처럼 청년창업가들도 ‘도전의식’(42.5%, 14명)과 ‘자아실현 욕구’(33.3%, 11명)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따라서 창업결정은 청년창업가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자아실현 욕구 충족이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잘 교육 및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교육과정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93.9%) 앞으로 고교 혹은 대학에서 미래에 창업 희망자 혹은 기업가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창업 교육(기업가 정신 포함)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들은 먼저 ‘자금조달’(45.5%, 15명), ‘인력확보’(27.3%, 9명), 그리고 ‘판로확보’(12.1%, 4명) 등으로 나타남. 특히 창업 후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창업~6개월 미만(36.4%)과 1년~3년 미만(24.2%)이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창업가에게 자금조달은 초기 창업자본이 소진되는 창업 후 1년~3년 사이가 중요함.

- 따라서 일반 사업가들이 겪는 사항이지만 청년창업가들이 겪는 자금조달, 인력확보, 시장개척 등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국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3) 창업환경과 기업가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은 창업 당시에 비교하여 현재의 창업환경이 ‘악화되었다’(32.4%, 11명)는 인식이 1/3 수준에 이르러 악화된 주요 요인들을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창업희망 청년들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필요함.
- 창업환경이 악화된 주요 요인이 ‘높은 생산요소 비용(지가, 인건비, 원자재 등)’(45.5%)과 ‘시장경쟁 치열’(27.3%) 그리고 ‘유사 사업체의 증가’(18.2%) 등임. 따라서 향후 창업희망자들은 창업실패에 앞서 창업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 창업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

(4) 창업활동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은 대체로 ‘수익창출 기반 약화’(30.3%, 10명), ‘유사 사업체의 증가’(24.2%, 8명),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21.2%, 7명) 요인들이 기업가 정신의 약화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청년창업가에게 시장 및 경제환경 변화를 잘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실패에 따른 어려움이나 재기 불가능에 대한 면책지원 확대 범위를 늘려주는 방안을 법·제도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절대 다수의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창업과정에서 받은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의 체계적 함양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는 인식을 하고 있음(93.9%). 따라서 기존의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제로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표준안 마련과 창업교육 상설화가 필요함. 물론 현재 도내 대학에서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상설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내용, 강사진, 운영방식 등에 대한 혁신적 변화들이 필요함.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이 벤처 캐피털 회사 운영에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들 가운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40.6%, 13명), ‘투자 기준 완화’(37.5%, 12명), 그리고 ‘투자규모 확대’(18.8%, 6명)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따라서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개별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창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부 혹은 금융기관들이 청년창업가의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엔젤 자금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엔젤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확대, 엔젤 투자 확대 홍보 강화, 엔젤 자금의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이 필요함.
-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서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에 우선 시급히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청년창업가들은 ‘창업 관련 절차 및 비용 절감 등 진입장벽 완화’(42.4%, 14명)와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으로 면책재산 범위 확대’(33.3%, 11명)을 중요한 사항이라 인식하고 있음. 특히 선진국에서 창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제도전의 기회를 주기위한 면책재산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창업자금 조달 지원(융자, 투자)’(29.7%, 19명),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26.6%, 17명),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제도전 기회 제공’(17.2%, 11명) 등에 두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 조달지원(융자, 투자)의 원활화,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청년창업 실태에 대한 제도전 기회 제공 등의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청년창업가들은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 시행’(34.4%, 22명), ‘청년창업 자금의 조달 보증’(29.7%, 19명), ‘청년창업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7.8%, 5명), ‘청년창업 자금의 펀딩지원(클라우드 펀딩)’(6.3%, 4명) 등에 두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물론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그리고 행정에서 청년창업 자금조달을 보증하고, 아울러 창업실패 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책재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 대학에서는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25.8%, 17명), ‘창업 자금 확보방안 지원(클라우드 펀딩 등)’(24.2%, 16명),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22.7%, 15명), 그리고 ‘창업 후 지속적 관리 및 컨설팅’(10.6%, 7명) 등이 중요한 과제로 청년창업가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됨.
- 따라서 도내 대학들은 창업과 연계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창업자금 확보방안 강구,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청년창업 지원 관계자 심층면접조사의 시사점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과 활동위한 기반조성을 어느 정도 되어 있음. 즉, 도내 4개 대학에 거의 창업교육 및 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일정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어 오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이 이루어져 R&D 사업, 전문성 강화,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협동조합의 역사가 2년도 안 되어 짧지만 이런 협동조합들은 청년창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적 노력들을 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청년들이 함께 여러 가지 청년이슈들을 서로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는 청년허브센터와 같은 공간이 필요함.
- 대학에서 다양한 창업교육 및 보육 관련 프로그램 개설·운영과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대학생 청년들이 재학 중 혹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창업하기란 쉽지 않음.
- 청년창업에는 창업자금 및 자본, 사회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지만 청년창업을 제대로 하려면 직장생활이나 경력을 쌓은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창업(일반 창업 포함) 지원이 거의 전적으로 중앙 정부(특히 중소기업청)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이 청년창업(일반 창업 포함)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제주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려면 창업아이템이 다양하지 못함. 사실상,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상 주로 농·수산물과 관광 분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청년창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창업 실패에 따른 두려움이나 불안요소가 창업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음.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적 보장체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청년창업 이전에 청년들 대상의 진로지도 교육이 필요하고 창업 단계별로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이 필요함.

V.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우리나라의 청년문제는 여러 가지 분야(예, 사회참여, 일자리 및 고용, 주거, 여가문화 등)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청년들이 삶의 의욕과 희망을 상실하는 시대적 상황에 당면하게 됨.
-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취업하기에 힘들어 취업재수생의 급증,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확산, 고용불안 등이 사회정책의 주요 현안과제로 절실히 인식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경주해 오고 있고, 지자체들도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청년창업도 궁극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제주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7.4%에 이르고 있고,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창업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 국내외 청년창업 지원정책, 청년창업 지원 기관(단체)과 현장(협동조합)의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 등을 종합하여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그리고 국내외 사례 조사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과 대응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1. 정책방향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세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창업 활성화의 정책방향은 우선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교육훈련의 질적 개선, 창업의 사업화 연계 강화, 그리고 창업 재도전의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고자 함.

1) 창업기반의 조성

- 청년창업 기반조성은 청년들이 창업준비, 창업교육 및 보육, 그리고 사후관리 등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제도적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제도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창업 준비, 창업 그리고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평가하는 중간지원조직도 필요함.
- 그리고 창업교육과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기반들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교육훈련의 질적 개선

- 청년창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업교육과 훈련을 보다 철저히 시켜 준비를 잘 해야 창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됨.
- 기존에 도내 대학에서 다양한 청년창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창업교육 및 훈련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함.

-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 희망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해 나가려면 창업교육훈련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3) 창업의 사업화 연계 강화

- 청년창업가는 개인 차원에서 진로교육에서부터 창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이를 사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청년창업 희망자가 창업교육과 훈련만을 받고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사회적으로 손실임. 왜냐하면 청년창업가들이 기업가정신을 가져 창업하고 기업을 잘 지속·성장시켜 나갈 때 청년 일자리도 자연스레 창출되기 때문임. 그렇지 않은 청년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에 따른 비용이 소용이 없게 됨.
- 일단 청년창업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음.

4) 창업 재도전의 기회 제공

- 청년창업가는 기본적으로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사회경험의 부족, 치열한 시장경쟁 등으로 창업성공에 이르러 지속성장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항상 존재함.
- 따라서 청년창업이 실패할 경우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2. 추진전략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을 실현해 나갈 추진전략은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 창업 사업화와 투자회수 지원, 그리고 창업 재도전 보장과 정리 촉진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청년창업을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할 필요가 있음.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은 다양한 분야(제도, 인프라, 조직, 교육, 홍보 등)에서 대응전략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청년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과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청년창업의 모든 과정(창업준비 단계에서 정착 단계)에서 효율적·체계적 중간지원 조직이 있어서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함.
- 창업에 대한 각종 정보와 지식 습득, 기업가 정신 함양 및 경영능력 강화 등을 위해 창업교육이나 창업동아리 활동도 필요함.

2)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

- 청년창업 준비와 교육은 대학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졸업하여 일반 청년으로 사회에 있을 경우에 창업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음.
- 청년창업은 학교(고교, 대학)를 졸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하여 사회생활 경험을 쌓은 후 오히려 관심이 증대되곤 함. 대학 재학 중 혹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을 경영할 경우 창업실패 위험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고교 혹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중요함.

3) 창업 사업화 및 투자회수 지원 전략

- 청년창업 희망자가 창업교육을 받거나 창의적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를 실제로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창업자금 조달,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시장개척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청년창업 기업의 수익창출 구조를 가능한 빨리 만들어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청년창업가가 투자한 자금들은 주로 개인자금도 조달하겠지만 정부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대출받은 경우임.
- 정부 혹은 지자체가 청년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지만 이런 자금들은 회수하여 갚아야 할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갚는 것이 바람직함.

4) 창업 재도전 보장과 정리 촉진 전략

- 청년창업가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창업실패에 따른 대처도 해야 할 것임. 청년창업가 개인차원에서 창업실패를 감당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여 창업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청년창업 활성화 대응과제

- 제주지역이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청년기업의 지속성장 발전을 도모하여 제주청년의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데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가 앞서 제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과 전략을 연계시켜 구체적 정책 대응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도내 청년창업 관련 기관(단체) (대학, 지원조직 등)가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제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관련 국내외 정책지원 사업, 제주 청년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실증조사, 전문가 및 관계자(창업교육 및 보육, 지원조직, 협동조합 등) 의견, 연구진 아이디어 등을 종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검토하여 실천해 나갈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응과제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현재 제주에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2016. 6. 22. 제정)가 있음.
 - 이 조례에는 청년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음.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구체적 지원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특히 조례에는 청년창업 과정에서 창업 관련 절차 및 비용 절감 등 진입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항 삽입도 필요함.
- (가칭) 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제주지역의 기존 창업지원센터들은 도내 4개 대학에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보육기능을 담당하여 창업교육센터 혹은 창업보육센터로 남아 있음.
 -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창업 준비, 창업, 창업 후 관리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청년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함. 센터에서는 창업 관련 상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고 도내 대학의 창업 및 보육센터들과도 정보교류 및 사업 발굴에 공동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가칭)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가 청년창업 활성화의 허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도내 청년창업 관련 기관(단체) (행정, 대학, 민간조직, 협동조합 등) 간의 네트워크 연계체계를 구축함.
- (가칭)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는 창업희망 청년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제적 환경과 요인(해당 업종 시장의 규모와 시장성, 수익창출 구조, 자금조달 등)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임.
- (가칭)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가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들도 하지만 센터 내에 청년일자리 및 취업, 청년주거, 청년여가, 청년문화, 청년직업교육 등 청년문제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공간으로써 역할도 동시에 수행함.
- 서울특별시의 「청년일자리허브」 혹은 인도네시아의 「Hubud」(Hub in Ubud의 줄임말) 사례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청년허브센터

- 서울시청년허브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내 건물의 내부에 있음.
- 청년허브센터는 청년들이 마음 편히 놀고, 쉬고, 생각하고, 서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공간적 성격을 지님. 동시에 청년 일자리와 창업활동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청년들의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유 공간이고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커뮤니티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천 방안들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실천하는 공간임.
-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자립하기 위한 작업과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줌. 57개 청년그룹이 한 달에 10~20만원만 내면 입주 가능함.
 -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서 비치, 주말에 영화 감상 공간 컴퓨터 등이 있음.
 - 청년 모임에 필요한 비용(100만원)과 청년사업 활동 자금(1,000만원 씨앗자금)도 지원함.

- 청년허브센터 공간 내부에는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이 2013년에 입주하여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일자리허브도 이들 기관들과 연계 및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림 V-1> 서울혁신파크 입구 전경과 청년허브센터 내부 공간²³⁾

- 서울시는 청년허브센터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주거, 청년 생활안정 등 다양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청년활동 지원하는 다른 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²⁴⁾

□ 인도네시아 발리의 후붓(Hubud) 사례

- 후붓(Hubud)은 인도네시아 발리 섬(세계적 휴양 관광섬)에 있는 우붓 지역(Sacred Monkey Fores 공원 주변 거리)에 있는 순수 민간 기업임.
 - 후붓은 민간기업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익 창출보다는 장기 체류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소위 ‘착한기업’ 특성을 지니고 있음.

23)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com>) 2016년 7월 26일에 서울시 청년허브에 대한 소개 기사에서 사진을 캡처해 왔음을 밝힘.

24) “무중력지대”는 현재 2,5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대관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음.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8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

- 2015년 8월 현재 전체 직원은 공동창업자 3명, 그리고 일반 직원 8명 (현지 지역주민)으로 구성됨.
- 2015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60여개국 2,3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적극적 활동 회원은 250여 명임.
- 후붓은 400㎡ 규모에 20여 개의 세미나실, 6개 소회의실, Skype 부스 1개(영상통화), 인터넷, 프린터기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후붓 공간을 이용하는 층은 대개 발리에 체류하는 외국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서 후붓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개방되어 있음.
- 외국인과 발리 현지 주민들이 서로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 개인의 가치 실현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일(사업)을 창출하는 공유 공간 역할을 하고 있음 동시에 후붓을 찾는 방문객과 현지 주민들의 학습 체험 기회도 제공함.
- 후붓은 창업, 컴퓨터, 경영, 환경, 영상, 언어, 요리, 예술문화 등 매월 30개 내외 세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발리 지방정부로부터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 특히 청년들이 후붓 공간에 모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 교류하면서 혁신적 가치와 실천 전략들을 모색하면서 자신과 사회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청년들이 후붓 공간에서 학습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의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되고, 발리 현지 주민들에게 사회봉사(특히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 수리)도 하고 있음.



<그림 V-2> 후붓 기업의 전경과 참여자들의 일·휴식하는 모습

○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과 도내 대학들은 도내 언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차원에서 도내 언론사 혹은 방송사가 국내외뿐만 아니라 도내 청년들의 창업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함으로써 청년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더구나 청년 창업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공간 확보를 위한 ‘청년창업존’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도청, 행정시,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청년창업존’을 설치하여 청년 창업기업과 제품 홍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청년창업에 대한 열정과 교육 그리고 창업 실천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청소년기부터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양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설함.
- 정규 교과과정에서 보다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서 희망하는 초·중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창업동아리 활동·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 도내 대학에서도 창업동아리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창업의 아이템 발굴이나 사업화를 위한 현재의 지원으로 충분하지 않음.
- 그렇기 때문에 창업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실제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임.

○ 청년창업과 지역기반 가젤기업 육성의 연계²⁵⁾

- 가젤기업은 지역에서 일자리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주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친화적이므로 제조업에 취약한 제주지역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이 청년창업에 기여할 수 있음
- 가젤기업은 높은 혁신성과 지속적 고용창출을 특징으로 하는 연평균 20%의 매출 증가를 하는 기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절실히 필요한 기업임(박동·나영선 외., 2013: 79).
- 제주지역에도 이미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분야(특히 ICT)의 기업(예, 다음카카오, 넥슨, 이스트 소프트, 네오플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이들 기업과 청년창업과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청년기업을 가젤기업 육성과 연계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그리고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각각 ‘지역 맞춤형 청년창업 공간’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맞춤형 청년창업 공간’을 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창업희망 청년들이 지역산업과 ICT 기반 산업과 연계된 기업과 연계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 창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과제

○ 대학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제주도내에서 청년 창업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은 바로 도내 대학들임.
- 도내 대학에서 창업교육센터 혹은 창업보육센터에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개 정부 지원사업

25) 가젤기업은 ‘강하게 장기간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기업’으로 ‘지역산업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상위 10%의 기초자치단체’로 정의되고 있음(김정홍, 2013). 그래서 제주지역에도 가젤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과 청년창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에 의해서 운영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대학생들의 개인적 성향과 욕구, 전공분야, 사업아이템, 다양한 창업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필요함.
- 도내 대학의 창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센터(창업교육, 창업보육 등)들은 창업 관련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도전의식을 가진 창업희망 청년(대학생)들로 하여금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 창업교육은 단계별(기초 및 이론 교육, 창업준비 교육, 창업실습 교육)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임.

○ 학교 졸업 청년대상 창업지원 체계 구축

- 대부분의 창업희망 청년들은 학교(고교, 대학)에서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바로 창업하는데 위험 부담을 느껴 창업하기를 꺼려함.
-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험을 어느 정도 쌓고 난 후 창업을 시도하려고 함. 이때 창업희망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교육, 상담 및 관리할 수 있는 기관(예, 청년통합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물론 현재 대학들도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특성별 창업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졸업 후 청년창업 희망자들이 창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함.

○ 창업아이템 발굴 강화 및 아이템 DB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아이템 기술개발원에 지원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 창업아이템 개발을 장려하고 있음.

- 그러나 창의적 창업 아이템 개발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 희망자들이 실제로 사업화 단계로 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아이템 개발을 장려하고 가장 경쟁력 있고 성공 가능성이 많은 아이템 선택이 중요함.
- 청년창업 희망자가 창업아이템을 최종 결정하지만 그러한 결정과정에서 멘토와 성공한 청년창업가 등의 조언과 자문이 필요함.
- 다양한 창업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수집 및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창업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자 교육의 질적 개선과 멘토링 상시화

- 청년창업자들 자신들이 창업 활동에 적극 매진하고 노력하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질적 개선과 지속적 멘토링을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국제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6~14).
 - ① 창업의 목적을 공익성, 본인의 꿈, 신념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② 창업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
 - ③ 청년 창업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함.
 - ④ 정부 혹은 지자체의 창업지원 정책을 활용하도록 함.
 - ⑤ 창업하기 전에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도록 함.
 - ⑥ 청년창업가로 하여금 특유의 패기와 열정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도록 함.
 - ⑦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기본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도록 함.
 - ⑧ 청년창업가들로 하여금 평소 사람 됨됨이와 인격적 성숙성을 갖도록 함.
- 청년창업가들에게 사회적 가치, 인성,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 대한 보다 인문학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래서 강의뿐만 아니라 멘토링

을 상시화하여 청년창업가들의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창업 관련 정규교과목 개설 확대를 통한 창업교육 강화

- 대학의 재학생 창업을 촉진하는데 창업 관련 정규교과목 개설을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창업환경, 청년창업가 및 기업가 육성, 청년창업준비과정 등 전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제주한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2014), 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으로 대학이 창업 관련 정규교과목 개설 확대를 통한 창업교육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됨.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분야 창업 훈련 프로그램 발굴

- 제주지역은 핵심산업이 농업과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식품융합산업, 증강현실 활용 관광, 농촌관광 등) 육성이 필요함.
-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금융산업, 교육서비스 산업, 관광서비스 산업, 의료서비스 산업, 문화서비스 산업, IT서비스 산업 등)과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업종을 접목시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박동·나영선 외., 2013: 80).
- 특히 제주지역은 관광산업과 연계된 MICE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국제회의, 전시, 숙박 등)이 좋으므로 MICE 산업 관련 맞춤형 청년층 창업훈련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 도내 청년들의 MICE 산업 관련 창업훈련 수요에 맞추어 동시에 ICT 융합 프로그램 재교육도 필요함.

○ 스펙초월 도전형 창업인재 육성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험부담은 있으나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엔젤투자가 가능한 ‘도전형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박동·나영선 외., 2013: 78).

-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이 학벌이 아닌 능력, 창의력으로 창의적 일로 성공하여 대우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에서 (가칭)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 지역 맞춤형 청년창업 공간, 혹은 제주도내 대학에서 현실적 실용형 보다는 ‘도전형’ 창업인재를 길러내는데 힘써야 할 것임.

3)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투자회수 대응과제

○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체계 구축

- 개인자금이나 자산이 없는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은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창업자금의 지원 확보 방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창업아이템, 창업계획서, 창업자의 개성 및 경영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청년창업의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종합적 심의·평가를 담당하여 창업성공 가능성이 많은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가들은 정부로부터 창업자금 지원결정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

○ 창업교육 수료생 대상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 청년창업 희망자가 창업 준비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초기 창업자금 확보임.
- 창업교육 수료생에게 제공되는 자금지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성공정착 자금 특례보증제도는 모두 창업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우수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가진 청년 미창업자를 지원하여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창업 준비과정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지원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이국용·권나래, 2011: 103).
- 이런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지역차원에서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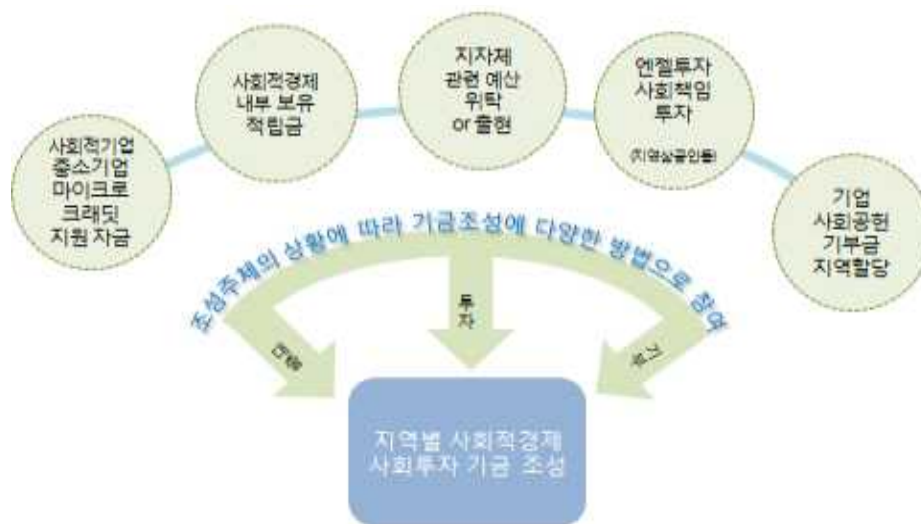
○ (가칭)제주청년창업기금 조성 사업 추진

-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자금 마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항이기도 함.
- 제주지역의 경제적 여건상 민간부문에서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청년창업 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여 대출, 투자, 기부 방식으로 기금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사례

- 서울시가 사회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의 협력으로 총 1,000억원을 조성하여 일자리 복지·환경·문화 등 취약한 사회문제 개선, 지역발전과 시민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음.
- 투자·융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선순환시켜 장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의 재정부담 없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금임.
- 사회투자기금은 대안금융의 성격을 지녀 시민복리 증진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기금 조성 방법은 민관협치에 바탕을 두었음.
-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자금, 사회적경제 내부 보유 적립금, 지자체 관련 예산 위탁 혹은 출현금, 엔젤투자, 사회책임투자, 기업 사회공헌기부금 등에 의해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 구성된 사회투자기업은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배려기업들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음.
- 사회적 배려기업은 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익 비영리 단체 등이며 이들에 대한 투자와 용자가 사회투자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V-3>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조성 주체와 참여 방법

- 창업자금 확보를 위해 엔젤 투자 활용 및 연계 강화
- 제주지역의 청년창업가들은 창업자금 확보를 위해 엔젤캐피탈 회사 혹은 엔젤캐피탈 자본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왜냐하면 정부에서 엔젤투자지원제도가 개선하지 않고서는 엔젤투자가 수익성이 낮은 청년창업 기업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 엔젤투자 회사들에 대한 여러 혜택(세액공제, 소득공제금액 확대 등)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²⁶⁾을 통해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

26) 일본처럼 엔젤투자금액의 일정액(예: 상한 3,000만원) 또는 총소득금액의 4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를 한다거나 소득공제 대상을 벤처기업 및 회사 설립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양현봉·박종복, 2011: 131).

확보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 틀을 만드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됨.

- (가칭)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이 청년창업가들이 엔젤캐피탈 회사 혹은 캐피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기업의 투자회수 계획 수립 및 지원

- 청년창업가는 창업 이후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필요함. 왜냐하면 투자금이 대부분 정책자금 지원에 의한 대출이거나 금융기관(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상환해야 함.
- 만일 창업기업이 수익창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창업실패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의 법정관리 혹은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음.
- 그렇기 때문에 창업 후 7년 동안 단계별로 투자회수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지속적 경영컨설팅과 상담을 받고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청년몰(Mall) 조성 사업

- 청년창업 기업이 창업 초기에 생산제품을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어려움이 있음. 시장에서 기존 제품들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거나 판매 및 홍보 전략을 아주 성공적으로 할 때만이 가능함.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창업 기업들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임.
-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도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청년창업 제품들이 진열되어 판매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청년몰(Mall)’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특히 도청, 행정시청)의 현관 입구에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처럼 청년창업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도 전시할 수 있도록 함.

4) 창업 재도전 보장과 정리 촉진을 위한 대응과제

○ 청년창업 재도전 보장제도 도입

- 청년창업가들은 창업 후 개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게 될 경우가 많음.
- 특히 창업자금의 손실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자 혹은 개인 파산자 등으로 전락하게 되어 삶 자체를 어렵게 하는 극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창업 실패한 청년창업가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아주 중요함.
- 실패한 청년창업가가 재도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면책 범위를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임.
-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 실패에 따른 면책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²⁷⁾

○ 창업실패에 따른 자산정리 촉진 프로그램 운영

-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실패에 이르는 동안 개인 스스로 고통을 갖지 말고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 청년창업가가 창업실패가 가져 올 결과를 감당할 경제적 부담이나 정신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여 잠적하거나 혹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 경영컨설팅의 상시화가 필요함.
- 창업실패가 확실시 되면 자산정리 촉진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가능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함.

27) 영국의 신도산법(Insolvency Act)에 따르면 압류면제 재산범위는 ① 파산신청인의 취업, 사업 또는 직업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차량, 책, 도구 및 기타 장비, ② 파산신청인 및 가족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침대, 가구, 의복, 가정용 기기 및 기타 기본 항목, ③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위탁) 중인 자산이며, 파산신청자의 주택, 연금, 생명보험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도 (가칭)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이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업 유경험 청년층 대상의 청년창업 도전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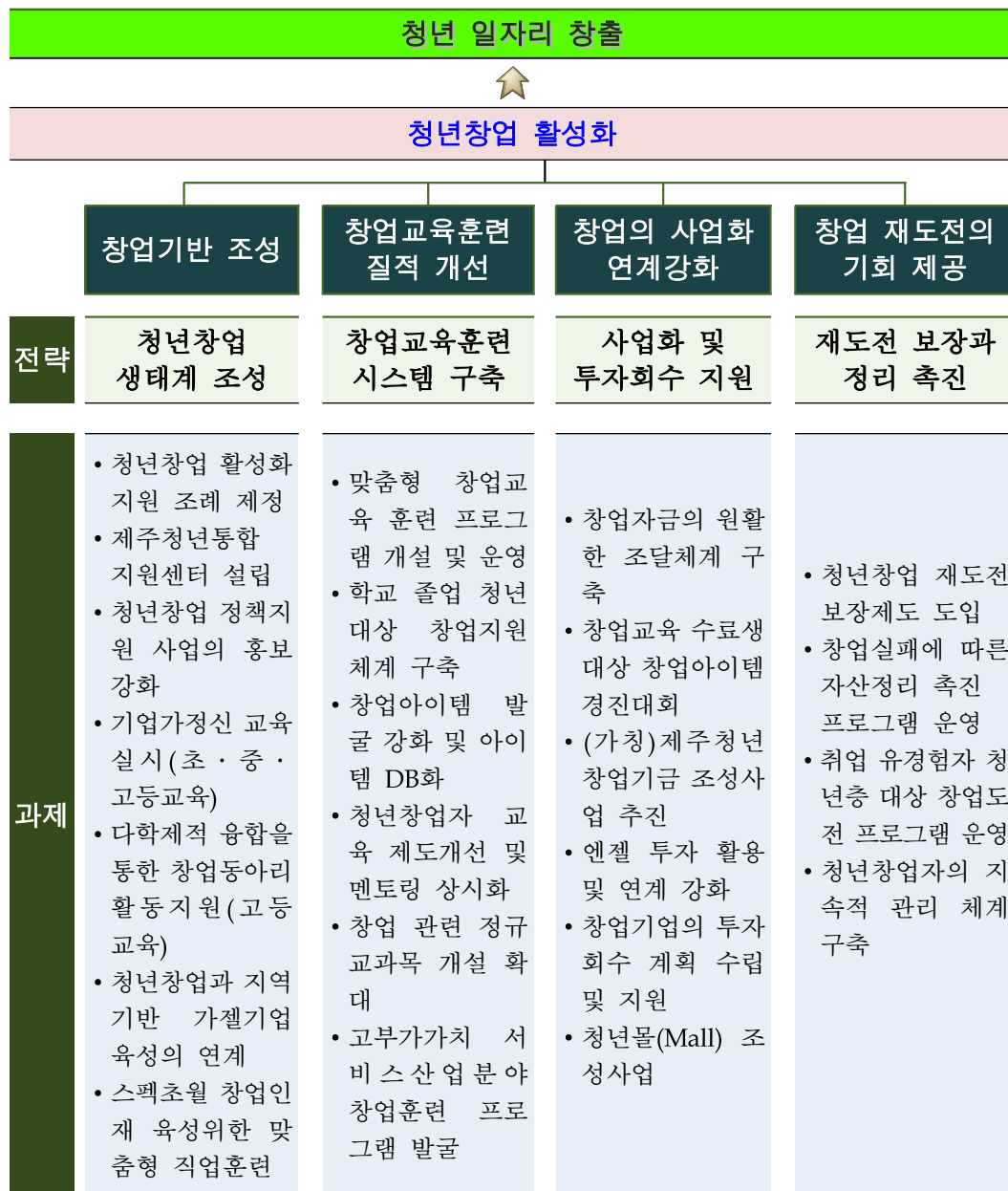
- 다수의 청년들은 일단 취업하여 사회경험을 쌓고, 아울러 어느 정도의 개인 자금을 마련한 후 창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가칭)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 혹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취업 유경험자 청년들 가운데 창업 희망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창업 준비, 창업아이템 선정, 창업자금조달, 창업교육 등)을 운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자의 지속관리 체계 구축

- 청년창업자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 창업을 하여 새로운 청년창업희망자들의 교훈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러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크(예, 청년창업협동조합, 청년창업자협의회 등)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정보 교류와 DB 구축을 하여 청년창업가들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의 제주지역의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런 측면에서, 제주지역에서도 ‘청년창업자 멘토링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방향, 전략 및 과제 도식화

- 지금까지 앞서 논의하고 제안한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전략 그리고 대응과제들이 <그림 V-4>에 도식화되어 있음.



<그림 V-4>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방향

5. 주체별 · 시기별 추진 로드맵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청년 일자리 및 고용창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예산범위, 제도의 구조적 특성, 인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적정 추진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하였음(표 V-1. 참고>.²⁸⁾
- 추진주체의 설정은 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 추진 시기는 단기, 중 · 장기 등 2단계로 구분하여 향후 5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추진시기 구분은 단기는 2017~2018년, 중 · 장기는 2019~2021년까지 혹은 2022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응과제에 따른 단기사업은 1~2년 내에 단기간에 추진해야 할 유형이고, 중 · 장기사업은 3~5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데 단계적 준비, 사회적 합의, 그리고 예산 부문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류됨.
 - 향후 단기와 중 · 장기 정책 대응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와 추진 시기는 변화 가능할 수 있음.

28) <표 V-1>은 본 연구의 정책과제별 주요사업 유형과 추진주체, 그리고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직관적 성찰에 의해서 정리 · 작성되었음을 밝혀둠.

<표 V-1>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대응과제 실천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구 분	주요 사업	추진주체	추진시기	
			단기	중·장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과제	•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엔젤투자 활용 및 연계 강화	중앙정부		
	- 엔젤투자지원제도의 개선(세액공제, 소득공제액 확대 등)	〃		
	• 창업기업의 투자회수 계획 수립 및 지원	중앙정부		
	• 청년창업 제도전 보장제도 도입	중앙정부		
	- 면책범위 기준과 면책재산 범위 마련	〃		
	• 창업실패에 따른 자산정리 촉진 프로그램 운영	중앙정부		
	• 청년창업자의 지속관리 체계 구축	중앙정부		
	- 청년창업자 멘토링 지원사업	〃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과제	•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 (가칭)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창업 정책지원 사업의 홍보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창업과 지역기반 가젤기업 육성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 스펙조월 창업인재 육성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 학교 졸업 청년대상 창업지원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분야 창업훈련 프로그램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 창업교육 수료생 대상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제주특별자치도		
	• (가칭) 제주청년창업기금 조성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몰(Mall) 조성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 취업유경험자 청년층 대상 창업도전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대학 차원의 정책 대응과제	• 다학제적 융합을 통한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고등교육)	도내 대학교		
	• 맞춤형 창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도내 대학교		
도내 대학차원의 정책 대응과제	• 창업아이템 발굴 강화 및 아이템 DB화	도내 대학교		
	• 청년창업가 교육 제도개선 및 멘토링 상시화	도내 대학교		
	• 창업 관련 정규교과목 개설 확대	도내 대학교		
교육행정 기관 차원의 정책 대응과제	• 기업가정신 교육실시 (초·중·고등교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Ⅵ. 결론 및 제언

-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에게 취업기회 증대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 국내 경제성장률이 거의 2~3%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청년들의 취업욕구 충족시켜 줄 만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임.
- 그런 차원에서 청년창업은 성장과 청년 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매개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래서 정부의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들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특히 창업교육,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들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원 하에 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이 활성화되어 청년창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 성공을 거두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있음.
- 그래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청년창업의 현실, 청년창업 지원정책, 청년창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향후 청년창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만39세 이하의 청년 220명과 청년창업 기업 3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의 동기, 창업의 결정요인, 창업활동의 애로사항,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일반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음.

- 청년창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지역의 창업교육과 창업보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제주지역 청년창업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음.
- 본 연구는 국내외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과 제주지역의 청년창업에 대한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와 청년창업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그리고 대응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향은 크게 창업기반의 조성, 교육훈련의 질적 개선, 창업의 사업화 연계 강화, 창업 제도전의 기회 제공으로 제시하였음.
 -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은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 교육훈련 생태계 구축, 창업 사업화 및 투자회수 지원 전략, 창업 제도전 보장과 정리 촉진에 두었음.
 - 셋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과제는 제시된 전략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사업으로 제시되었음.
- 제주지역에서 앞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위해 제시된 정책 대응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응과제로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칭)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도입, 창업동아지 활동·운영 지원 강화, 청년창업과 지역기반 가젤기업 육성의 연계 등임.
 - 창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과제에는 대학의 맞춤형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졸업 청년대상 창업지원 체계 구축, 창업아이템 발굴 강화 및 아이템 DB화, 청년창업자 교육의 질적 개선과 멘토링 상시화, 창업 관련 정규교과목 개설 확대를 통한 창업

교육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분야 창업 훈련 프로그램 발굴, 스펙초월 도전형 창업인재 육성 사업이 제시됨.

-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투자회수 대응과제로는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체계 구축, 창업교육 수료생 대상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가칭)제주청년창업기금 조성 사업 추진, 창업자금 확보를 위해 엔젤투자 활용 및 연계 강화가 제시되었음.
 - 창업 재도전 보장과 정리 촉진을 위한 대응과제에는 청년창업 재도전 보장제도 도입, 창업실패에 따른 자산정리 촉진 프로그램 운영, 취업 유경험 청년층 대상의 청년창업 도전 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자의 지속관리 체계 구축이 있음.
- 이처럼 연구결과로 제시된 제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정책 대응 과제들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함. 따라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의 대응과제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대응과제들 가운데 전략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밀히 검토하여 단·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추진하는데 정부 사업의 의존성을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적·능동적 접근과 책임있는 행정적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청년창업과 청년문제 해결하는데 행정지원이나 정책적 사업 추진만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부문(대학, 공공기관, 청년창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창업보육센터제주지역협의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아울러 청년창업 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 등과도 활발한 논의와 협력 활동도 필요함.
 - 넷째,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내 대학들의 역할이 중요함. 도내 대학들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의지와 실천이 필요함.

- 다섯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 대응과제들이 제대로 정책화되어 청년 일자리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과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 예컨대, (가칭)제주청년창업기금 조성 사업 추진에는 도민 공감대가 우선 필요함.
-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정책 대응과제들 가운데 우선 행정이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청년창업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제주청년통합지원센터, 청년몰(Mall) 조성 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창업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기업들이 많이 생겨나 제주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참고문헌

- 고승한 외(201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고용정책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 김영진 · 박기임 외(2014), “청년 창업가의 성공 DNA를 찾아라.”,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 13(58): 6~14.
- 김정홍(2013), “일자리 창출 상위 10% 기업 및 지역의 특성 분석”, 「창조경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6), 「2016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
- 매일경제신문, 2016년 3월 7일.
- 박동 외(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나영선·김현수 외(2013), 「기업가적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직업교육 훈련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박천수·이종선(2014),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천수·김수진·박동(2013),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울특별시(2015a),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 서울특별시(2015b), 「2020 서울형 청년보장」.
- 양현봉 · 박종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이국용·권나래(2011), 「전라북도 청년창업자의 지속관리」, 전북발전연구원.
- 이규용(2015),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월간 노동리뷰」, 2015년 7월호, pp.15-30.
- 이민화(2011), “창업 활성화 전략”, 산업연구원 「청년창업포럼 발표자료」(2011. 12. 15).
- 임채운(2011), “청년창업 생태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청년창업 발표자료」(2011. 6. 21).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2016), 「내부자료」, 각 년도.

제주한라대학교 창업교육센터(2014), 「재학생 창업의식 조사」.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2016), 「내부자료」, 각 년도.
통계청(2011),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2016), 2016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신설법인 동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창업기업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5), 「대학 창업교육 운영 매뉴얼 2.0」.

<참고 사이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종합성과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linc.nrf.re.kr>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홈페이지 <http://www.social-investment.kr>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 <http://www.youthhub.kr>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 <http://www.law.go.kr>
「중소기업창업지원법」 <http://www.law.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http://www.law.go.kr>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
호남통계청 <http://kostat.go.kr>
K-startup 홈페이지 <http://www.k-startup.go.kr>

<부록 1>

중앙정부의 청년창업 정책 현황

단계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내용	예산 (2016년)
<1단계> 교육훈련	창업아카데미 (1~3단계)	중소 기업청	신청 대상은 대학생과 창업 후 1년 이내의 창업자를 포함한 예비창업자임. 지원 내용은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지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 창업교육이며, 교육내용은 창업 일반 및 실무, 사업계획서, 실전창업 및 연합과정임	101억 원
	창업대학원 (1단계)		권역별 5개 대학별 30명 내외로 지원.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은 강의 35%와 실습 65%로 운영되며, 연간 600시간 이상 진행	9억 원
	YES 리더스 특강		성공 중소기업의 대표로 구성된 600여명의 YES 리더가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창업도전 사례, 기업경영철학전략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창업정신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작	
	LINC 사업 (1~3단계)	교육부	대학이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 창업교육 및 지원,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 발전 선도	2,360억 원
<2단계> 아이디어 창출	도전! K-스타트업 2016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중소기업청	성공잠재력을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를 효과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전국적인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 각 부처별로 운영하던 창업 경진 대회를 연계하여 최상위 대회로 통합한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중소기업청은 지난 '14년부터 전국단위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운영해 온 미래부와 중기청 이외에도 교육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여 「도전! K-스타트업 2016」이라는 통합 브랜드 하에 각 부처별 예선리그 대회를 통해 우수 창업자(100여개팀)를 발굴.	상금 10.8억원
<3단계> 사업화 및 사업 확장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1~3단계)	중소기업청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키고자 함.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신청대상은 3년 미만 창업기업임. 지원내용은 자금 3천만원, 서비스 2천만원(멘토링, 엔셀러레이팅)임.	300억 원
	창업선도대학 (1~3단계)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평균 38백만원)임.	

단계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내용	예산 (2016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임. 신청대상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창업후 3년(신청·접수일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로서, 단, 기술경력보유자는 신청·접수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후 3년이하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임. 지원내용은 개발자금(총 사업비 70%, 1억 이내 보조금), 창업공간(창업 사무실, 제품 개발실 등), 창업교육(기업가 정신, 창업실무역량), 전담코칭(31명 전문가, 1:1 전담코칭), 연계지원(정책옹호, 투자, 마케팅, 입지 등)임.	260억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글로벌 창업진출 지원’과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을 시행. ‘글로벌 창업진출 지원’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미국, 중국 등 현지 및 국내 창업교육·현지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코칭하고, 성공적 글로벌 창업·진출을 제고.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은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대상 국내 기술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함. 글로벌 창업진출 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해외 현지진출 창업팀의 창업의지 제고를 위한 혁신교육, 현지 창업연수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국내·외 투자 유치 기회 제공이며, 지원 조건은 팀단위로 신청하되 팀원 중 1인은 영어 또는 현지어 능통자여야 함.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창업초기 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활동비), 창업공간 및 창업비자 취득에 필요한 교육 등을 제공.	53억원
	글로벌시장형 창업 R&D 사업		글로벌 시장형 창업 R&D 사업은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전문엔젤투자사(운영기관)를 통해 창업 보육 및 투자, R&D를 일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지원프로그램임.	3,428억원 (2014-2018)
	선도벤처 연계기술창업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지원 사업은 선도벤처기업의 성공노하우 전수와 (예비)창업자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성공 창업 유도 및 미래의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70억원

단계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내용	예산 (2016년)
	창업기업지원 자금		지원 대상별로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 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됨. 일반창업기업지원 의 대상자는 사업 개시일로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이며, 청년전용창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 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미만(신청·접수 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임. 대출 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 분됨.	1조 4,500억 원 (융자)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와 신규로 창 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임. 지원내용은 총 비용의 80%이내(지원 유형별 로 상이)에서 창업보육 센터의 노후시설개선 등 리모델링의 소요비용을 지원.	
	1인 창조기업/ 컨설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46억원), 중소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125억원), 스마트 창작 터(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유망지식서비스분 야 창업지원, 119억원)	290억원
	K-Global 프로젝트	미래창조과학부	잠재력 높은 ICT 기반 우수 기술창업가·벤 처기업·재도전기업인 등을 선발하여 창업, 성장, 해외진출 등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 을 통해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ICT분야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목적	1,092억원
	게임벤처 3.0 육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지식, 기술을 보유 한 우수 인력을 발굴하여 차세대 게임개발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운영	-
<4단계> 제도전	중소기업 재창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성실한 실패 기업인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창업자금 등 을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요건은 재창 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 부터 7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임. 지원범위는 사 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이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10억 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의 운전자금은 7억원) 이며,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회 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 억원)임.	-

단계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내용	예산 (2016년)
	재기지원사업		<p>재기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첫째, 사전부실예방컨설팅은 지원기관은 지방중기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며, 지원내용은 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및 구조개선을 지원. 둘째, 진로제시컨설팅의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지원내용은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구조개선, 기업회생, 사업정리 등)을 제시하고 연계지원 방안을 안내. 셋째, 회생컨설팅의 지원내용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는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임. 넷째,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은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제품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며, 7대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p>	-

〈부록 2〉

광역시방자치단체의 청년창업 정책 현황

구분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서울에 집적된 우수 기관과 인력 등을 활 용하여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창의인 재 양성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대학생 이상의 취업 대상 자	· 지원내용 -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의 허브 및 프로그램 인큐베이션 - 창조아카데미 운영: 대학에 서울의 특화산업 및 유망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최우선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 캠퍼스 CEO 육성: 대학에 창업교육과정을 개 설하여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역량 강화 - 미래형 신직업군 창출: 미래사회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유망직업 발굴 - 서울커뮤니티크리에이터 양성: 창의적 관점에 서 도시문제 해결방안 모색 - 청소년 생각배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는 인재 양성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 업자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지 원을 통해 우 수 창업가 양 성 및 혁신형 창업기업 창출	20~30대 (예비)청 년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교육·컨설팅, 자금, 투자, 유통·마케팅 · 지원방향 - 창업 이행단계별 선별 및 맞춤형 지원 · 창업준비 <table border="1"><tr><td>창업회원제 3,000명 모집·지원</td><td>▶</td><td>(창업숙성) 성공가능 창업자 500팀 선발(3개월간 지원)</td><td>▶</td><td>(창업실행) 우수창업가 250팀 (1년간 지원)</td></tr></table>	창업회원제 3,000명 모집·지원	▶	(창업숙성) 성공가능 창업자 500팀 선발(3개월간 지원)	▶	(창업실행) 우수창업가 250팀 (1년간 지원)
	창업회원제 3,000명 모집·지원	▶	(창업숙성) 성공가능 창업자 500팀 선발(3개월간 지원)	▶	(창업실행) 우수창업가 250팀 (1년간 지원)				
서울 앱비즈니스 센터	스마트기기 확 산으로 모바일 앱산업이 IT성 장동력 및 일 자리 창출 대 안으로 부상함 에 따라 앱 개 발자 양성과 1 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앱관련 창업준비자 또는 3년 이내 창업 자	6개월 간 입주개발실, 테스트베드(가상실험), 교육 장 제공						

구분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부산광역시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부산광역시 주민 등록자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자 ·예비창업자 또는 2015.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신청분야 <table><tr><th>분야</th><th>MICE</th><th>ICT</th><th>제조</th><th>전문 서비스</th><th>기타</th></tr><tr><td>업종</td><td>전시, 컨벤션 관광, 회의</td><td>앱·웹개발, 게임, 영화, 영상, 미디어 등</td><td>기술, 일반, 패션 수공업, 식품 등</td><td>교육, 문화, 홍보, 출판, 컨설팅, 정보서비스 등</td><td>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유통 등</td></tr></table> *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업, 단순 도·소매업 등 자영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사무공간 지원, 창업교육 및 전문가 창업컨설팅 - 사업화자금 및 정책융자지원(창업특례자금), 네트워크 지원 등 - 판로개척지원(전시회 참가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웹매거진 제작 배포 등)	분야	MICE	ICT	제조	전문 서비스	기타	업종	전시, 컨벤션 관광, 회의	앱·웹개발, 게임, 영화, 영상, 미디어 등	기술, 일반, 패션 수공업, 식품 등	교육, 문화, 홍보, 출판, 컨설팅, 정보서비스 등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유통 등
	분야	MICE	ICT	제조	전문 서비스	기타										
업종	전시, 컨벤션 관광, 회의	앱·웹개발, 게임, 영화, 영상, 미디어 등	기술, 일반, 패션 수공업, 식품 등	교육, 문화, 홍보, 출판, 컨설팅, 정보서비스 등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유통 등											
부산 모바일앱 센터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창업 활동 지원 · 클라우드 시스템 및 테스트베드(가상실험) 제공 등 모바일 앱 개발 환경 지원 · 모바일 앱 개발 전문교육 실시 및 창업 활성화 교육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모바일 앱 분야 예비창업자(개발자, 기업, 학생 등)	·지원내용 - 모바일앱 개발 전문인력 양성 - 모바일앱 창업 멘토링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 모바일앱 개발환경 무상 지원 및 모바일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사업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창업 성공률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화 가능한 아이템을 가진 대구시 거주 만15~39세 청년	·모집분야 - S/W, 문화콘텐츠, 디자인, 교육, 지식서비스 등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지급 : 평가등급에 따라 5~8백만원 차등 지원 - 창업공간 지원 : 창업공간 및 회의실, 공용사무집기 제공 -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제작 지원 등												

구분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광주광역시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	기업가적 마인드 를 가진 지역 청년들의 성공 가능한 아이템 이 창업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창업기회 제공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창업 희망자 (광주거주)	·지원내용 - 창업준비실, 공동 작업공간, 회의실 등 무상 제공 - 창업지원 정보제공, 창업활동 단계별 교육(경 영·회계·세무·특허 등), - 우수벤처기업 탐방, 창업대전(박람회) 참가 지 원, 성과교류 워크숍 등 ·지원금액 - 아이템 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무상지원 * 평가에 의해 차등지원(기술창업 35백만원, 일반창업 25백만원) ·지원업종 - 제조업, 지식콘텐츠 등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분야 * 당초(4개분야) : 문화, 정보, 환경, 생명 * 확대(10개분야) : 광, 정보가전, 자동차, 디자인, 금형, 3D 분야 추가
	찾아가는 청년 취업 라운드테 이블	청년취업 애로 사항 청취, 취 업지원 시책과 구인기업 정보 제공 등을 통 한 청년 취·창 업 지원	청년 다중 집합장 소 순회(청년센터, 대학 등)	·지원내용 - 취·창업 애로사항 청취 및 성공사례 공유 - 미래의 인재상,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 등 강연 - 취업지원 시책 및 구인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알선 등
대전광역시	맞춤형 청년창 업 생태계 조성 사업	창업 초기기업 들에게 체계적 인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생태 계 구축, 일자 리창출 및 지 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학생, 청년 등 예 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 - (대학창업) 관 내 대학(원)생 및 졸업 후 1 년 이내인 자 - (청년창업) 관 내 지역에 주 소를 두고 있 는 만 20-39세 이하인 자 - (창업초기기업) 관내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 기 사업자	·지원내용 - 초기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 - 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전문 멘토링 - 창업 후 성장을 위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 발 등 후속지원

구분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울산광역시	청년CEO 육성사업	·청년실업극복 일환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도전의식 함양과 창업 기회 제공 ·창업관련 교육 및 절차 등에 관한 노하우 축적과 경험 획득 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만 18세~39세,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요건 - 기술·창조창업 분야여야 하며, 단순 요식·숙박업·카지노 등 사행산업과 금융·부동산 등의 사업분야 제외 <table><tr><th>분야</th><th>업종</th></tr><tr><td>기술</td><td>IT,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td></tr><tr><td>창조</td><td>지식콘텐츠, 출판, 음악, 미술, 골동품, 영화/비디오, 라디오/텔레비전, 공연, 광고홍보, 요리, 디자인, 패션, 건축, 스포츠, 농업 기타 융합 아이디어 창업 등</td></tr></table> ·지원내용 및 기간 - 창업공간 및 집기 제공, 교육·컨설팅 및 창업활동비(월 30만원~100만원 차등 지원/ 9개월) 지원, 오프라인 매장 운영	분야	업종	기술	IT,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창조	지식콘텐츠, 출판, 음악, 미술, 골동품, 영화/비디오, 라디오/텔레비전, 공연, 광고홍보, 요리, 디자인, 패션, 건축, 스포츠, 농업 기타 융합 아이디어 창업 등
	분야	업종								
	기술	IT,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창조	지식콘텐츠, 출판, 음악, 미술, 골동품, 영화/비디오, 라디오/텔레비전, 공연, 광고홍보, 요리, 디자인, 패션, 건축, 스포츠, 농업 기타 융합 아이디어 창업 등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울산청년CEO 육성사업’ 수료자 및 지역 내 초기창업자를 위한 지식기술 분야 창업자 계속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경영 활동 지원 ·창업보육관련 인프라 활용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창업 활성화 지원	·만 18세~39세(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청년CEO 육성사업’ 과정 수료자 우대, 기타 우수기술보유자	·지원요건 - 창업분야 및 업종 <table><tr><th>분야</th><th>업종</th></tr><tr><td>지식창업</td><td>게임개발업, IT기술융합디자인, 방송영상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지식컨텐츠, 게임프로그래머, 방송·극작가, 출판기획자, 교육컨설턴트, 번역·웹디자이너, 1인지식서비스-프리랜서, 아이디어 상품 기획제작, 패션업, 실버산업 기획자 등</td></tr><tr><td>기술창업</td><td>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에너지 진단, 배출권거래산정, 풍력, 태양열기술 등</td></tr></table> ·지원내용 - 창업공간 제공, 교육·컨설팅 및 사업화 중점 지원	분야	업종	지식창업	게임개발업, IT기술융합디자인, 방송영상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지식컨텐츠, 게임프로그래머, 방송·극작가, 출판기획자, 교육컨설턴트, 번역·웹디자이너, 1인지식서비스-프리랜서, 아이디어 상품 기획제작, 패션업, 실버산업 기획자 등	기술창업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에너지 진단, 배출권거래산정, 풍력, 태양열기술 등	
분야	업종									
지식창업	게임개발업, IT기술융합디자인, 방송영상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지식컨텐츠, 게임프로그래머, 방송·극작가, 출판기획자, 교육컨설턴트, 번역·웹디자이너, 1인지식서비스-프리랜서, 아이디어 상품 기획제작, 패션업, 실버산업 기획자 등									
기술창업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에너지 진단, 배출권거래산정, 풍력, 태양열기술 등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유망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창업스타기업’으로 집중 지원하여 고용과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	·지역 유망 창업기업 5개사 - 지역내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및 연구개발 완료기업 - 유망중소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창업스타기업 선정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지원 전략 수립 - 창업유형별·단계별 지원, 네트워킹 활성화							

구분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톡톡팩토리(제조업 창업공간)	냄새, 소음, 먼지를 유발하는 제조업종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종 분야의 창업 사업화 지원	·울산지역 청년창업자 중 제조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아이템 및 시장 보유자, 3인 이내 고용가능한 기업) - 모집대상 : 5개 팀 내외 - 지원요건 : 제조업 분야 창업업체	·지원내용: 제조공간 제공, 시설비·마케팅·재료비 지원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 지원인력 : 연구원 2인
세종특별자치시	창업보육 지원 사업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지원 및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통해 창업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예비창업자 창업 촉진 도모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2개 센터)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	·지원내용 및 기간 - 입주기업의 사업화지원(특허출원,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 연중) - 창업경진대회 개최(연1회) - 창업강좌 개설(상·하반기 각 1회)
경기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G-베이스캠프)과 창업교육 및 교류·협업 및 네트워크 등 지원	창업에 관심있는 모두	·지원내용 및 기간 - 경험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교류·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창업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제공
	창업프로젝트	창업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가능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하여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 기술·경영컨설팅, BI 입주비용, 창업 교육, 특허 등록비용, 각종 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1기업당 1,500만원 / 혁신형 기술 4,500만원 한도)

구분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경기북부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청년의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 청년 일자 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경 기북부 문화예 술 활성화	경기북부에 거주중 이면서 지역 문화예 술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 문화 예술 분야에서 경기 북부를 기반으로 활 동할 계획이 있는 만 19~39세 청년	·지원내용 및 기간 - 경기북부 청년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2016. 3월 ~ 5월) * 문화예술분야 청년멘토의 멘토링 및 실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10주간의 강의 로 30명의 청년 지역문화기획인력 양성. - 경기북부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016. 6월 ~ 10월) *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받은 청년이 직접 기 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문화예술행 정 및 현장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북부를 소재로 한 프로젝트 우선 선발. -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2016. 8월 ~ 11월) * 청년문화기획자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아시아 국가와 경기북부간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교류 프로 그램. 청년이 직접 기획한 사업을 심사를 거쳐 선발 및 지원. - 청년 문화 창업 지원사업(2016. 3월 ~ 10월) * 2015년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수료자 의 창업활동 지원. 창업을 통해 경기북부의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청년문화 예술 거점 마련
	창업기업 글로 벌사업화 사업	전문 엑셀러레 이터를 통해 우 수한 기술력 및 사업성을 갖춘 창업 기업을 발 굴하여 투자유 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해외시장 진출이 가 능한 우수한 창업기 업과 이를 성장·육 성시킬 능력과 네트 워킹을 보유한 민간 엑셀러레이터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 - 아이템 검증·보완·보육, 투자 유치 등 지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사업	혁신적 아이디 어를 보유한 도 내 대학(원)생 이 창업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차세대융합기 술원의 인프라 를 활용하여 창 업을 지원	도내 대학(원)생 또 는 거주 대학(원)생 10개팀 선정	·지원내용 및 기간 - 차세대융합기술원의 공간 및 장비, 회의실 등 인프라 활용을 지원 - 시제품제작, 디자인개발, 컨설팅, 멘토링, 인 력(인턴) 등 지원

구분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청년 해외 역지구 창업 지원 사업	e-커머스(전자상거래) 분야의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가 유도	e-커머스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 소재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중 공모를 통해 10개팀 선정	·지원내용 및 기간 - 해외 역지구 e-커머스 사업에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희망자(10팀)에 대한 선발·교육 후 전자상거래 활동지원 - 창업자금 지원(법인설립, 세무, 쇼룸물 입점 등), 사업역량 강화(기본교육, 전문멘토링, 컨설팅 등), 사무공간 제공(G-베이스캠프) - 자금지원 : 팀당 최대 5천만원 한도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 금리 1%대, 신용보증)
	경기문화창조허브	수요자 중심 창업 소주기 지원을 통한 선순환 문화창업생태계 구축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창업자 및 스타트업	·지원내용 - 입주공간 제공, 창작·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초기 기업성장·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도내 운영 중인 51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인프라, 인력, 자금, 시설, 성과 등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원	·지원내용 및 기간 - 등급별 50백만원 ~ 20백만원 지원 (도비 30%, 시군비 70%)
충청북도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체계적인 창업 지원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고용없는 성장 시 도래에 따른 고학력자 일자리 창출 지원	도내 대학생, 청년(18세~39세이하), 창업기업 (5년 이내)	·지원내용 및 기간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1회, 10여개팀 발굴 시상 - 우수 창업 동아리 지원 : 15개소 - 창업 우수 기업 발굴 기업별 맞춤 지원 : 5개 업체 내외
충청남도	청년CEO500 프로젝트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창작(invent a job)·창업(Start-up)에 도전하는 청년 CEO를 발굴하여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 창업가로 육성	도내 18세~만 39세의 예비 창업희망자 및 창업한지 1년 이내의 창업자	·신청분야 및 업종 - 기술창업, 지식서비스창업, 일반창업 ·지원내용 및 기간 - 창업공간 지원 : 기업당 3~6m2 내외 창업공간, 회의실, 공용 사무집기 제공 - 맞춤형 창업지원 :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홍보 등 - 창업활동비 지원 : 평가에 따라 월 25~60만원 (최대 지원기간 10개월) - 창업지원비 지원 : 시제품 제작, 전시회참가자가 필요한 CEO대상으로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참여 기회 제공 ※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 청년CEO500프로젝트 후속지원사업으로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언론 홍보 등 지원 사업

구분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전라북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기술, 지식서비스 기반의 아이디어를 연계한 창업교육과 자금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등 통합적 창업 패키지 제공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우수 기술 창업 유도	도내 우수아이디어 보유자 및 청년창업 준비자 중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및 기간 - 기술융합 창업 아이템 관련 필수 및 심화교육과정 운영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펀드자금 지원 * <기술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전북테크노파크 모집공고 선정 지원 (모집내용) 우수 아이디어 보유 기술창업 15개사 육성 * <지식 기반서비스 창업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모집공고 선정 지원 (모집과정) 지식서비스 과정, 창업확정형, 리턴패키지 과정 교육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사업	도내 고교·대학생 개인 및 창업동아리의 창의적인 창업아이템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유도	도내 고교·대학생 개인 및 창업동아리팀 중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공개 오디션 및 컨설팅지원, 우수 아이템 제품개발지원 - 입상자들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후속 사업화 One-Stop 서비스 지원(전문가컨설팅-시제품제작·보육센터 입주 등)
전라남도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 사업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도전정신을 창업으로 연결시켜 창조적 기업마인드 함양	39세 이하의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1년~3년차 유경험자	·지원내용 - 직접지원 : 창업공간,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등 ※ 팀당 1,000만원 ~ 1,200만원 차등지급 - 간접지원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등
	경북 청년몰	·경북도가 육성한 1,000여명의 청년CEO들의 제품홍보 및 판매공간 제공 - 청년CEO제품의 직접적인 판로개척을 통한 창업기업 지속성장 견인	도내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	·지원내용 - 200백만원(도비) * 청년 프리마켓 운영 등 청년 CEO 생산제품 판매 지원 * 블로그·SNS 등 인터넷 매체 및 지하철 홍보 * 창업특강(우수CEO 및 유명강사 초빙, 소규모의 창업특강)

구분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경상남도	창업아카데미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 · 청년창업 전문과정 운영으로 창업희망자 역량강화 및 일자리창출	도내 만 34세이하 예비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공간 제공 및 운영지원 : 공용사무기기 제공 - 창업교육 지원 : 창업전문맞춤형 교육, 창업멘토 - 마케팅 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특허·인증 획득관련 지원 등 - 재정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 창업자금 대출알선 등(등급별 차등지원) ※ (A등급) 1,000만원, (B등급) 700만원, (C등급) 5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 청년 대학생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창업마인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도내 대학 -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창업상업화 후속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창업아이템 기술개발원 지원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2016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에 제시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부록 3>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센터의 주요사업

지원사업	
사업명	내용
청년참 (모임지원)	○ 내용: 3명 이상의 청년이 모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임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대상: 분야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최소 3인 이상의 청년 커뮤니티 ○ 지원내용: 연간 최대 100만원
청년활 (프로젝트 지원)	○ 내용: 청년단체가 다음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비를 지원 ○ 대상: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청년단체 (대표자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최대 1,000만원
미대이사무실 (공간지원)	○ 내용: 청년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청년허브 사무공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 ○ 지원내용: 단체별 기본 사무 및 활동공간, 테이블 및 의자 - 사용면적 당 관리비 및 공간사용료 별도 부과
연구공모	○ 내용: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는 프로젝트 지원. ○ 대상: 청년문제에 따른 사회현상과 관련한 연구·조사 의지를 가진 청년 혹은 단체 ○ 지원내용: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국외네트워크	○ 내용: 청년이 원하는 해외 현장전문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포럼을 진행하며, 매년 청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플랫폼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교육사업	
사업명	내용
청년학교	○ 내용: 청년들이 든든한 답임과 동료들 만나, 각 전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학교 ○ 대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교육과정: 공통교육(경제, 도시, 원예, 음식 등) 및 현장교육 ○ 4개의 현장: 씨앗(국제교류), 문화로놀이방(생산제작), 동대문DRP(도시재구성), 청개구리제작소(메이커기술) ○ 수강료: 20만원(2회 분납 가능)
청년허브 YLA(YOUNG LEADERS ACADEMY)	○ 내용: 대학생 인문경영학교. 매주 토요일 은퇴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인문학, 경영학, 사회봉사 등을 배움. ○ 대상: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학년 무관)
일자리 사업	
사업명	내용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 내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장에서 청년들이 약 11개월 동안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대상: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근무기간: 9개월에서 11개월
서울 JOB스 (구인사이트)	○ 내용: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혁신분야의 현장과 강소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 서울잡스의 청년취재단이 채용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 2회 JOB동산을 개최
정책 연구 사업	
사업명	내용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 내용: 300명의 청년이 모여 서울시 행정에 참여 ○ 대상: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활동내용: 6개월
기획연구	○ 내용: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과 함께 청년의 문제를 연구

지원사업	
사업명	내용
청년창업 (모임지원)	○ 내용: 3명 이상의 청년이 모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임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대상: 분야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최소 3인 이상의 청년 커뮤니티 ○ 지원내용: 연간 최대 100만원
청년활동 (프로젝트 지원)	○ 내용: 청년단체가 다음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비를 지원 ○ 대상: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청년단체 (대표자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최대 1,000만원
미담이사무실 (공간지원)	○ 내용: 청년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청년허브 사무공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 ○ 지원내용: 단체별 기본 사무 및 활동공간, 테이블 및 의자 - 사용면적 당 관리비 및 공간사용료 별도 부과
연구공모	○ 내용: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는 프로젝트 지원. ○ 대상: 청년문제에 따른 사회현상과 관련한 연구·조사 의지를 가진 청년 혹은 단체 ○ 지원내용: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국외네트워크	○ 내용: 청년이 원하는 해외 현장전문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포럼을 진행하며, 매년 청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플랫폼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교육사업	
사업명	내용
청년학교	○ 내용: 청년들이 든든한 담임과 동료로 만나, 각 전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학교 ○ 대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교육과정: 공통교육(경제, 도시, 원예, 음식 등) 및 현장교육 ○ 4개의 현장: 씨앗(국제교류), 문화로놀이방(생산제작), 동대문DRP(도시재구성), 청개구리제작소(메이커기술) ○ 수강료: 20만원(2회 분납 가능)
청년허브 YLA(YOUNG LEADERS ACADEMY)	○ 내용: 대학생 인문경영학교. 매주 토요일 은퇴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인문학, 경영학, 사회봉사 등을 배움. ○ 대상: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학년 무관)
일자리 사업	
사업명	내용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 내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장에서 청년들이 약 11개월 동안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대상: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근무기간: 9개월에서 11개월
서울 JOB스 (구인사이트)	○ 내용: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혁신분야의 현장과 강소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 서울잡스의 청년취재단이 채용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 2회 JOB동산을 개최
정책 연구 사업	
사업명	내용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 내용: 300명의 청년이 모여 서울시 행정에 참여 ○ 대상: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활동내용: 6개월
기획연구	○ 내용: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과 함께 청년의 문제를 연구

<부록 4> 청년조사대상 설문지

청년용

제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

--	--	--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은 기본 연구과제로 「제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제주 청년창업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인식 및 의견을 청취·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이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6. 9.

제 주 발 전 연 구 원

연구책임: 고 승 한 박사(☎ 726-6145. FAX 751-2168. soc628@jdi.re.kr)

청년 일자리

1. 이른바‘**괜찮은 일자리**’는 다음 문항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포함하는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판단하시기에‘**괜찮은 일자리**’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문항 3가지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1, 2, 3 번호로 기입)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제3순위 ()번

- ① 높은 임금
- ② 고용안정성
- ③ 적절한 근로시간
- ④ 일-가족-개인생활 균형이 가능
- ⑤ 직장에서 평등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
- ⑥ 안전한 근로환경
- ⑦ 적절한 사회보장
- ⑧ 좋은 노사관계

2. 귀하는 **청년들에게** 위의 1번 문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조건들을 포함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제주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2-1. 그렇다면 **제주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공무원(행정, 경찰직 등)
- ② 교사(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③ 은행원(은행, 농협 등)
- ④ 공기업(지방공사, 각종 공단 등)
- ⑤ 우량 중소기업의 사무직
- ⑥ 대기업 제주지점(증권회사, 대형마트, 자동차, 보험 등)의 정규직
- ⑦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교수 등)
-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3. **제주에**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이 부족해서
- ② 산업구조가 농업과 관광·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서
- ③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없어서
- ④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모자라서
- ⑤ 도내 기업가들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해서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4. **제주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지속
- ②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 ③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여
- ④ 도내 기업들이 영세하여 투자를 못해서
- ⑤ 행정기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원이 미흡하여
- ⑥ 도내 기업가(혹은 사업체 대표)들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여
- ⑦ 우량 중소기업이 많지 않아서
- ⑧ 제주의 산업구조와 여건이 좋지 않아서
- ⑨ 산학협력이 잘 안되어서
- ⑩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5. 귀하는 행정기관(중앙정부, 도, 행정시)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적극 활용
-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
- ③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충
- ④ 제주에 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
- ⑤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 활성화
- ⑥ 국내·외 우량 중소기업의 적극적 유치 노력
- ⑦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일
- ⑧ 산학협력의 긴밀한 네트워크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청년 창업

6. 귀하는 취업과 창업 중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 ① 취업 먼저 (이유: _____)
 ② 창업 먼저 (이유: _____)

7. 귀하는 앞으로 창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7-1번~7-3번 문항으로 ② 없다 ➡ 8번 문항으로

7-1. 귀하께서 창업을 하신다면 언제하실 예정입니까?

- ① 학교 졸업 후 즉시
 ② 학교 졸업 후 1~2년 이내
 ③ 학교 졸업 후 3~4년 이내
 ④ 취업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회경험을 쌓은 후
 ⑤ 직장에서 퇴직해야 할 때
 ⑥ 개인적 사정 등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7-2. 귀하가 앞으로 창업을 최종 결정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환경 및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해당 업종 시장의 규모(크기) 및 성장성
 ② 소득증대의 기회
 ③ 국가경제의 기대 성장
 ④ 금융 활용성
 ⑤ 내부 여유자금(가족 소득/자산)
 ⑥ 규제 완화 기대감
 ⑦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7-3. 귀하가 **앞으로** 창업을 최종 결정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비경제적인 환경 및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자아 실현 욕구
- ② 도전 의식
- ③ 사회공헌
- ④ 성공한 기업가처럼 존경받고 싶은 욕구
- ⑤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
- ⑥ 리더십(사장) 욕구
- ⑦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8. 귀하는 창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없다 ➡ 9번 문항으로

8-1. 귀하가 참여한 창업교육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문항 8-1-1번으로 이동)
- ② 대체로 불만족(➡문항 8-1-1번으로 이동)
- ③ 보통 (➡문항 9번으로 이동)
- ④ 대체로 만족(➡문항 9번으로로 이동)
- ⑤ 매우 만족(➡문항 9번으로로 이동)

8-1-1. (문 8-1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참여한 창업교육 내용에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획일적 내용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 ② 교육내용 부실
- ③ 교육이 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④ 강사의 실력이 모자라서
- ⑤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9. 귀하는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불필요
- ② 거의 불필요
- ③ 약간 필요
- ④ 매우 필요

10. 귀하가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가(사업가) 마인드를 제고시켜 주기 때문
- ②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지식을 축적시켜 주기 때문
- ③ 창업아이템 선정 및 지원기관 활용 방안을 알려주기 때문
- ④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기 때문
- ⑤ 창업에 관심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1. 귀하는 현재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열악함
- ② 다소 열악함
- ③ 보통
- ④ 다소 좋음
- ⑤ 매우 좋음

12. 귀하는 제주에서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창업자금 조달 애로
- ② 경영기술 부족
- ③ 인력 확보
- ④ 판로 확보
- ⑤ 창업 관련 규제
- ⑥ 창업 분야 정보 취득의 어려움
- ⑦ 창업실패시의 재정적 부담
- ⑧ 창업 아이템의 부족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3. 귀하는 제주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창업보육 및 교육센터의 시설 확충
- ② 창업자금의 지원 시스템 확대
- ③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 ④ 정보지원 시스템 확대
- ⑤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4. 귀하는 청년창업을 위한 **중앙정부**(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책지원 사업**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대체로 모른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15. 귀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청년창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홍보
②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③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지적재산침해, 불공정) 개선
④ 복잡한 창업절차 등 규제 완화
⑤ 창업자금 조달 지원(융자, 투자)
⑥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⑦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충
⑧ 현재 부처별로 지원되는 대학의 청년창업교육 일원화
⑨ 창업교육의 상설화 (주말 창업교실, 일과 후 창업교실 등)
⑩ 청년창업 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도입
⑪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6. 귀하는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도지사의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
②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 시행
③ 청년창업 보육 공간 제공
④ 청년창업 자금의 조달 보증
⑤ 청년창업 자금의 펀딩 지원(크라우드 펀딩 등)
⑥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⑦ 청년창업 활성화위해 대학과 협조체계 구축
⑧ 청년창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시
⑨ 소셜벤처나 청년창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⑩ 청년창업 펀드 조성
⑪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또는 네트워킹 체계 구축
⑫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7. 귀하는 제주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대학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확충
- ② 대학 내 창업교육 사업과 창업보육 사업의 통합 운영
- ③ 창업교육 우수 강사 초빙
- ④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 ⑤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 ⑥ 창업 자금 확보 방안 지원(크라우드펀딩 등)
- ⑦ 창업 후 지속적 관리 및 컨설팅
- ⑧ 교과과정에 창업 관련 과목 개설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8. 귀하가 제주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평소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청년 취업

19. 귀하는 현재 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예 ☞ 19-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0번 문항으로

19-1. 그렇다면 어떤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 ① 공무원(교사 포함) ② 공기업(공사) ③ 대기업 ④ 벤처기업
- ⑤ 금융기관 ⑥ 전문직 기업 ⑦ 우량 중소기업 ⑧ 영세기업
- ⑨ 자영업 ⑩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0. 귀하는 어떠한 직장에 **취업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 ① 공무원(교사 포함) ② 공기업(공사) ③ 대기업 ④ 벤처기업
⑤ 금융기관 ⑥ 전문직 기업 ⑦ 우량 중소기업 ⑧ 영세기업
⑨ 자영업 ⑩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1. 귀하는 제주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어떤 요인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

- ① 명예와 명성 ② 직업의 안정성 ③ 수입
④ 적성과 흥미 ⑤ 보람과 자아성취 ⑥ 발전성과 장래성
⑦ 직장 분위기 ⑧ 직장 위치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2. 귀하는 **자신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직장**이 있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 23번 문항으로

22-1. 그렇다면 **왜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보수도 좋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② 좋지 않은 직장에 가면 다시 직장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③ 처음부터 괜찮은 직장

23. 귀하는 제주청년들이 **취업에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청년들의 스펙(어학연수, 각종 자격증 등) 쌓기가 모자라서
② 기대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③ 부모의 사회적 체면과 기대가 걸림돌이 되어서
④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⑤ 취업에 한두 번 실패하면 받아 주는 곳이 없어서
⑥ 제주에는 마땅히 취업할 만한 기업(사업체)이 없어서
⑦ 도내 기업가들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 부족

- ⑧ 산업구조가 농업과 관광·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서
- ⑨ 행정기관(도청, 시청)의 지원이 부족하여
- ⑩ 대학에서 전공 공부가 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어서
- ⑪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4. 귀하는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추진 정책**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대체로 모른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알고 있다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5. 귀하는 제주청년들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정책**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대체로 모른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알고 있다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6. 귀하는 **제주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청년들이 취업 눈높이를 낮춘다
- ②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철저히 쌓는다
- ③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듣는다
- ④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 ⑤ 취업에 앞서 취업 전문 상담가와 의논한다
- ⑥ 취업정보를 철저히 파악한다
- ⑦ 취업 전문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한다
- ⑧ 입학 때부터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택한다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부록 5> 청년창업기업 대상 설문지

청년창업기업용

제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

--	--	--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은 기본 연구과제로 「제주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제주 청년창업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인식 및 의견을 청취·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이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소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6. 9.

제 주 발 전 연 구 원

연구책임: 고 승 한 박사(☎ 726-6145. FAX 751-2168. soc628@jdi.re.kr)

회사 및 창업 기업가의 일반현황

1. 다음은 귀하의 회사에 대한 간단한 일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회 사 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명		성 별	남 ()		여 ()	
창립 연도	년	종사자 수 (명)	창업당시	창업 3년	창업 5년	현 재
응 답 자 (대표자)	성 명 :		연락처 :			

2. 귀사가 운영하는 주요 사업 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제 조 업 분 야	① 음식료품 ② 섬유 ③ 화학·화공 ④ 비금속 ⑤ 1차 금속 ⑥ 기계 금속 ⑦ 전기·전자(반도체, 통신기기 포함) ⑧ 정보통신·멀티미디어 ⑨ 정밀기기(의료기기, 계측기기 포함) ⑩ 신소재 ⑪ 환경·생물산업 ⑫ 기타 ()
서비스업 분 야	⑬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 (S/W 포함) ⑭ 인터넷 관련 산업 ⑮ 기타 서비스업 (간략하게 서술 :)

3. 귀하(대표자)의 창업 이전 직장은 어디었습니까?

- ① 중소기업 ② 대기업 ③ 연구기관 ④ 대학(원) 학생
⑤ 정부기관 (공무원 등) ⑥ 공기업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4. 귀하(대표자)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수료 포함)

5. 창업과 관련한 귀하(대표자)의 **연령**은 어떠했습니까?

5-1. 기업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당시의 연령은? 만 _____세

5-2. 창업 당시의 연령은? 만 _____세

5-3. 현재의 연령은? 만 _____세

창업활동에 영향주는 요인

6. 귀하가 기업가가 되고자 하셨던 **주요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자아실현(자신의 소질 계발과 이상 실현)을 위해서
- ②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 ③ 직장생활에서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유를 갖기 위해서
- ④ 사회에 공헌(기여)하기 위해서
- ⑤ 사장이 되기 위해서
- ⑥ 내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서
- ⑦ 가업을 이어 더욱 번창시켜 나가기 위해서
-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7. 귀하가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이전 직장 경험 ② 학교교육 ③ 가정교육 ④ 직업교육 ⑤ 기타

8. 귀하가 창업을 최종 결정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환경 및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해당 업종 시장의 규모(크기) 및 성장성
- ② 소득증대의 기회
- ③ 국가경제의 기대 성장
- ④ 금융 활용성
- ⑤ 내부 여유자금(가족 소득/자산)
- ⑥ 규제 완화 기대감
- ⑦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9. 귀하가 창업을 최종 결정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비경제적인 환경 및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자아실현 욕구
- ② 도전 의식
- ③ 사회공헌
- ④ 성공한 기업가처럼 존경받고 싶은 욕구
- ⑤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
- ⑥ 리더십(사장) 욕구
- ⑦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10. 귀하는 학교 교육과정(초·중·고·대학·대학원)에서 창업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3번 문항으로

11. 귀하는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다 ② 거의 필요없다 ③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12. 위 11번 문항에서 창업교육이 필요하다(③번과 ④번에 응답자만 응답)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기업가(사업가) 정신을 제고시켜 주기 때문
- ②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③ 창업아이템 선정 및 지원기관 활용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
- ④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주기 때문
- ⑤ 창업할 다른 동료들과 친분을 쌓는 기회가 되어서
- ⑥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13. 귀하가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자금조달 ② 인력 확보 ③ 기술 수준 확보 ④ 판로 확보
- ⑤ 환경 등 창업 관련 규제 ⑥ 행정으로부터 창업 지원받기
- ⑦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14. 귀하는 창업 초기에 **창업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가장 많이 조달된 사항 중 **한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개인 자금
- ② 공공기관의 융자 및 보증
- ③ 일반 은행 대출
- ④ 친척·친구 자금
- ⑤ 벤처캐피털
- ⑥ 개인투자자 (엔젤, 친구·친척자금 제외)
- ⑦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15. 귀사는 **엔젤 캐피털회사**를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과거에 활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다
- ② 현재 활용하고 있다
- ③ 활용한 적이 없다
- ④ 현재는 활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6. 귀사는 엔젤 캐피털(**특정 개인이 귀사의 성장·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자본, 동업자 투자 제외**)을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과거에 활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다
- ② 현재 활용하고 있다
- ③ 활용한 적이 없다
- ④ 현재는 활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7. **16번 설문문항에서** 엔젤 캐피털을 활용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활용하셨습니까?
(**활용하신 기업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 ② 벤처 캐피털회사의 소개를 통해서
- ③ 금융기관(벤처 캐피털회사 이외)의 소개를 통해서
- ④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18. 귀사의 경우 **창업 후**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① 창업 ~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년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 ④ 3년 ~ 5년 미만 ⑤ 없었음

창업환경과 기업가에 대한 인식

19. 귀하는 창업 당시에 비해 **현재의 창업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악화되었다
- ② 대체로 악화되었다
- ③ 거의 변화 없다
- ④ 약간 좋아졌다
- ⑤ 매우 좋아졌다

20. 위 19번 설문문항에서 창업환경이 악화(①번과 ②번 응답자만 응답)되었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수익창출 기반의 악화
- ② 규제의 증가
- ③ 높은 생산요소 비용(지가, 인건비, 원자재 등)
- ④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 ⑤ 기술발전을 따라가기가 힘들
- ⑥ 유사 사업체의 증가
- ⑦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창업활동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21. 귀하는 최근 창업이 위축되는 등 **기업가정신**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 **한 가지**만을 골라주십시오)

- ①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부재
- ② 행정의 과도한 규제
- ③ 기업가에 대한 좋지 않은 정서로 경영의욕 감퇴
- ④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
- ⑤ 수익창출 기반 악화
- ⑥ 유사 사업체의 증가
- ⑦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22. 귀하는 제주지역에서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니오 ↘

② 예 → 23번 문항으로

22-1. 그렇지 않다면 귀하는 기업가 정신에 관한 교육표준(교과과정, 교재개발 등)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잘 모르겠다

22-2. 그렇지 않다면 귀하는 창업교육을 상설화(주말 창업교실, 일과 후 창업교실 등)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잘 모르겠다

23. 귀하는 벤처자금 활성화를 위한 벤처 캐피탈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② 투자 규모 확대

③ 투자 기준 완화

④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24. 귀하는 엔젤 자금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엔젤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확대

② 엔젤 자금의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③ 엔젤 투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④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25. 귀하는 창업 촉진을 위한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규제완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기업의 규제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유연성 법 제정

②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으로 면책재산 범위 확대

③ 창업 관련 절차 및 비용 절감 등 진입장벽 완화

- ④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 ⑤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26. 귀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청년창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홍보
- ② 청년창업 지원의 장기화 및 체계화
- ③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지적재산침해, 불공정) 개선
- ④ 복잡한 창업절차 등 규제 완화
- ⑤ 창업자금 조달 지원(융자, 투자)
- ⑥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 ⑦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충
- ⑧ 현재 부처별로 지원되는 대학의 청년창업교육 일원화
- ⑨ 창업교육의 상설화 (주말 창업교실, 일과 후 창업교실 등)
- ⑩ 청년창업 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도입
- ⑪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7. 귀하는 **제주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도지사의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
- ②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 시행
- ③ 청년창업 보육 공간 제공
- ④ 청년창업 자금의 조달 보증
- ⑤ 청년창업 자금의 펀딩 지원(크라우드 펀딩 등)
- ⑥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 ⑦ 청년창업 활성화위해 대학과 협조체계 구축
- ⑧ 청년창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시
- ⑨ 소셜벤처나 청년창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⑩ 청년창업 펀드 조성
- ⑪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또는 네트워킹 체계 구축
- ⑫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8. 귀하는 **제주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대학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바랍니다)

- ①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확충
- ② 대학 내 창업교육 사업과 창업보육 사업의 통합 운영
- ③ 창업교육 우수 강사 초빙
- ④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 ⑤ 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 ⑥ 창업 자금 확보 방안 지원(크라우드펀딩 등)
- ⑦ 창업 후 지속적 관리 및 컨설팅
- ⑧ 교과과정에 창업 관련 과목 개설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9. 귀하가 제주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평소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면접일자	면접원	조사지역
2016년 9월 일		

♠ 바쁘신 와중임에도 설문에 응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ABSTRACT

The Reality Analysis and Revitalizing Policies on Youth Startup Business in Jeju, South Korea

Koh, Seung-Hahn & Ko, Hye Won

Keyword : business start-up, youth venture business, job creation, youth problem, youth unemployment, youth business education, youth venture revitalization

Most young people have been experiencing their unemployment in Korean society as a whole for several years. A thing to resolve this problem eventually changed into a highly profiled-national policy. Despite of diverse policy-based agenda perform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cross the country, youth unemployment question was not resolved with easy. This situation is likely to happen in Jeju.

Since the 1990s, the central government have made a sustained effort to develop and expand the youth start-up business into the national level, as a way of youth unemployment resolution. Now,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been performing a variety of youth startup policies, especially through specific university in the locality.

This study is to lay out the existing youth start-up enterprises, and further to suggest some policy options for revitalizing them in the future. This research explicitly details how Jeju young people with 20-39 years old respond youth startup business and its revitalizing policies. And it investigates what kinds of alternative options young CEO of startup companies have for their growth. It seems that such a policy implication stems from the empirical survey outcome, along with literature review and professional meetings.

To meet the research goal,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220 young people between 20-39 years old, as well as 33 startup enterprises in Jeju. Moreover, the interview data in depth was utilized for analysis.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1–11 in 2016 by using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s. The statistical analytic method was dependent on frequency analysis.

There are some primary outcomes from the social survey coupled with its data analysis. First, based on results from young respondents with 20-39 years old and 33 CEO of youth startup enterprise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are as followed : 1) most young people(96.4%) investigated in the survey have the education attendance more than junior college, 2) majority of the youth think that they will open a startup enterprise after the job career for several years, 3) related to economic factors to get youth venture business, both startup funding and market competitiveness were stressed, while non-economic factor was integral to self-achievement and challenge spirituality, 4) four colleges should install an innovative education and fostering system for consulting, program development, continuous management, mentoring & networking, and so on., 5) it was emphasiz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ill make secure for failed-young entrepreneurs, thus providing re-startup chance for new enterprises, 6) Jeju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with Jeju's four colleges, coupled with systematic aid and funding for Jeju young entrepreneurs, as well young colleg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e startup enterprise.

The future alternatively policy alternative options grounded on domestic and foreign cases, data analysis and diverse discussion would be eligible to several significant policy direction(eg., startup base creation, quality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cooperation intensification toward a youth startup business, opportunity offering for re-startup enterprise), and simultaneously driving strategies(eg., ecological system building for youth startup and education training, practice & assistance for startup launching and

investment feedback, re-challenge security for youth startup business.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activate and invigorat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youth startup enterprises in Jeju. First of all, Jeju local government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following policy options. First, a lawful ordinance is critical to youth startup enterprise, along with program inducement enhancing renovative entrepreneurship. Second, consumer focused-programmes for the startup enterprise will be generated, considering database building for startup items. Third, the startup training program will be paid attention to link with high-valued service industrial sectors in Jeju. Fifth, it is so important to build an efficient system in order to make fund youth enterprises, especially regarding to facilitate so-called Jeju Youth Stratup Fund. Finally, a secure system for re-startup business among young people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thus leading to offering a new opportunity against failed-young entrepreneurs.

With the advent of growth society without sustained employment, we have to much more pay attention to the youth employment rise and local economy growth in terms of youth startup enterprise revitalization. This is likely to make devotion to enhance the quality life of young people in Jeju. For this some difficult tasks, major social actors(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lleges, entrepreneurial groups, community, and NGOs) and general Jeju people will collaborate with each other, and put into practice diverse policy options toward Jeju youth startup enterprise revitalization.

연구진

책임연구원 :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고 혜 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기본연구 2016-15

제주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발행인 || 강 기 춘

발행일 || 2016년 11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3147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경신인쇄사(T.746-2044)

ISBN 978-89-6010-500-3 9333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